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교회
(빌립보서 묵상)

제임스 김 목사

목차

서론	3
“생각할 때마다” (1:1-6)	5
당신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1:7-11)	11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1:12-19)	19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1:12)	29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1:20-26)	32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란? (1) (1:27)	37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란? (2) (1:28)	42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란? (3) (1:27-30)	47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 (2:1-4)	54
한 마음 (2:2)	68
교회 안에서 다툼의 원인 (2:3a)	71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2:5-11)	74
“너희 구원을 이루라” (2:12-18)	84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자 (2:19-24)	95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 (2:25-30)	105
안전주의 4:(3:1-3)	116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3:4-6)	132
가장 고상한 지식 (3:7-9)	141
오직 한 가지 일만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3:10-14)	149
뿔대를 향하여 쫓아가라! (3:13-14)	161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3:15-16)	164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3:17-21)	172
“여러분은 주님 안에 굳게 서십시오” (4:1-5)	184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 (4:6-7)	203
생각하고 행해야 합니다. (4:8-9)	220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 (4:10-23)	237
결론	248

서론

저에게 있어서 “빌립보서”는 좀 특별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풀러 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Th.M.(Master of Theology)을 공부했을 때 논문을 빌립보서 2장 1-4절 중심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그 때 저의 지도 교수였던 김세윤 교수님은 제가 그 본문으로 논문을 쓰려고 한다고 말씀드리니까 저에게 그 본문에서는 논문 쓸게 별로 없는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본문으로 논문을 쓴 이유는 그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론(또는 공동체론)에 관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중심으로 논문을 쓰고자 여러 자료들을 찾아 읽고 공부하면서 빌립보서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는 저는 신학자 고든 피(Gordon Fee)가 쓴 "Paul's Letter to the Philippians"(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주석)을 다 읽고 요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몰랐는데 지금도 돌아보면 어떻게 약 500 장이 넘는 그 주석을 다 읽고 요약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 번째로 빌립보서 전체를 제가 섬기고 있는 승리장로교회에서 매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사도 바울과 그의 편지들 중 특히 마음이 많이 가는 빌립보서를 다시금 묵상하므로 성경적인 교회론(또는 공동체론)을 배우고 배워서 우리 승리장로 교회에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길 기원하였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빌립보서 전체를 묵상하고 설교한 후 이렇게 다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는 가운데 이 책의 제목을 뭐라고 정해야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았습니다. 그 때 생각난 것은 신학자 고든 피는 그의 주석에서 빌립보서의 주제가 “복음”(The Gospel)이라고 적은 것입니다. 저는 그의 말에 동의는 하지만 복음과 더불어 동시에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의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의 근거는 바로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중요시해야 하는 것은 그 복음의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복음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며 강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 제목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저의 작은 바람은 제가 섬기고 있는 승리장로교회나 주님의 몸 된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

활하는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그러한 교회로 세워주시길 기원합니다.

2017년 4월.

제임스 김 목사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교회가 되길 기원하면서)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서 1장 1-6절]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 식구, 하루에 몇 번이나 생각하십니까? 한 천 번 정도하시나요? 한 만 번 정도하시나요? 아마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하루에 몇 번 생각하는지 세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루에 몇 번이나 생각하나요?’란 질문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질문을 답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제 사랑하는 사람을 하루에 수 없이(무수히)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주 화요일 새벽기도회 때 시편 144편을 묵상하면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사람들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15절) “나의 사랑”(우리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2절). 그 시편을 쓴 다윗은 “나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며(10절) 또한 그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져 주신(7, 11절)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3-4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 중에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란 말씀을 묵상할 때 시편 139편 17-18절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깎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보배로운 주님의 생각의 수가 모래보다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생각하시되 그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서 그 자식을 하루에 수천 번 생각한다 할지라도 밤에 잠 잘 동안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시121:4)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무수히 우리를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생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며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3-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쓰면서(1절)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3-4절).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감독들과 집사들 및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2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나는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만일 감사하고 계시면 왜 당신은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는 것인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2008년 5월 4일, 어린이날을 맞이하기에 앞서 사랑하는 아들 딜런(Dillon)에게 쓴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까 편지 서두에 이렇게 쓴 것을 보았습니다: “Dear our son Dillon, Daddy and Mommy are very thankful to you. Thank you for being our son. Thank you for being nice to us and your sisters. Thank you for being who you are”(사랑하는 우리의 아들 딜런에게, 아빠와 엄마는 너에게 매우 감사하단다. 우리의 아들이 되어서 감사하고 우리에게와 너의 여동생들에게 나이스하게 해줘서 고맙다. 우리는 네가 너임에 감사하단다). 사랑하는 딸 예리에게도 쓴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까 그 편지 서두에 저는 예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아빠와 엄마의 삶 속에서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쓴 것을 보았습니다(Mommy and Daddy thank God for bringing you into our lives). 저는 그 이유를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배로운 선물이기 때문이다”(Because you are precious gift of God to us).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궁극적인 이유(the ultimate reason)를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절이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쓴

다른 편지 서문(인사말)에도 나와있습니다: “은혜와 평강”(롬1:7, 고전1:3, 고후1:2, 갈1:3, 엡1:2, 골1:2, 살전1:1, 살후1:2, 딤편1:2, 딤후1:2, 딠1:4, 몬1:3). 즉,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은혜와 평강” 때문입니다. 여기서 “은혜”란 한 마디로 말한다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undeserved gift)로서 바로 하나님께서 마땅히 멸망당해야 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죄 사함)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교회가 누리는 축복은 바로 “평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므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함이 되어 영적 평강”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박윤선).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생각할 때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평강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또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평생 감사해야 하며 또한 영원히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당신을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하나님께 간구합니다’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제가 2008년 5월 4일에 사랑하는 아들 딜런에게 편지를 썼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 후에 이렇게 딜런에게 썼습니다: “Daddy and Mommy are praying for you, Dillon. Our prayer for you is that you may know who Jesus Christ is and

believe in Him. He is your Lord and Savior. It is our prayer that you may understand and experience His love for you all the days of your life so that you may love Him also. Our prayer for you is that you may live your life according to the meaning of your name “Dillon” (Truthful and Faithful). Jesus is the Truth. And He is Faithful. May the Lord bless and gracious to you so that you may imitate our Lord Jesus Christ”[아빠와 엄마는 딜런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단다. 우리의 기도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다. 그 분은 너의 주님이시요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기도는 네가 그 분의 사랑을 너의 평생에 깨달아가며 경험하므로 네가 그 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네가 너의 이름인 “딜런”(신실하고 진실하다)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단다. 주님께서 너에게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길 기원한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즉, 바울은 그 성도들을 위하여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항상 기쁨으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왜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했을까요? 그 이유는 2 가지입니다:

- (1) 첫째 이유는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감사와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첫째 이유는 그들이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에 동참하였습니까? 빌립보서 4장 15-16절을 보십시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에 바울이 필요한 것(쓸 것)을 물질적으로 후원하므로 그의 복음 전도를 협력하였습니다. 그 후원을 받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2) 둘째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였던 이유는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였던 두 번째 이유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시작한 착한 일, 즉 구원의 일을 반드시 완성하신 줄 확신한 것입니다(박윤선). 이 바울의 확신은 결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근거한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확신은 하나님에게 근거한 확신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선택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이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기에 그는 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항상 감사와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불성실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미쁘신 이유는 하나님은 진실(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구원의 일은 우리가 불성실할지라도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근거한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에게 근거한 것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면 장차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 구원의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도 사역에 모두 다 동참해야 합니다.

지난주일 저희 교회가 3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십시다’였습니다. 그리고 1주일 지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광고 시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원로 목사님께서 오늘 밤 비행기로 다시 선교지로 그리고 김창민 집사님이 내일 오후 비행기로 이집트로 떠나십니다. 제가 알기론 김창민 집사님은 한 3년 계획하시고 복음을 전하러 그 먼 곳에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 12월에 잠깐 여기에 다시 들어오실 계획이시지만 다시 이집트로 가셔서 한 3년 선교인으로 그 곳에서 계시면서 복음

전도에 힘을 쓰시려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 교우 식구들이 원로 목사님과 김 집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되 우리 모두가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과 집사님을 통하여 그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케 하시길 기도하십시오. 기도와 더불어 원로 목사님과 집사님의 복음 전도 사역에 우리 모두가 물심양면으로 동참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지금 성가대에서 섬기시고 계신 유 선교사님 부부도 앞으로 김창만 집사님이 계신 멕시코 엔세나다에 가서서 선교하실 텐데 두 분을 위해서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되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완성이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억하며 기도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 사역이 더욱더 확산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나를 무수히 생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당신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7-11절]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특히 그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심지어 이미 이 세상을 떠났다면, 당신은 그분을 생각할 때 어떠한 추억이 떠오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의 심비에 주님의 사랑의 추억들을 많이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어도 우리 자녀들이 자신들의 심비에 적힌 그 주님의 사랑의 추억들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님 안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함께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언젠가 우리는 헤어져서라도 그 좋은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만남과 주님 안에서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이러한 감사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만남과 주님 안에서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가 있습니까?

지난주일 우리는 빌립보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였는지를 2가지로 생각했었습니다: (1) 바울은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나는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3절). (2) 바울은 그들에게 ‘나는 당신을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하나님께 간구합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4절).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까? 그 궁극적인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은혜와 평강”, 1:2). 좀 더 구체적인 이유는 두 가지임을 배웠습니다: (1) 첫 번째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5절). 동참하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에 그가 필요한 것을 물질적으로 후원하므로 그의 복음 전도 사역에 협력하였습니다(4:15-16). (2) 두 번째 이유는,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시작한 구원의 일을 반드시 완성하신 줄 확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7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그들을 향한 자기의 사랑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 즉, 바울은 그들에게 ‘당신들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because I have you in my heart). 과연 바울은 자기 마음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는지 한 3가지로 교훈을 받아 우리도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실천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3절). 그리고 그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였습니다(4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가 세 가지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 (1) 궁극적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기 때문입니다(2절).
- (2)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간구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뻐하였던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에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5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필요한 것을 물질적으로 후원하므로 그의 복음 전도 사역에 동참한 것을 감사하였습니다(4:15-16).
- (3) 세 번째 이유는, 바울은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시작하신 구원의 일(“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완성하실 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6절).

그런 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 와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바울은 그들에게 “여러분을 내가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7절). 그리고 그가 그들을 늘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것입니다(3절).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바울의 매임(감옥에 갇힘)과 복음을 변명함(변호함)과 확정함(증거 할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7절).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한 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다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7절).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란 먼저 우리가 이미 목상한 5절 말씀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되(the fellowship of the gospel) 특별히 그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나의 매임”) 그가 필요한 것(쓸 것)을 채워주므로(참고: 4:15) 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늘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으로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감사한 또 다른 이유는 바울의 복음 변명함과 확정함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1:7). 여기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한 하나님의 은혜인 복음 변명함과 확정함이란 그들이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따르는 고통과 역경에 그들 또한 동참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1장 29절에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는 그들이 다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전파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기에 바울은 그들을 늘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당신이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중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당신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늘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수고하며 어려움과 역경과 심지어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은 미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민족들에게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분들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 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인생과 생명을 다 받쳐서 주님만을 섬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을 복음 전파 사역에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을 본받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당신들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당연)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들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7절). 그런 후 오늘 본문 8절에 와서는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 내용을 보면 우리는 조금이나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사랑하였는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랑을 이렇게 편지를 통하여 그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향한 자기의 사랑이 진실 된 것임을 표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기의 마음이 진실 된 사랑임을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이웃 사랑이 진실 된 사랑입니까? 과연 우리는 우리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금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모해야 하는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갈망한다(earn)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웃을 갈망한다는 말은 한 2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 우리가 이웃을 갈망한다는 말은 우리는 이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측은히 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31장 20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책망하여 말씀하실 때마다 깊이 생각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측은히 여기십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내 창자가 들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내가 반드시 그를(우리를) 불쌍히 여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측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사모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측은히 여겨야 합니다.

(2)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웃을 사모한다는 말은 이웃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경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시기하기까지 사모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우리 이웃을 사랑케 하시는데 이웃을 시기하기까지 사모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사모함에 있어서 우리 이웃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시기에는 나쁜 시기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에서 있어야 할 좋은 시기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향하여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시기로 우리는 시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 부부 사랑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사모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9-11절을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당신은 사랑하는 이웃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사모하되 그 이웃을 측은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이웃을 위하여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 이웃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되 우리는 우리 이웃을 위하여 간절히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되 결코 한두 번만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그리했습니다. 그는 그의 이웃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4절). 간구하되 그는 그저 한두 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1장 4절을 보면 “간구할 때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항상 생각하였으며(3절)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가 그리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3절). 그리고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였습니다(4절). 그 이유는 그들이 첫날부터 그 때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5절). 그 뿐만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때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확신이라 진실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착한 일”, 즉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기에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이러한 확신과 감사와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바울은 특히 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은 바로 “사랑”입니다(9절). 어떠한 사랑입니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사랑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목적은 무엇입니까? 10절을

보십시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사랑을 구한 목적은 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길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박윤선).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며 허물이 없길 바랬습니다(10절). 즉, 바울은 그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넘어지지 않길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박윤선).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길 간절히 원했습니다(11절). 그는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들로서 선행의 열매를 가득히 맺길 기도하였습니다(박윤선).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우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이웃에게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주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간구하되 우리 이웃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며 허물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움을 받아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살어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울처럼 ‘당신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라고 말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이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모하여 지금도 또한 앞으로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개야, 너는 내 마음에 있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있기에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생각하시되 그 생각이 모래사장에 모래알보다 많을 정도로 무수히 생각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척 사모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있는 자,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기도하길
기원하면서)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19절]

당신은 이번에 한국에 교황이 왔다 간 것을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한 예가 기아 자동차 쏘울입니다. 그 이유는 교황이 방한 기간 중 대중과 가까이 하기 위해 방탄 처리가 되지 않은 검소한 자동차를 타고 싶다고 하여 기아 자동차 쏘울을 타고 다니므로 말미암아 막대한 간접 홍보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특히 쏘울의 주요 판매 시장이 북미로(쏘울 수요의 80%가 미국) 한정돼 있었는데 이번 방한 기간 교황이 그 차를 타고 다니므로 말미암아 그 차의 이름과 모습이 전 세계 전해짐으로써 막대한 광고효과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인터넷). 그 뿐아 아니라 실제로 교황의 방문을 앞둔 11일부터 교황이 출국한 다음날인 19일까지 영업일수 6일간 기아차 쏘울의 하루 평균 계약대수가 32.5대로 지난달 하루 평균 계약량 20대보다 62.5%나 증가했다고 기아차는 밝혔다고 합니다(인터넷). 저는 이러한 효과 외에 교황의 방한으로 인하여 카톨릭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주 광화문 근처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어느 한 형제하고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했었는데 자기랑 같이 일하는 무신론자 회사 직원이 회식자리에서 교황이 좋다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회사 직원이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고 말하면서 ‘목사들이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런데 천주교는 덜하다’고 말했나 봅니다. 저랑 대화했던 기독교인 형제가 큰일이라고 말하면서 “잘 모르는 무신자들이 천주교로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지금 한국 기독교의 신뢰는 바닥입니다”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에 신물이 나서 천주교로 개종하겠”다는 사람도 있는가 봅니다. 당신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도 지금 한국 기독교의 신뢰가 바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형제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나 부터 직장에서 신뢰 받는 사람이 되야?” “말보다 행동으로? 이기적이기 보다 이타적인 섬김?” “인품으로” “소외된 사람에게 관심?” 어떻게 해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시금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회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변화가 되어 합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먼저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개혁한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야 합니다(12절).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삶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귀를 기울여 순종해야 할 또 다른 말씀은 바로 빌립보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듣고) 믿음이 무력무력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 전파의 진전(진보)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12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라는 제목 아래 오늘 본문 1장 12-19절까지의 말씀을 한 2가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이 “당한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12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당하고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편지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었던 일은 바로 “나의 매임”, 즉 그는 옥중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었던 당시 그는 로마 옥중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당하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옥중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 것이 좀 놀랍지 않습니까? (3-4절) 어떻게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을까요? 어떻게 그는 감옥에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였을까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바울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웬만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면 감옥에 갇혀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에서 그가 실라와 함께 “깊은 옥”에 갇혀 그 발을 차꼬에 든튼히 채워져 있었을 때에도(24절)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25절).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빌립보에 이르러(12절)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16절) 그들을 따라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을 그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했을 때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17-18절). 그것을 목격한 그 귀신 들었던 여종의 주인들은 그녀가 점치므로 그녀를 통하여 수익이 많았는데(16절) 이젠 더 이상 그녀가 점을 치지 못하므로 자기들의 큰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습니다(19절). 그리고 그들은 상관들 앞에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고발하므로 (22절) 결국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게 하여 매로 많이 치게 한 후 옥에 가두었습니다(22-23절).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였을까요?

우리 사람들은 상황에 많이 좌지우지 당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접하게 되면 많은 때에 그 상황에 영향을 받아(지배를 받지 않는다 하여도) 우왕좌왕 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바울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원망)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고 이렇게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자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불평,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또한 어떻게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쁨으로 간구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상황에서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갇힌 바 되었”을 때(3절) 그들은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10절). 그리고는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11-12절).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었느냐고 원망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애굽에서 모세에게 말했던 것을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모세에게 원망하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당하였고 혹시 지금도 아니면 앞으로 당할 역경과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본능은 감사보다 불평/원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찬송하며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다든지 출애굽 당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방으로 갈헨바 되었다는 것이 좀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 한번 암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의사 선생님이 다 검사 후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는다면 과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보이는 정서적 반응은 크게 3단계로 나뉘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인터넷):

- (1) 초기 반응 단계는 암을 진단받은 지 일주일 이내에 부정, 불신, 절망 등을 경험하는 시기이며 이때 일부 환자는 심한 불안 때문에 검사나 치료 방법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하는 수도 있다고 합니다.
- (2) 두 번째 단계는 감정적으로 동요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 환자들은 암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반복적으로 떠오르고 우울, 불안, 불면, 집중력 장애, 식욕부진 등이 1~2주 지속돼 일상생활을 유지하기조차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 (3) 세 번째는 적응 단계로 진단 및 치료 과정을 받아들이고 환자마다 자신의 대처 방식을 찾아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단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는 가운데 암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정신과적 문제는 이렇다고 합니다. 암 환자의 50~70%가 암과 관련해 겪는 어려움 때문에 불면, 불안, 우울 등이 생기는 적응장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또 암 환자의 10~20%에서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을 동반하는데 이때는 기분 저하, 의욕 감소, 불면증과 더불어 식사를 못하거나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지는 등 다양한 신체증상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죽음에 대한 공포, 암 재발과 전이에 대한 불안,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닥쳐올 변화와 고통에 대한 걱정 등이 많아지고 작은 신체적 변화에도 큰 병이 아닐까 지나치게 걱정하는 불안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드물게는 가족들이 환자 자신을 죽기를 바라는 게 아닐까, 치료진이 일부러 잘못된 치료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피해망상을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전립선 암 진단을 받았던 존 파이퍼 목사님은 “당신의 암을 허비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암을 허비하지 말아야 할지를 한 9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5가지만 당신과 나누고자 합니다(파이퍼):

- (1) 만일 우리가 우리의 암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디자인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암을 허비할 것입니다.
- (2)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디자인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 (3) 하나님께서 디자인 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암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암은 이기는 것입니다.
- (4) 하나님께서는 암으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깊은 사랑과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을 창조하길 원하십니다.
- (5) 암이란 (그리스도를) 증거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눅21:12-13). 당신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암이란 그리스도를 증거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가 당한 일이 어떠한 일이던지 간에 그리스도를 증거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야(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한 일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좋은 소식)이 진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기도하며 고민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가 너무 힘들다고

우리 자신에게만 몰두(self-absorbed)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당한 일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 할 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바울의 매임을 통하여 이뤄진 복음 전파의 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1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비록 감옥에 매여 있지만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복음 전파자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13-14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었던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 바울이 옥에 갇혀있을 때에 그를 지키고 있었던 “모든 시위대” 군인들이 바울이 감금된 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된 줄로 알려지므로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었습니다(13절) (박윤선).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감금돼 있었을 때 그를 지키고 있었던 동원된 군인들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금된 줄을 알게 되므로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군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바울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금된 줄을 알려지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진보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감금이 그리스도 때문에 된 줄로 대외적으로 알려졌다라는 말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신자가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그것은 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또 그런 관계의 수난인 것이 드러난다면 그 사실을 아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참된 줄을 알게 한다”(박윤선). 저는 이 박윤선 박사님의 말을 생각해 볼 때 얼마 전 뉴스에 몇 칠

동안 보도되었던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의료 활동을 하다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켄트 브랜틀리 박사가 생각났습니다. 그가 선교지 라이베리아로 떠나기 석 달 전 남긴 말은 “힘든 날이 오면 저는 다시 하나님의 소명을 마음에 되새길 겁니다”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는 아프리카를 섬기다가 시련의 순간을 맞더라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소명에 이끌림을 받겠다는 고백입니다(인터넷).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의사로서 섬기다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므로 전 세계가 그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의 소명에 이끌림을 받아 그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외지에 가서 의료 봉사하다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소명에 이끌림을 받는 자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어디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이 세상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들어냅니다. 이러한 소명 자들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2)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었던 이유는 형제들 중 다수가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14절을 보십시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영적 지도자인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인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핍박 자들을 두려워하여서라도 피하던지 그리할 텐데 오히려 그들은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보면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분명합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바울이 당하는 핍박이 무섭다 하더라도, 그 무서운 핍박을 바울로 하여금 능히 견디어 서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는 더욱 강하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핍박의 무서운 사실만 보지 말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든든한 신뢰심을 가져야 한다”(박윤선). 이러한 든든한 신뢰심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은 바울의 매임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였던 것입니다(14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사람들 모두가 순수한 동기를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5-17절을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out of goodwill), “사랑으로”(in love)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out of envy and rivalry),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out of selfish ambition)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17절). 여기서 순수하지 못하게 투기와 분쟁과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므로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하였던 사람들은 아마도 바울을 시기하고 그를 미워했던 사람들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한 동기로 전하지는 않았습니다[18절, “겉치레로”(from false motive)].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겉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18절).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불순한 동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나 순수한 동기를 복음을 전하나 전파되는 내용은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기에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불순한 동기를 전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빌립보서 2장 3절 상반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Do nothing out of selfish ambition or vain conceit).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out of selfish ambition)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빌립보서 2장 3절 상반절에 와서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였기에 바울은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입니다(18절). 또한 바울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 이유는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기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알고 있었기에 바울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 저는 라이베리아에서 의료 선교하다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미국 애틀란타 에모리대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캔트 브랜트리 의사와 낸시 라이트볼이 병원에서 퇴원했다는 소식을 CNN 인터넷 뉴스로 접하였습니다(인터넷). 그 소식을 접한 후 저는 인터넷상에서 캔트 브랜트리 의사가 퇴원하면서 한 연설을 동영상으로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God saved my life)라고 고백하는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연설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몽클했었습니다. 특히 그가 라이베리아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9 일 동안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매일 매일 점점 더 아파지고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들을 때 참으로 그 귀한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마음이 몽클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는 ‘하나님, 저의 질병 속에서도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이나 혹은 나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As I lay in my bed in Liberia for the following nine days, getting sicker and weaker each day, I prayed that God would help me to be faithful even in my illness, and I prayed that in my life or in my death, He would be glorified). 그리고 저는 다른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환자였다가 이미 지난 화요일 조용히 퇴원한 낸시 라이트볼 자매님이 말한 한 마디 말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 한 마디는 바로 “To God be the glory!”(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였습니다. 이 두 형제, 자매가 당했던 일, 즉 그들이 치사율 90%의 치명적 전염병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그러한 생사의 갈림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캔트 브랜트리 의사가 퇴원 공식 회담에서 그 많은 기자들 앞에서 스스로 자청하여 연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길 원하여 하나님께 간구한 것을 볼 때에 이번 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이나마 엿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로서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의 당하는 일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나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빌립보서 1장 12절).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과연 이 상황이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상황인가? 아마도 지금 내가 접한 상황은 내가 원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상황일 것이다. 그러기에 지금 나는 내 상황이 불만스럽다. 그리고 지금 나는 불만스러운 내 상황으로 인하여 힘들어 하고 있다. 괴롭고 고통스럽기 만하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하는지 망막하다. 그러므로 나는 내 상황을 바라보면 볼수록 낙심이 되고 심지어 절망까지 된다. 소망이 없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나는 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을 읽게 되었다. 읽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한 일”(my circumstances)이 “도리어”(have turned out)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생각하게 되었다. 먼저 나는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즉, 나는 그가 처하고 있었던 상황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 상황을 바울은 그 다음 절에서 “나의 매임”(my imprisonment)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3절). 그리고 그는 “모든 시위대 안”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가 당한 일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만일 내가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공산국가이던 모슬렘 국가이던 선교한다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이 생각났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은 깊은 옥에 갇혀 차꼬에 튼튼히 채워진 상황에서(24절) 실라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과연 나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바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아마도 하나님께 감옥에서 건져 달라고 간구는 할 것 같다. 그러나 다른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하나님을 찬송할지는 모르겠다. 아마도 내 힘으로는 찬송을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찬송케

하실 줄 나는 믿는다. 그 이유는 나의 첫째 아기가 죽은 후 뿔가루를 뿌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찬양케 하셨기 때문이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나는 내가 원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부인(deny)하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뜻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줄 믿고(롬12:1) 내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 가실지를(롬8:28)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릴 것이다. 그 이유는 오늘 읽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말을 묵상할 때 한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는, 바울은 매여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매여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힘든 상황에 매여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매여 있을 수 없음을 믿고 나의 매임을 통해서도 복음의 진보가 있길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다. 또 하나는, 복음 전파자 바울이 없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다른 이들을 통해서도 이루신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내가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다시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매임 상태에 놓여있었을 때에 두 그룹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진전을 이루셨다. 한 그룹의 사람들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착한 뜻으로”(good will) 그리스도를 전파했다(15절). 그리고 이들은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out of love)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16절). 이들은 “참으로”(in truth) 그리스도를 전파했다(18절). 그러나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from envy and strife) 그리스도를 전파했다(15절). 이들은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17절). 이들은 “겉치레로”(in pretense) 그리스도를 전파했다(18절). 그러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in every way)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였기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였다(18절). 결국 이렇게 바울이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기에 바울은 기뻐한 것이다.

나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길 기원한다. 나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전파되길 기원한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있으므로 우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의 진보가 있길 기원한다(25절).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기쁨)이 되게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8:28)]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빌립보서 1장 20-26절]

우리 사람들은 소망을 먹고 삽니다. 소망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먹고 마시며 일하며 하루하루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앞으로 나아질 꺼야’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현재의 역경과 고통스러운 환경을 이겨 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언젠가는 나도 성공할 수 있을 꺼야’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며 인내하며 현실의 당면한 상황과 싸우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하루하루 견디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소망이 죽으면 우리는 비록 살아 숨 쉬고 있으나 죽은 자나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리도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마저도 끊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0-21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였을까요? 그것은 한 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바로 “살든지 죽든지 내(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20절). 무슨 뜻입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존귀하게 되게 하다’라는 말의 원어 헬라어의 의미는 ‘커지시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커지시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커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면 그리스도가 커지시게 하기 위해선 바울 자신의 몸은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작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들자면, 바울의 이름이 작아지고 낮아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커지고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성경적인 예는 바로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사도 요한이 한 말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분은 점점 번영해야 하고 나는 점점 쇠퇴해야 한다”][(NIV) “He must become greater; I must become less”]; (NASB)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새찬송가 323장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3절 가사가 생각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2X).

실제로 바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1장 12-14절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훈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자기 같이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박해하던 폭행자, 즉 “죄인 중에 괴수”(15절)에게 주님께서 공훈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충성되이 여겨 그에게 직분을 맡기시되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할 때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하므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섬기되 사도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으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에 그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생명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에게는 자기 생명보가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즉 복음 전파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 가면서 비록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자기 몸은 감옥에 갇혀서 매여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감옥에 갇힌바 된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기보다 자기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빌1:12). 그리고 그는 자기의 매임(옥에 갇힘)으로 인하여 도리어 매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는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기쁨을 편지로나마 나눴습니다. 그런 후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0절에 와서는 자기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나눴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히(큰

용기를 가지고)(20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요 그 사명을 신실 되게 감당하고 완수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게 하길 원했는가 하면 그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 되길 원했습니다(20절). 그가 그 정도로 간절히 원했던 이유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21절). 무슨 말입니까? 그는 현재에 나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의 죽은 후의 상태도 유익하기에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므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게 하길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까? 만일 그리 믿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어도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사도 바울처럼 당신은 현재 나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은 후에 상태도 유익하다고 믿습니까? 만일 믿는다면, 당신도 사도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므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데 생명을 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그 둘 사이에 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23절). 여기서 그 둘 사이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것(22절)과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23절)입니다. 당신도 실제로 바울처럼 이 둘 사이에 끼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 쪽으로는 이 세상을 떠나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다른 쪽으로는 이 땅에 더 살아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완성)해야지 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성하시기 전에는 우리를 이 땅에서 불러 가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좀 빨리 불러가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에는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4절)라는 말씀이 생각나면 우리는 슬픔과 고통과 죽을 일이 쌓인 이 세상에서 더욱더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가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 질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것과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 둘 사이에 끼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습니다(빌1:22-23).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생각하면 그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었기에 그렇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23절). 그런데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사실을 말합니다(24절). 어떻게 바울이 이 땅에 사는 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더 유익했습니까? 바로 바울의 존재가 그들에게는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for their progress and joy in the faith)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25절).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존재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빌2:8). 죽기까지 순종하되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자기 자신은 감옥에 갇혀있었지만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다(12절)는 소식을 들으므로 그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였습니다(18절).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이 땅에 육신으로 있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24절) 그들과 함께 거할 줄을 확실히 안다고 말하였습니다(25절).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자랑이 바울 자신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길 원한다고 말하였습니다(26절). 즉, 바울은 자기가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으므로 자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들의 자랑스러운 기쁨이 넘치길 원하였습니다(26절). 이렇게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 자신 때문에 기쁨이 넘치길 원했습니다.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진보로 인한 기쁨이요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로 인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길 기원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바울은 그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그가 복음을 전하길 원하였는가 하면 그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현대인의 성경)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가 자랑하고 싶었던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기에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라고 까지 말했습니다. 왜 바울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길 간절히 원했습니까? 왜 그는 그리스도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헌신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는 자기가 받은 이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므로 오직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빌1:20). 우리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므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우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새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3절).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뜻이 이뤄지길 간절히 기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나의 생명보다 귀한 주님이 주신 사명에 붙들린바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란? (1)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빌립보서 1장 27절).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생각할 때 기도하며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 중 하나는 아마도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어느 부모님들도 죽기 전에 자신들이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을 보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자기들의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사랑하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다 보고 싶을 것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신앙의 아버지로서 저의 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기대하는 것은 세 자녀들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무력무력 자라나 함께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주님의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함께 힘을 합하여 서로 도우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 좋겠지만 나중에 결혼하여 각자 다른 교회에서 섬기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세 자녀 부부가 간접적으로라도 서로 도우면서 주님의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을 저도 언젠가는 제 세 자녀들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그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면서(27절) 그들에 대하여 듣고 싶은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28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듣고 싶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27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는, “서서”(stand firm)입니다.

저희 승리장로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셔서 선교하시는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 선교지에서 듣고 싶은 소식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바로 우리 승리교회 모든 식구들이 믿음에 견고히 서있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승리 식구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더욱더 견고히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아마도 원로 목사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7-28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한 후 그들에게 듣고 싶어 하는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듣고 싶은 일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이 견고히 서 있다(standing firm)는 소식이었습니다(27절). 견고히 서 있되 특히 “대적하는 자들”(28절)로 인하여 그들이 “고난”(29-30절)을 당하고 있을 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견고히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4:1).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전16:13),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앞이라”(15:48). 어떻게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견고히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by faith)으로 우리는 견고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고후1:24).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꼭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믿음에 견고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살후2:15).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고후1:21).

둘째는, “한 마음”(one spirit)입니다.

당신이 보기에 당신의 교회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도우면서 힘을 합쳐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이 질문에 전적으로 “예”라고 마음속으로라도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육신의 가정도 부부도 그렇고 자녀들끼리도, 또한 부모와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도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게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영의 가정이 교회에서 교회 식구들이 서로 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일에 협력할 수 있을까 충분히 의문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마음”이라고 말했을 때 그 단어는 영어로 “one spirit”(한 심령)이라고 번역되었는데 그 단어의 의미는 크레다너스란 신학자에 의하면 “이해”(understanding)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박윤선). 만일 이 해석이 맞는다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이해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 식구들을 서로 바라볼 때 이해가 되십니까? 서로 다 다른 점들이 한두 가지 아닐진대 당신은 서로 이해하면서 함께 한 교회 식구들로서 주님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을 한 교회에서 하다가 보면 서로가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충분히 만날 수 있습니다. 부부도 서로가 너무나 다른데 교회 식구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은 우리에게도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유오디아”란 자매와 “순두게”란 자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to agree with each other in the Lord)고 권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두 여인이 빌립보 교회에서 열심을 내어 섬기면서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대답을 빌립보서 2장 2-3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교회 식구들이 서로 한 마음으로 함께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에만 우리는 한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면서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한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내가 저 사람 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한 마음으로 서로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서로 도우면서 주님을 일할 하려면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할게 바로 교만입니다. 특히 우리는 영적 우월감을 경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가므로 한 마음으로 견고히 서서 함께 협력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셋째는, “한 뜻”(one mind)입니다.

여기서 “한 뜻”이란 칼빈에 의하면 “의지와 욕망”(will and desire)을 가리킨다고 합니다(칼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즉, 그는 그들이 주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에 있어서 같은 의지와 욕망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뜻을 합”하라(one in purpose)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뜻을 합하여 함께 힘을 합쳐 서로 도우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다 각자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성길 수가 없습니다. 그저 각자 자기의 마음과 생각대로, 각자 자기의 뜻대로 주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함께 추구한다면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일을 협력하여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함께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넷째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for the faith of the gospel)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신앙”이란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묵상한 빌립보서 1장 20절을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생각할 때 복음의 신앙이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바로 철저한 복음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이 전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서슴지 않고 복음의 신앙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가 얼마나 복음에 매달려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듭니다. '복음의 신앙'이란 복음 중심의 삶을 의미합니다. ... 신앙이 복음이요 복음이 신앙입니다. 삶은 신앙으로 신앙은 복음으로 드러납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리스도 복음 중심의 철저한 삶을 복음의 신앙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인터넷).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서서 서로 협력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27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서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우리도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돕고 힘을 합쳐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중심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각자의 뜻을 십자가 앞에 부지런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믿음에 견고히 서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보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 받길 기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의 본을 보여주시는 장인 어르신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란? (2)

“무슨 일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8절).

‘지도력’(Leadership)에 대해서 여러 책을 쓰신 유명한 John Maxwell이란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파워 리더십”(Power Leadership)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미국 “최고의 전투기 조종사”(Ace Pilot) ‘에디 릭켄백커’(Eddie Rickenbacker)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세계 1차 대전 전쟁이 끝날 때까지 300전투시간(미국 조종사 중 가장 많은 시간임)을 기록했으며, 134차례 적기와 만나, 26대를 격추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명예의 훈장을 비롯 8개의 특별 공로 십자가 훈장과 프랑스 레종도뇌르 훈장(Legion of Honor)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보여준 용기는 언론으로 하여금 ‘미국 최고의 전투기 조종사’(American Ace of Aces)’라는 칭호를 붙이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하루는 전투에 보여준 그의 용기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용기란 두려워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용기란 필요 없는 것입니다”(Courage is doing what you are afraid to do. There can be no courage unless you are scared).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당신이 두려워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캐나다에서 실시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놀랍게도 다른 사람 앞에서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 즉 “대중 앞에서의 연설”(41%)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소 공포”(높은 곳에서 공포를 느끼는 것)(32%), 금전문제(22%), 깊은 물(22%), 질병(19%), 죽음(19%) 그리고 어두움(8%)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마도 죽음은 한 번도 겪지 못한 일이지만 프레젠테이션은 이미 두려운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꼭 해야 될 말을 까먹고 못하고, 말을 버벅대고, 청중들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겠다는 feedback이라던지, 직장 상사의 질책을 받으면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부끄러움과 자신에 대한 실망감 등의 일상생활에서 겪지 못한 공포 수준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공포 수준의 경험을 하고 또 하게 되면 충분히 “대인공포증(사회공포증)(Anthropophobia, Social Phobia)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증상의 정의는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등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서 그런 상황을 가능한 피하려 하는 공포증(phobia)의 한 증상”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증상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없다든지 상대방이 자기를 안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강박관념(obsessive idea) 때문에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사람과 같은 자리에 앉는 것이 불안하고 두려워, 타인을 만나는 것을 피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옥에서 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받아 읽고 있을 때 분명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인하여 (로마) 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자기들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자기들도 옥에 갇히든지 어떠한 핍박을 받을 줄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예상했었다면 또는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을 줄을 알았을 것이면 인간의 본능은 받을 핍박을 두려워하여 그 핍박 받을 수 있는 상황을 기피하고자 적어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적인 자리에서는 전하지 않고 몰래 전하던지 아니면 아예 복음 전파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빌립보서 1장 14절을 보면 “형제(들) 중 다수가 나(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람들이 한 일아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셔서 행하게 하신 일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였기에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And because of this I rejoice. Yes, and I will continue to rejoice)고 말한 것입니다(18절). 이렇게 말한 후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자기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20-26절). 즉, 자기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20절). 바울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 자기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 하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핍박을 받을 줄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과 같이 지금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히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 다수도 바울처럼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히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자기의 기쁨을 편지로나마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후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7절에 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나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면서 그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8절에서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고 말하였습니다. 왜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 말했을까요? 바울은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대한 모습을 보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적어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 안에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입술로 전하고 있었던 것처럼 생활로도 담대히 그 복음을 전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27절)고 말하면서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28절).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 28절 하반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하였습니다: “...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당신들을 핍박하는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지만 당신들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당신들이 그 대적자들의 핍박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이겨 나아가는 것은 당신들에게는 구원 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선물로 주셔서 그 핍박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 고난을 당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소식을 듣고 싶다고 편지로나마 말하면서 이렇게 그들의 위로의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 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사 그 핍박과 고난을 견디며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 전 어느 한 사모님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메시지에는 “초긴급 - 오늘(9/21) 새벽 중동 현지 선교사님으로 받은 기도제목이라 합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다음 웹사이트 주소가 있어 그 웹사이트를 열어 보았습니다. 열어보니 그 웹사이트에는 어느 한 자매가 IS(Islamic State - 이라크 극단적 이슬람 무장단체)의 공격을 받고 있는 지역의 선교사 친구들에게 받은 두 개의 이 메일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두 메일 내용을 보니까 지금 IS가 점령한 지역에는 유엔은 모두 이미 철수했지만 그 선교사님들은 그곳에 남아있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곳의 그리스도인 가족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들 피신 가는데 그 그리스도인 가족들이 남아 있는 이유는 그들의 자녀들이 순교를 당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선교사님의 말에 의하면 IS는 아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집집마다 방문하여 어린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강요하는데 지금까지 한 어린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아이들은 IS 사람들에게 머리를 베임 당해서 죽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IS 사람들이 개종을 거부한 아이들을 죽이면서도 그들의 부모들은 죽이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도 그들의 자녀들처럼 순교할 각오로 그 지역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그 그리스도인 가족들을 위해 남아있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 이 메일 내용 중 한 부분은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의 그리스도인 가족들을 위해 남아있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그들 자신의 죽음을 초래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들은 매우 두려워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자녀들이 순교당하는 것을 본 부모들을 위한 사역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 선교사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 시간, 이곳에서 그분의 목소리와 손이 되도록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런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에서 그들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주도록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 죽임을 당한 아이들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그들도 순교를 감당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그 상황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없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반대하며 괴롭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 우리는 우리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어떠한 두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신앙)을 지키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술로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합당하게 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 받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용기로 담대하게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완수하길
기원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란?

(3)

[빌립보서 1장 27-30절]

당신은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시편 119편 71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It was good for me to be afflicted). 어떻게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일까요? 적어도 2가지입니다: (1) 첫째로, 고난의 유익은 나의 잘못됨을 깨우쳐 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현대인의 성경) “주께서 나를 벌하시기 전에는 내가 곧잘 잘못된 길로 갔으나 …]. 우리는 고난이 있기 전까지는 내가 그릇 행하고 있다(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 그릇행할 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때에 우리는 영적 장님과 귀머거리가 되어서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우왕좌왕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마치 잘못된 길로 가는 양을 양치기 소년이 막대기로 쳐서 바른 길로 걷게 하듯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은 고난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시사 비뚤어 가는 우리를 바른 길로 걷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재 길로 갔거늘 … .” 우리는 주님의 좁은 길이 아닌 세상의 넓은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그릇 행함(잘못됨)을 깨우쳐 주십니다. (2) 마지막 둘째로, 고난의 유익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보십시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Before I was afflicted I went astray, but now I obey your word). 여기서 우리는 한 여섯 가지로 어떻게 고난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1)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계명을 믿게 합니다.

시편 119편 66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그릇 행함을 깨우쳐 주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U-turn을 만들게 하므로 주님의 계명만이 참된 길임을 믿게 합니다. 우리는 매일 둘 중의 하나의 길을 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좁은 길 아니면 세상의 넓은 길.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좇던지 아니면 사탄의 또는 세상의 말을 좇던지 둘 중의 하나의 선택을 매일 순간 순간하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인 사랑의 징계로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주님의 길, 주님의 계명을 믿고 그 계명의 길을 걷게 합니다.

(2) 고난은 우리에게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시편 119편 66절을 보십시오: "...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명철(good discernment), 즉 선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무지한 가운데서 그릇된 길을 걷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분별력 상실이란 영적 상태는 확신(conviction)이 아니 혼동(confusion)을 가지고 옵니다. 결국 주님의 계명의 길을 일관성(consistent)있게 걷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길, 혼동의 길을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그 무지함과 선한 분별력의 상실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결국은 선한 영적 분별력과 주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시므로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십니다.

(3)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합니다.

시편 119편 68절을 보십시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고난을 통하여 맛보는 주님의 선하심(시34:8) 중 제일 큰 유익 혹은 축복은 고난을 포함한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롬8:28) 좋으신(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제일 힘들고 괴롭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극심한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밝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극심한 고난 중에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4)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한 자의 거짓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시편 119편 69절을 보십시오: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교만한 자의 거짓이 우리 귀에 너무나 분명하게 잘 들려서 그 교만한 자의 거짓된 길을 걷을 때가 수 없이 많습니다. 세상의 교만한 자들의 거짓, 너무나 진리같이 생각되어 그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릇된 길을 선택하는 혼동된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는 지금 그 거짓된 길을 분주하게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교만한 자들이 보여주는 거짓된 성공과 명예와 물질 만능주의의 길 ... 그러나 고난을 당한 후에는 그 모든 교만한 자의 거짓된 길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고난을 통하여 참된 길, 주님의 길을 밝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이 얼마나 세상의 길의 결국과 다릅니까? 영적 매력을 느끼십니까? 우리의 가는 좁은 길의 climax가 죽음이라는 것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매력을 느끼니까? 나 같은 죄인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매력을 느끼십니까? 이러한 진리는 아무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만한 자의 마음에 이러한 진리를 사수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에 이 진리를 심고 계십니다. 그 심는 과정에서 우리 주님은 고난을 통하여 교만한 자의 거짓을 미워하게 만드시고 계십니다.

(5) 고난은 마음에 살찐 지방(fat)을 제거합니다.

시편 119편 70절을 보십시오: "저희 마음은 살찐 지방 같으나" 요즘 미국에서는 비만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 빼겠다고 다이어트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살찐 지방"을 제거하고자 수술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살찐 지방"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천들도 동참하면서 "마음에 살찐 지방"은 제거하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살찐 지방"이 붙어있으면 얼마나 이런 저런 불편함과 더불어 결국 이런 저런 성인병까지 걸립니까? 만일 우리가 마음의 살찐 지방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최악 된 결과를 낳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최악 된 결과를 가볍게 여기면 우리는 더 큰 죄를 낳을 위험이 많습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에서 고난이란 것은 마음에 살찐 지방을 제거하는데 필수적인 또는 최고의 약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마음에 살찐 지방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6)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가치를 깊이 깨닫게 해 줍니다.

시편 119편 72절을 보십시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나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40년 고난을 통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신8:3)을 알려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 즉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많고 다양한 고난들을 접하면서 결국 그 고난 중에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 수 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때에 그 말씀의 가치란 것은 우리 생명보다 귀한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영원한 말씀과 이 땅에서의 우리 인간의 생명 연수와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은 재물보다 이러한 말씀의 소중함 또는 말씀의 최고의 가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한 마디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은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의 유익은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7절 상반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는 이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는지 이미 두 가지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서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빌1:27). 둘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빌1:28).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란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당신은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9년 7월 즈음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분이 이 메일로 보내신 글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난은 이생을 우리의 안식처로 착각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막아줍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고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거쳐 가는 곳을 더욱더 실감합니다. 그리고 실감하면 실감할수록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인 “하늘에 있는 것”, 즉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을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은 이생을 우리의 안식처로 착각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막아”준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믿음의 근거는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다 믿고 받아들이는 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9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하나의 진리는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을 받아야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 라고 의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할 때 욥기 2장 1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거듭나게(중생)하시사 예수님을 믿게 하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적인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엡1:3-6). 그러면 우리도 오히려 하나님께 축복만 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기 같이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박해하던 폭행자, 즉 “죄인 중에 괴수”(딤후 1:15)에게 주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충성되이 여겨 그에게 직분을 맡기시되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생명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가 당한 고난을 고린도후서 6장 4-5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for I bear on my body the marks of Jesus)고 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많은 고난을 받은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제자로서 동참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는 동일하신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오히려 우리의 고난이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그 때 우리는 고난을 우리에게 유익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순종함을 배워야 합니다. 순종함을 배우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빌1:27)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서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으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승리공동체로 더욱더 세움 받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

[빌립보서 2장 1-4절]

새들백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릭 원렌 목사님은 이러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21세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교회 성장이 아니라, 교회 건강이다. 교인 숫자가 많고 적응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문제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 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다섯 가지를 제안하였습니다: (1) 교회는 친교를 통해 더욱 따스하게 성장할 필요가 있고, (2) 제자직을 통해 더욱 깊어지며, (3) 예배를 통해 더욱 강건해지며, (4) 사역을 통해 더욱 넓어지며, 그리고 (5) 전도를 통해 더욱 크게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의 숫자보다는, 사역과 선교를 위해 동원되는 교인들의 퍼센티지가 그 교회의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보다 정확한 척도’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저는 “건강한 교회”라는 말보다 “교회다운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연 우리 교회다운 교회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과연 교회다운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한 마디로, “교회다운 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42-43절을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를 한 4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에 전혀 힘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3000명, 그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돼 초신자들로서 믿음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전혀 힘썼습니다(행2:42). 교회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열심히 배웁니다. (2) 교회다운 교회는 서로 교제하기에 전혀 힘씁니다. 교제란 한 마디로 함께 나누는 것(공유)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분유)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공유하며 분유하므로 서로 돕습니다. (3) 교회다운 교회는 성찬에 전혀 힘씁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겸손히 믿음으로 받아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4)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각종 기도에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는 120문도의 기도(1:14)를 본받아 3천 명으로 확장되었을 때도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헌신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게 교인들의 수적인 성장은 곧 기도하는 사람들의 증가를 의미했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하는데 헌신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4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make my joy complete)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지를 한 4가지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4가지 교훈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란 제목 아래 우리 교회가 이 4가지 교훈을 겸손히 받아 순종하므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 여기서 “권면”이란 무슨 뜻입니까? 네이버 사전을 보니까 한국어로 “권면”하면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함”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인터넷). 그런데 원어인 헬라어로 “권면”이란 “간곡한 권고, 장려”(exhortation), “격려”(encouragement), “위로”(comfort)란 뜻이 있는데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에 나오는 “권면”이란 단어의 뜻은 ‘신자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며 확고히 하는 목적으로 간곡히 권고(장려)(exhortation)하던지 책망(경고)(admonition)하던지 또는 격려(위로)(encouragement)하는 것을 의미합니다(Zodhiates). 이 단어를 바울이 오늘 본문 외에도 그의 편지에 여러 번 사용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후서 8장 4절입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러면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간절히 구하는 것(urgently plead), 즉 그가 간곡히 권고하는 것(exhort)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을 같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라’는 말씀은 바울이 이미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말한 것처럼 “한 마음”(one mind)을 말합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간곡히 권고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1:27). 그런데 불행하게도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 두 여인들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었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1:27), ‘마음을 같이하십시오’ (2:2)라고 온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4장 2절에 와서는 유오디아와 순두게란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두 여인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간곡히 권면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3절 상반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보면 그들 가운데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던 원인은 바로 허영심(vain conceit)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허영”이 무엇입니까? 네이버 사전을 보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이 겉모습뿐인 영화. 또는 필요 이상의 겉치레”(인터넷). 만일 교회 안에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이 겉모습뿐인 영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레위 사람 고라와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란 사람들이(민16:1) 먼저 당(파)을 짓고(1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이백 오십인”(2절)을 포섭하여 함께 일어나서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거슬렀습니다(2절). 그들이 함께 모여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한 말은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이었습니다(3절). 그들이 모세에게 주장한 것은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였습니다(3절). 그 말을 들은 모세는 먼저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16:4). 그리고 그는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고 면책하였습니다(7절). 그런 후 모세는 고라와 레위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와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어 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고라와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셨고 회중을 대신하여 그들 앞에 서서 섬기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 귀한 직분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작게 여기고 “오히려” 아론과 같이 제사장 직분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고라와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직분을 작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므로 말미암아 주제넘게 생각하여 분수에 지나치는 말을 모세와 아론에게 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모세와 아론만 거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거슬렀던 것입니다(11절). 그 결과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던 고라와 그 모든 우리들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33, 35절). 우리는 분수에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수에 너무 지나친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수에 맞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 일에든지 다름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빌2:3).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직분을 작게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구별하여 섬기게 하신 직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겁게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지 않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간곡히 권면하고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들에게 ‘마음을 같이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간곡히 권면하였는데 여기서 바울이 염두해 두고 있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름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바울이 염두해 두고 있는 마음은 바로 “겸손한 마음”(humility)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은 ‘나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consider others better than myself)(3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도 더 좋고 신앙생활도 더 훌륭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을 나 자신보다 낮게 여길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대답을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But where sin increased, grace increased all the more). 즉,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 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겸손히 고백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고전15:9). 실제로는 바울은 지극히 큰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었습니다(고후11:5; 12:1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고전15:9). 그런 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 그러다가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 죄인 중에 괴수니라”(딤후1:15하).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 지면 질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갈5:13). 그리할 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롬12:10).

우리 모두가 이 바울의 간곡한 권면을 듣고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겸손한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하는 말을 들어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함께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에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새찬송가 212장, 1절).

둘째로,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는 사랑의 위로가 있습니다.

당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절실히 필요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때에 어쩌면 우리는 가까운 가족 식구나 친구들을 의지하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나누며 쏟아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가까이 다가가도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낯선 사람들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시편 69:8). 심지어 우리는 그들에게 이해를 받고 위로를 받기보다 오히려 더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민수기 32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케 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들입니다. 어떻게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나머지 지파 사람들을 낙심시켰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형제들인 다른 10지파들과 함께 요단강 건너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려 가지 않고 목축할 만한 장소(1, 4절)인 야셀 땅과 길르앗 땅에(1절) 거주하길 모세에게 요청하였기 때문입니다(5절).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5절). 그

말을 들은 모세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6절)고 책망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7절)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나머지 10지파 형제들을 낙심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9, 14절). 그들의 조상들은 10명의 가나안 땅 정탐꾼들의 악평(13:32, 14:35, 36)하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켜(신1:28) 그들로 하여금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민14:1). 결국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의 조상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은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만 낙심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의 보고(“악평”)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낙심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이스라엘 전 공동체 책임을 망각하고 자기들만 생각한 이기적인 욕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를 낙심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의 조상들처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켰는데 그 원인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참고: 24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모든 사람들을 낙심케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불신하면 우리는 우리 형제들을 낙심케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란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낙심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낙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위로하는 자가 되어 합시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듯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도 우리 이웃을 위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 사랑의 무슨 위로나 ...”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사랑의 무슨 위로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쓰여 있지만 영어성경에는 “his love”(그 분의 사랑),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간곡히 권면한 것입니다.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빌립보서 1장 30절에서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분의 복음 때문에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29절).

그들 또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28절)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라 고 간곡히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라(having the same love)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은 빌립보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라 는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다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라 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빌립보서 2장 4절을 보십시오: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현대인의 성경)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기 위해선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일보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는 권면의 말씀은 우리의 이웃 사랑이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처럼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구하는 이타적인 사랑을 하라는 뜻입니다. 특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사랑으로 다른 형제, 자매들의 일을 돌보되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지 말고 서로의 이익을 구하므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란 사람과 순두게란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각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신의 일만 돌본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며 행동하고, 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봉사한다면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결코 그러한 교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유명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it is not self-seeking)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사랑”(빌2:2)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라는 것은 곧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을까요? 헨리 나우웬은 그의 책 “돌봄의 영성”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돌봄’(care)이란 말의 어원인 ‘kara’라는 단어는 ‘슬퍼하다, 애통하다, 고난에 동참하다, 고통을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

돌봄이란, 병들고 혼란스럽고 외롭고 고립되고 잊힌 사람들과 함께 부르짖는 것이다. 즉 그들의 고통이 내 마음속에도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돌봄이란, 깨어지고 무력한 사람들의 세상 속에 들어가 그곳에서 연약한 사람들끼리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또한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 있어주되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계속 같이 있어주는 것이다"(나우웬). 이러한 돌봄으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본다면 얼마나 서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무슨 위로”(if any comfort from his love)란 말에 대해서 존 맥아더 목사는 의하면 “위로”(comfort)란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이렇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신자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녀의 귀에 온화한 응원의 말들을 속삭이시던지 부드러운 조언의 말을 하신다’는 것을 묘사한다[The Greek word translated “comfort” portrays the Lord coming close and whispering words of gentle cheer or tender counsel in a believer’s ear(MacArthur)].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위로하려고 할 때 그 형제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의 귀에다가 온화한 응원의 말을 하던지 또는 부드러운 조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사도행전 15장 35-41절 말씀 중심으로 “위로의 사역”이란 제목 아래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위로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한 3가지로 묵상했었습니다. (1) 첫째는, 우리가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만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만남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2) 둘째로, 우리가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선 우리는 서로 다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1차 선교지 재방문 여행에 데리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로 인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운 교훈은 주님을 향한 열심도 잘 조절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통솔되지 못할 정도로 탈선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칼빈). (3) 셋째로, 우리가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선 우리는 교회를 굳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굳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할 때에 교회는 굳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위로의 사역입니다. 이 위로의 사역을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잘 감당할 때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는 성령의 교제가 있습니다.

언젠가 교회 영어사역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그들에게 왜 대학교만 가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그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때 한 형제는 교회를 한번 두 번 안 나오기 시작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형제는 어쩌면 교회 안에 ‘socializing’(사교)가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하면서 또 다른 영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단어가 바로 “fellowship”(친교/친목)이었습니다. 웬지 그 형제는 사교와 친교/친목을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교회 안에서 남용되고 있는 기독교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교제”(fellowship)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남용되는가 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교제”를 무슨 “활동”(activity)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제는 활동이 아니라 “관계”(relationship)입니다(Jerry Bridges).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수직적인 교제)를 통하여 관계를 세워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교제(수평적인 교제)를 통하여 관계를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초대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였다 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교제”란 헬라어 단어인 “코이노니아”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공유). 둘째 의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입니다(분유).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성도간의 교제는 단순히 사람들과 음식을 먹으며 재미있는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닙니다. 무슨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게임을 한다거나 단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서로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거둬나기 이전에도 해왔던 것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나눔 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배운 것을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다른 성도의 어려움을 중보 기도하는 것” “자신의 소유물을 서로 나누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제”란 무엇입니까? 헬라어 원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 “그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제”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성령의 교제”를 가리킵니다. 오순절 날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약 3000명 새로운 성도들이 함께 공유했던 것은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이였습니다. 그러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교제에 헌신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교제는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단지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일치와 단결을 이룬 인본주의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이 중심과 핵심이 되는 성령의 교제 공동체였습니다(유상섭).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 성령의 무슨 교제나 ...”(if any fellowship with the Spirit).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그들에게 ‘성령의 교제’를 하라고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의 목적은 바로 교회의 통일성/일치(unity)입니다. 비록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고(고전12:4), 다양한 직분이 있으며(5절) 또한 다양한 사역이 있지만(6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11절).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되(18절) 특히 하나님께서는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24-25절).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엡4:3).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뜻을 합하”라(united in spirit)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문자적 의미는 ‘한 영혼’으로서 사람들이 같은 의욕과 같은 열정과 같은 야망을 가지고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조화를 이루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It means “one-souled” and describes people who are knit together in harmony, having the same desires, passions and ambitions(MacArthur)]. 우리가 이미 목상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하면서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서 “한 뜻”이란 “의지와 의욕”(will and desire)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에 있어서 같은 의지와 열정으로 주님의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뜻을 합하여” 함께 힘을 합쳐 서로 도우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다 각자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저 각자 자기의 마음과 생각대로, 각자 자기의 뜻대로 주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함께 추구한다면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일을 협력하여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함께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 그레질을 해야 합니다. 영적 그레질이란 무엇입니까? 한옥을 지을 때에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바로 주추를 놓는 일입니다. 여기서 주추란 기둥 밑에

괴는 돌을 의미합니다. 그 주춧돌을 다 놓으면 그 때서야 기둥을 세우는데 바로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일(창방)을 하며 집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울 때에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레질입니다. 여기서 그레질이란 주춧돌은 보통 자연석을 쓰다 보니까 아무리 넓고 평평한 돌을 골랐다고 해도 기둥을 바로 세우기가 어렵기에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려면 주춧돌의 면과 기둥의 면이 잘 맞아 떨어지도록 하는 선 작업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레질입니다. 그레질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춧돌 위에 세워지는 기둥의 면을 주춧돌에 맞게 깎고 갈아 내는 것입니다. 기초가 되는 주춧돌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위에 세워지는 기둥의 면을 깎고 다듬어 주춧돌에 맞추는 것입니다. 기준은 기둥이 아니라 항상 주춧돌입니다. 그리고 이 그레질을 잘하면 잘 할 수록 집은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세워집니다(인터넷). 저는 여기서 영적 그레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적 그레질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반석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마7:24). 다시 말하면, 영적 그레질이란 우리가 그저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21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치 집을 지을 때 지음에 있어서 기준이 기둥이 아니라 주춧돌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 기준은 바로 주님이요 주님의 뜻입니다. 그 말은 마치 주춧돌이 기둥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둥이 주춧돌에 맞춰야 하는 것처럼 주님의 뜻을 우리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써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는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입니다. 그리고 표어 구절은 바로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금년 우리 교회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모(갈망)하며(8절), 그들을 측은히 여기며(렘31: 20) 또한 그들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해야 한다(약4:5)고 우리는 금년 신년 예배 때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의 이웃을 항상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자고 도전을 받았습니다(빌1:9-11). 그리고 우리 모두 새해를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자고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았습니다(5절). 지난 약 11개월을 뒤돌아 볼 때에 당신은 과연 이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다고 생각합니까? 과연 우리는 이웃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면서 그 이웃을 측은히 여겼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웃을 위하여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면서 긍휼이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이웃을 돌보아 주고 또는 도와준 적이 있는지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if any affection and compassion). 여기서 “긍휼”(affection)이란 단어는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장”(affection)이란 동일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로마) 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하고 있는 것처럼(1:8) 그들 또한 서로 그리스도의 긍휼로 서로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2:1). 요한일서 3장 17-18절을 보십시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사모한다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그냥 도와 줄 마음을 닫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달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말로만 ‘참 안됐네요. 불쌍하네요’ 등등 이라고 말하면서 말로만 도와주려고 하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궁핍한 형제를 도와줄 것입니다. 이러한 긍휼이 형제들의 관계에서 더욱 깊어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접하며 또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고린도후서 7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음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이 말씀은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두려움과 떨음으로 그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므로 그들을 향하여 디도의 심정(심장, 사랑, 긍휼)이 더욱 깊어졌다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바울은 디도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그의 영혼이 회복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13절). 즉, 디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위로로 인하여 힘과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디도의 모습을 보고 바울은 위로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이 기뻐”하였습니다(13절). 그러면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비”(compassion)은 무슨 뜻입니까? “긍휼”이란 영어 단어로 “compassion”이며 라틴 어로는 ‘파티’(pati)와 ‘쿰’(cum)에서 파생된 말로서 이 두 단어를 합치며 ‘함께 고통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헨리 나우웬은 그의 책 “긍휼”에서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긍휼이란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고통이 있는

장소로 들어가라고, 깨어진 아픔과 두려움, 혼돈과 고뇌를 함께 나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눅6:36).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자비로우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한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구제하고(마6:2-4, 참고: 약1:27),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용서해야 합니다(마18:35).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인 “공활히 여기심”을 받게 될 것이고(5:7),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고 구제하여(도와)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공활과 자비”(affection and compassion)에 대해서 말하는 목적은 공활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한 목적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여기서 “한 마음을 품어”란 말은 원어인 헬라어로 한 단어인데 그 의미를 영어 성경이 잘 번역했습니다. 영어로는 “intent on one purpose”라고 번역돼 있는데 그 뜻은 ‘한 목적을 의도하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또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Have this attitude in yourselves …). 여기서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세’나 ‘마음의 틀’을 가리킵니다[as having an attitude or frame of mind *think in such a way, purpose, be inclined*(PH 2.5)(Friberg)]. 즉,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을 목적을 삼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라 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일 뿐만 아니라 “공활과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바울은 그 마음으로 온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모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교제를 하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나마 간곡히 권면한 것입니다.

이 간곡한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바울의 권면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활과 자비로운 마음을 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 사모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여 공활과 자비를 베풀므로 주님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의 기쁨을 충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서로 권면을 해야 합니다. 그 권면이란 마음을 같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구하는 이타적인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교제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뜻을 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함께 공유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므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로 세움 받는 승리장로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그리스도의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는 교회를 꿈꾸면서)

“한 마음”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빌립보서 2장2절).

교회 안에서 여성 사역(Women ministry)은 중요합니다. 마치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겼던 것처럼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자매들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녀들의 섬김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의 희생적인 봉사와 헌신적인 기도입니다. 젊은 여인들은 희생적으로 교회를 봉사하며 좀 더 나이가 여성들은 헌신적으로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녀들의 봉사와 기도는 교회를 아름답게 하며 또한 교회에 힘이 됩니다. 그녀들의 어머니와 같은 유순함(살전2:7)과 따뜻한 친절함은 교회를 밝게 해줍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여성 사역에 있어서의 위험 중 하나는 다툼(빌2:3)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다툼이야 남, 여를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며 싸울 수 있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2:3). 유오디아란 자매와 순두게란 자매가(4:2) 서로 다투었는지(2:3) 바울은 그녀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4:2).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임을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즉, 교회의 통일성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다양성 속에서 교회의 통일성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순전치 못한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툼 수 있습니다(1:17). 그리고 그 다툼 속에는 우리의 허영도 있을 수 있습니다(2:3). 우리는 우리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서로 다툼 수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좇아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좇아 난 것이 아니냐”(약4:1)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시기”(2절)로 인하여 우리는 서로 다투고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미워하므로 살인하는 죄까지 범하고 있습니다(약4:2, 요일3:15). 그러기에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적합하고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3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1) 한 마음(혹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2) 같은 사랑을 가지라 그리고 (3) 뜻을 합하라.

첫째로, 우리는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다 각자 자기의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마음들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모두가 각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가고 있다면 우리는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므로(3절) 교회의 통일성은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그 같은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서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해져야 합니다. 즉, 우리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합니다: “...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빌1:9). 그리고 우리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해야 합니다(2:1).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교제해야 합니다(1절).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4절). 그리할 때 우리는 다양성 속에서 교회의 통일성을 지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뜻을 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 각자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막14:36)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고자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생명을 걸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그 주님의 뜻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빌1:27). 우리는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합니다(27절). 이렇게 우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교회의 통일성을 지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했던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과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였습니다(2:19-22). 이 두 협력자는 “뜻을 같이”한 사람들이었습니다(20절). 즉, 바울과 디모데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내는 자 바울과 보냄을 받는 자 디모데는 주님의 뜻을 품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이들은 형제, 자매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했던 자들이었습니다(20절). 이들은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한 마음이 있었습니다(21절).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힘썼던 바울과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의 이러한 모범 된 모습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던(지도자들) 유오디아와 순두게란 여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 통일성을 힘써 지켜 나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의 본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길 원하는,

제임스 목사 나눔

[예수님의 심장(빌1:8)으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의 원인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빌립보서 2장 3절 상반절).

교회 안에서 다툼의 원인 중 하나는 허영심입니다(빌 2:3). 만일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이 겉모습뿐인 영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 안에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광야 교회"입니다(행 7:38).

만일 광야 교회가 장로교회라면 그 교회의 목사님은 모세이고 장로님은 아론입니다. 그리고 광야(장로)교회 당회에는 가르치는 장로인 모세 목사님과 치리하는 장로님인 아론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 고라와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란 사람들이 (이 네 사람들 중에 고라가 광야교회 당회를 반대하는 당파의 지도자인 듯) 당파를 저서(민 16:1) (왜 이리 교회 안에서 몇몇 사람들이 당파를 짓는지) 이스라엘 회중에 유명한 150명 족장들(교회 중진 지도자들?)을 포섭하여(포섭 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영적 분별력이 없었으면 ㅋㅋ) 함께 일어나서 모세 목사님과 아론 장로님을 거슬렀습니다(2절). 그들은 그 두 분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그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3절). 그 말을 들은 모세 목사님은 먼저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4절)(어찌겠습니까, 목사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그리고 나서 모세 목사님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렇게 면책했습니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7절). 어떻게 고라와 그 모든 무리들이 너무 분수에 지나쳤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작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하신 그 귀한 직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9절). 그래서 그들은 아론과 같이 제사장 직분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직분을 작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므로 말미암아 분수에 넘치게 생각하여(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높이는 교만) 분수에 넘치는 행동과 더불어 분수에 지나친 말을 모세 목사님과 아론 장로님에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 마음에 허영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광야 교회에서 당회를

거슬렀던 이유는 그들은 헛된 영광을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모세 목사님과 아론 장로님만을 거슬린 것이 아니라 그 두 분을 광야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도 거슬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1절).

이렇게 광야 교회에 허영심에 가득 차 분수에 지나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큰 도시 교회(특히 큰 교회?) 안에는 허영심에 가득 찬 "고라" 같은 사람이 있어 당파를 짓고 회중 안에서 유명한(?) 또는 힘 있는(?) 사람들을 포섭하여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어이가 없을 정도로 놀랍기까지 합니다. 왜 그는 지금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타나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지금 그는 싸우는 정욕에 이끌려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 다투는 이유는 욕심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가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분수에 지나치게 생각하는 그는 교회 회중 가운데서 높임 받는 것을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이 겉모습뿐인 영화를 얻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심을 내어 얻고자 해도 그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능히 취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는 더욱더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지금 누가 장로교회 안에서 허영심에 가득 차 분수에 지나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여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까? 그는 혹시 교회 장로님이요, 교회 목사가 아닌가요?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장로교회 안에서 큰 문제는 교회 평신도 분들이 아니라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 장로님들은 그리도 목사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도 말을 잘하는 아론 장로님이 말 못한다고 말하는 모세를 못마땅히 여겨 광야교회에서 쫓아내었나요? 목사님이 못마땅해 여길 정도로 그렇게 장로님들이 잘 나셨나요? 왜 목사님은 그리도 장로님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도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 목사님은(출33:11) 이스라엘 회중을 방자케 한 아론 장로님을(32:25)을 치리하여 장로직을 박탈했었나요? 이렇게 장로교회 안에서 당회원들인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다투고 있으니 어떻게 교회가 평화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장로님들. 지금 성도님들이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같은 형제, 자매들인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제발 좀 그만 싸우십시오. 제발 좀 서로 화해하시고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제발 좀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시길 기도합니다(빌2:3. 5)

허영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필리핀으로 의료 선교 떠나시는 승리장로교회 윤석창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11절]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건강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30대 후반부터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관리 차원에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육신의 건강보다 마음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점점 더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한 깨달음을 준 성경 말씀이 바로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떻게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마음의 건강관리를 해야 할까요? 언젠가 “마음을 잘 지켜야”란 제목 아래 이런 짧은 글을 써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그 의심은 불신으로, 불신은 불만족 속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건강보다 마음을 더 잘 지켜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건강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건강할 때 교회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마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마음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건강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빌1:7), “한마음으로 서”있으라(27절), “한 마음을 품”으라(2:2), “마음을 같이하”라(2절)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곡히 권면하였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이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란 제목 아래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한 3가지로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 순종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금년 10월 28일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4년판 국가별 남녀평등 순위에서 한국이 조사대상 142개국 가운데 117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한국의 남녀평등 순위는 지난해 111위에서 6계단 떨어졌다고 합니다. 남녀평등 순위는 고용, 취학 기회, 건강, 정계진출 등에 따른 성별 간 격차를 수치화해 순위를 정한다고 하는데 한국이 남녀평등 순위가 최하위 권에 머문 가운데 아이슬란드가 1위를 차지했고 뒤이어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톱 5에 올랐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선 필리핀이 9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자랑했고, 중국이 87위, 일본이 104위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인터넷). 그러면 한국이 남녀평등 순위가 그리도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불평등의 이유 중 제일 큰 이유는 바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47.8%). 그 다음 이유들은 “남녀의 신체적 차이”(22.5%), 사회 및 인간관계에서의 차이”(10.8%), “가사 및 유아부담의 남녀 차이”(9.3%) 등이라고 합니다(인터넷).

성경에서는 남녀평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보면 성경에서는 여성을 차별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한 예로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은 충분히 교회 안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이상원 교수님에 의하면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바울의 “잠잠하라”는 명령은 여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는 말씀 바로 앞 구절에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33절)라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모든 성도들에게 “잠잠하라”고 명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는 고린도교회 안에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너도 나도 다 방언을 하니 교회에 너무 무질서해졌기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공 예배에서는 방언을 자제하라는 뜻에서 모든 교인들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특히 여자 성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여자 성도들을 특별히 지칭하여 잠잠하라는 명령을 한 것입니다. 즉, 방언을 하려거든 조용히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는 곳에서 하라는 말이지 결코 여자가 교회 안에서 말하거나 동료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못하게 하는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인터넷). 성경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그 성에 맞는 다른 개성과 특징과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공동으로 협력하여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룰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한 예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소명을 주셨는데, 이 소명은 남녀 혼자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공급하는 정자와 여자가 공급하는 난자가 만나야 아기를 낳을 수 있잖습니까. 아기를 낳아야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인터넷).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즉,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본질에서는 동일하십니다[서로 동등한 세 위격(persons)].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6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몇 인격들이 계신가?”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세 인격들,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계시는데, 이 셋은 본체에 있어서 동일하시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신,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동등하신 한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역할이 다른 세 위격이시며 하나의 존재(being)이십니다[신격의 하나 됨(unity)]. 그러면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이 다른가요? 그 좋은 예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를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적용하십니다(참고: 롬8:1-17; 고후13:14; 엡1:3-14; 살후2:13-14, 뵤전1:2) (패커).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삼위의 협동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을 믿으며 또한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참고: 사도신경). 그런데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영광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 동등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박윤선). 그러면 여기서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5절에서 말씀한 후 6절에서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말하였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3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 오늘 본문 5-6절에 비취서 생각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다른 사람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어서 너희들도 다 동등하지만 서로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말고 다른 형제, 자매를 자신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남자이던 여자이던 한국인이던, 미국인이던 남미 사람들이던 사장님이던 종업원이던 부자이던 가난하든 이 모든 것을 떠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롬10:12, 골3:11).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약2:1). 만일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9절). 그러나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을 분별해야 합니까?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레10:10).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서로 나뉘고 분리하며 세상과는 하나가 되어 사는 죄악 된 삶을 끊어 버리고 형제, 자매들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것을 잘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자신을 비워 종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혹시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 이야기 아십니까? 왕자와 거지가 만나서 서로 옷을 바꿔 입고 왕자가 거지생활을 하다가 왕자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거지는 왕자가 되어 정치를 조금씩 이해해가는 상황 이었습니다. 왕자는 처음 거지생활에 익숙지 못하고 여러 사람에게 "나는 왕자다"하면서 왕자라는 것을 밝히려 하지만 오히려 미친놈 취급을 받아 여러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때 거지는 점점 왕자의 생활에 익숙해지고, 나라 일을 조금씩 해나갔지만 거지역시 "나는 한낱 거지에 불과합니다"라고 사실을 밝혔지만 사람들은 "왕자님께서서 미치셨다!" 라고 생각하고 더 잘 모시려고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야기 끝에 왕자와 거지는 만나게 되었고 서로 만나서 왕자는 다시 왕자 아니 왕으로 되었습니다.

왕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끝까지 버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왕이 되었습니다(인터넷). 이 동화이야기가 생각난 이유는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being in very nature God)신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taking the very nature of a servant)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왕자가 거지 생활을 했다는 것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종이 되셨다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겠지만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기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but emptied Himself, taking the form of a bond-servant, and being made in the likeness of men. (NASB)].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켜 “성육신”(incarnation)이라고 말합니다. 성육신이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창조 이전부터 계신 분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요 1:1).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이 말씀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요 1:3). 이 말씀은 이제 육신이 되어서 사람들 사이에 거하셨는데, 이 말씀은 참 빛이며 모든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육신이 되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사건이 곧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성육신의 개념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 곧 자기를 비워 모든 조건에서 인간과 같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성육신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지음을 받은 존재 가운데 하나가 되었음을 뜻합니다(인터넷).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made himself nothing/emptied himself]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본질 등 하나님의 “정체”를 비우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내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신성을 내어 놓으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늘 영광을 떠나셨다는 것입니다(박윤선). 이렇게 하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being in very nature God)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사 “종의 형체”(taking the very nature of a servant)를 가지셨다(빌2:6-7)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님이시지만, 모든 것의 종이 되는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말입니다(박윤선).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종이 되는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사실이요? 왜 예수님께서 종의 되는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것일까요? 마태복음 20장 27-28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종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섬기려 하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대속 물”이란 헬라어의 의미는 노예나 포로를 해방할 때 지급하는 몸값(속적)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께서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우리를 죄의 노예(종)에서 해방(자유)시키시고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를 섬기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막9:35). 지금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이웃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2007년 우리 승리장로교회의 표어는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섬기는 교회로서 “겸손히 교회를, 즐거운 마음으로 가정을, 자발적으로 이웃을” 섬기자고 도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 첫째 주간에 특별새벽기도회 때 하루하루 섬김에 대한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주간 셋째 날 에베소서 6장 5-7절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새벽기도회 후 교회 집사님 한분이 이런 글을 써서 이 메일로 보내셨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 가정과 사회, 직장 또 교회에서 ---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섬겨야 합니까?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순종하지 못함은 내 뜻과 내주장이 너무 뚜렷하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상사에게, 학교 선생님들에게, 부모님께, 교회의 목사님과 어른들께 순종하지 못함은 우리에게 종의 의식, 노예의식의 결여로 인한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에 대한 순종의 훈련이 부족함 때문이기도 합니다”(김창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자기나 아볼로나 “사역자”(servants)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역자”란 헬라어 단어는 “diakonoi”으로서 우리가 익히 들어 아는 “deacon”, 즉 “집사”란 말이 그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섬기는 사람들’라는 뜻입니다. 그런 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자기와 자기의 동역자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일꾼”(servants of Christ)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영어로는 “사역자”나 “일꾼”이나 다 “servants”, 즉 ‘섬기는 사람들’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나 원어 헬라어를 보면 “사역자”란 ‘섬기는 사람들’이란 뜻이지만 “일꾼”이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일꾼”이란 헬라어 단어 “huperetes”는 문자적 의미는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under rowers)을 뜻합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에 의하면 그 당시 배 밑에서 노 젓는 노예들은 제일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또한 제일 경멸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단어가 나중에 와서는 모든 권위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을 가리키게 된 것입니다(MacArthur). 결국 바울은 자기나 아볼로나 베드로를 사랑하는 육신에 속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자기나 자기의 동역자들은 그리스도의 “하인”(또는 “하급 노예”)(박윤선)로서 주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주님의 노예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들로서 주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노예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에게 “노예근성”이 필요하다고 말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웬지 우리는 노예근성이나 노예 의식보다 ‘주인 근성’과 ‘주인 의식’이 더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섬김을 받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섬김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형제, 자매들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녀를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한 3년 전에 사랑하는 딸 예리가 귀걸이를 하기 전에 제가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를 얘기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법규가 나오는데 그 법규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년 동안 섬기다가 7년째에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2절). 그런데 만일 그 종이 “내가 상전과 내 처자[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었다면 그녀는 상전에게 속하기에 그와 함께 자유인이 될 수 없기에(4절)]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5절)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뿐만 아니라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6절)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예리에게 말해주었는데 감사하게도 그녀는 그 성경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딸아이에게 ‘만일 네가 귀걸이를 꼭 하고 싶다면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 노예처럼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 종이 되겠다는 헌신을 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빠는 네가 귀걸이 하는 것을 허락하마’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 이야기를 생각할 때 그 말씀에 근거하여 만든 미국 복음성가 “Pierce My Ears”(내 귀를 뚫으소서)라는 찬양이 생각납니다. 그 가사를 제가 한국어로 번역해 보았습니다: (1절) 오 주님 나의 하나님/ 이 날 저를 당신의 문으로 데리고 가소서/ 저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는 머무르고자 여기에 있습니다, (2절) 당신은 저를 위하여 값을 치루셨습니다/ 당신의 피로 저를 구속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만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주님 저는 머무르고자 여기에 있습니다, (후렴)

그러므로 오 주님 나의 하나님 저의 귀를 뚫으소서/ 이 날 저를 당신의 문으로 데리고 가소서/ 이제 저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 주님 저는 머무르고자 여기에 있습니다.’ 언젠가 새벽기도회 때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제 마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히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었던 제가 구원을 받아 죄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종이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제 칠년 째 자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하기를 거부하고 사랑하는 상전을 영영히 섬기고자 송곳으로 귀를 뚫은 것처럼 저 또한 제가 사랑하는 주님과 제 아내와 자녀들을 위하여 자유하기를 거부하고 영영히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마음의 귀를 뚫었습니다. 온전히 제 마음을 받쳐 영영히 주님만을 섬기고 싶은 마음을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서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주님의 종으로서 노예 의식(slave consciousness)보다 상전 의식(master consciousness)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해주시면서 저의 죄를 자백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상전 의식을 버리고 노예 의식을 가지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자신을 낮춰서 죽기까지 주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니다(마15:8-9).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습니다(23:3).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임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5-7절). 그래서 그들은 구제할 때에도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6:2).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악 된 본능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고자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돈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눅16:13). 이렇게 그들이 돈을 섬기는 이유는 “돈이 힘이다”(Money is power)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돈으로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한 것처럼(행 8:20) 심지어 그들은 교회 안에서는 돈으로 직분을 사서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으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누가복음 1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러한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교만한 사람의 높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결코 만족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는 허영심은 결코 만족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영광을 탐내서는 아니 됩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탐내지 않고 영광을 버리는 행동 원리는 멀리서부터 교만을 예방한다”(박윤선).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빌2:5).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자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6-7절). 그리고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사 자기를 낮추시고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9-11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겸손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고, 모든 무릎이 그에게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힘든 시기 가운데서 가르쳐 주셨던 교훈 중 하나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보다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높임을 받기 위해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입니다(참고: 빌 2:5-11). 그러 면에서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위기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비워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낮아지되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히 죽기까지 주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할 마음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의 마음은 자신을 비워 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자신을 낮춰서 죽기까지 주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겸손, 겸손 또 겸손한 마음을 추구하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18절]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에게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현대인의 성경)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10절)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행15:11)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엡2:8). 성경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현대인의 성경)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그곳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에도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제목 아래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1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work out your salvation)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입니다.

제가 이 말씀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이유는 좀 분명히 해야 할게 있기 때문입니다.

(1) 무엇을 분명히 해야 하는가 하면 첫째로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할 때에 행함(선행)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2장 8-9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 결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2-24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을 때에는 결코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2)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구원이란 과거, 현재, 미래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의 3시기 중 주로 과거와 미래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과거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과거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구절이 바로 “구원이 확신” 구절인 요한일서 5장 12-13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구원)을 얻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앞으로 장차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미래입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구절들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과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행16:31),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롬10:9). 이 두 말씀들을 보면 주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 장차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래형 구원을 우리는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재림)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사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주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과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현재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현재 구원을 이루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였는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구원은 사람들이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럴습니까? 예를 들어 요나 2장 9절 하반절을 보면 성경은 “...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현대인의 성경) “구원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Salvation is from the Lord)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7장 10절 보면 성경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주시는) 것이지 죄인 된 우리 인간이 노력(선행)을 하므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명백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시(주시)는 것인데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힘(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뜻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겠습니까. 분명히 구원은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인데 말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우리가 이미 묵상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시작하신 구원의 일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인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루신다는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과연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약성경에서 “구원”이란 말은 히브리어 “예수아”란

말로서 이는 죄와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구출해 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구원”이란 헬라어의 “소테리아”란 말인데, 이는 죄로 말미암아 오는 형벌(죄의 형벌)과 죄의 권세와 죄 된 생활에서부터 구출하여 영원한 천국백성으로 살게 한다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인터넷). 저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생각할 때 로마서 5장 6, 8,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1) 로마서 5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helpless)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말씀에 비취볼 때 구원이란 전적으로 무기력(helpless)하고 경건하지 않는(ungodly)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사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건져내시사 우리를 경건한 자(godly)로 삼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비취볼 때 구원이란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므로 우리를 의롭다하신 것입니다(9절). 이 말은 구원이란 헬라어 “구원”이란 단어의 의미처럼 우리를 죄의 형벌과 죄의 권세와 죄 된 생활에서부터 구출하셨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우리를 의롭다하셨다는 사실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3)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에 비취볼 때 구원이란 하나님과 원수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이 현재형 “구원”은 바로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해 본대로 성경에서 구원을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성경구절들을 볼 때 구원이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재림)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사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도 요한일서 5장 12-13절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영생(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형 구원이나 미래형 구원이나 우리가 “구원”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해할 때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일관성 있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이루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당신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답게 사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요약 적용 한다면,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천국 백성답게 사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들답게, 즉 천국 백성답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의 계명인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2장 37-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영생을 얻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며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우리로 하여금 가능케 하십니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욕도 주시고, 또 그것을 행할 힘도 주신다는 뜻입니다”(박윤선).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욕과 힘을 주십니까?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맺으시사(갈5:22-23)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갈5:16) 오히려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17절) 육체의 일을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19절). 그 육체의 일 중에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20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 “유오디아”와 “순두게”란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하면서(빌4:2)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2:2-3)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15절을 보면 바울은 “어떤 이들은” 욕게 갇혀 있는 바울을 더욱 괴롭힐 생각으로 “투기(시기)와 분쟁(다툼)으로”(17절)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with fear and trembling)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속죄하여 주신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박윤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 더욱더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시2:11)과 겸손한 마음으로(a humble frame of mind)(Pfeiffer)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답에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로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한 3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그들에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4절을 보십시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현대인의 성경) “무슨 일이든지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지 마십시오”](Do all things without grumbling or disputing). 헨리 나우웬은 그의 책 “삶의 영성”에서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원망은 우리를 실패나 실망에 집착하게 하며, 삶에 찾아오는 상실에 대해 불평하게 한다”(나우웬).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원망을 했을 때 제가 실패나 실망에 집착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헨리 나우웬의 말처럼 삶에 찾아오는 상실에 대해 제가 불평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언젠가 묵상했던 신명기 1장 27절 말씀을 찾아 보았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저는 이 말씀 중심으로 “원망의 죄”란 제목 아래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었는데 그 묵상한 글을 다시금 읽어 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원망하는가 하면 그 이유는 우리의 “불신앙”이 그 원인입니다. 신명기 1장 32절을 보면 성경은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앙이 바로 원망의 쓴 뿌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려운 현실을 접하면 “왜?”라는 질문 속에서 원망하면서 우리의 피해의식을 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안에 원망(불평)과 시비(다툼)가 있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실제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고 말한 것을 보면 그 교회 안에는 불평과 다툼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툼의 불평과 다툼의 원인은 바로 허영심이었습니다(3절). 즉, 교회 안에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이 겉모습뿐인 영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는 불평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 가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무슨 일이든지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한 것입니다(14절).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 말한 것인가요? 왜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한 것인가요? 그 이유를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현대인의 성경) “그러면 빼돌어지고 잘못된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이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 수 있을 것이며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그러진(빼돌어진)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르고 곧은길로 가지 않고 구부러진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구부러진 길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부인(거부)하고 거짓을 진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마음도 빼돌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빼돌어져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 다 빼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어그러진 세상에서 과연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빌2:15).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일을 원망(불평)과 시비(다툼)이 없이 해야 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6절을 보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현대인의 성경) “그렇게 되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되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일이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란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밝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밝혀”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의하다/권하다’(offering something for others to take)입니다(MacArthur). 동시에 이 단어에는 “견고히 붙잡다”(hold firmly)란 뜻도 포함돼 있습니다(Walvoord).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견고히 붙잡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말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 기독교신자는 그 존재와 행위로써 복음이 참으로 생명과 능력을 주는 말씀인 것을 실증해야 된다. ...”(박윤선).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존재와 행위로써 복음이 참으로 생명과 능력을 주는 말씀인 것을 실제로 증명해 보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입니다(빌2:2-4).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일을 원망(불평)과 시비(다툼)이 없이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다툼이 없이 할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성경은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바울은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왜 오늘 본문 2장 16절에 와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한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저는 그 이유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을 하고 있었지만 그 복음에 견고히 서서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사는데 부족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즉, 그들은 한 마음을 품어 한 사랑으로 겸손히 원망과 시비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빌립보 교회의 결점(단점)은 복음 전파 사역에 결코 도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일을 원망과 다툼이 없이 하라고 권면한 후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6절 하반 절을 보십시오: “... 나의 달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현대인의 성경) “...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일이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바울은 자기의 노력하고 수고한 일이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재림)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그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살전2:19):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현대인의 성경)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가 우리의 희망과 기쁨과 자랑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자기의 소망과 기쁨, 그리고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말하였는데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현대인의 성경)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 굳게 서십시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로써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 성도들이 자기의 자랑의 면류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새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란 찬송가 가사가 생각납니다: (1절)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취라, (2절)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3절)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4절)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후렴>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므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인 복음의 빛을 비추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기뻐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7-18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 생명의 피를 제사 술처럼 따라 붓는다고 해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바울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비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던 이 순간에도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지만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고(1:28) 그 대적 자들로 인하여 바울은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29절)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받으신 고난에 남은 부분을 내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현대인의 성경). 또한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4절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현대인의 성경) “나는 여러분을 크게 신뢰하고 자랑하며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갖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그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봉사) 위에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자기는 기뻐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전제”(a drink offering)란 “재물 위에 붓는 술”로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의 피를 제물로 부은바 될지라도 자기는 기뻐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박운선). 그 말은 한 마디로, 바울은 자기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기뻐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길 원했습니다(17절).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18절, 현대인의 성경)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술로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실제로 증명해 보이는 가운데 대적 자들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다가 심지어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구원을 함께 이루길 기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길 기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자

[빌립보서 2장 19-24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곤 하는데 과연 주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한 성경 구절 말씀들 중 한 두 군데 중심으로 주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 (1)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4장 21-23절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주님의 일을 한 4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a) 주님의 일이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21절).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과 복음 전파자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b) 주님의 일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21절).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대계명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으라”라는 마태복음 28장 19-20절을 순종하였습니다. (c) 주님의 일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행14:22c-23). 더베에서의 성공적인 사역을 마친 후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방문했던 선교지를 재방문하면서 제자들의 신앙을 굳게 하였습니다. (d) 주님의 일은 교회에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행14:23).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지를 재방문하여서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선택하여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와 금식으로 이 장로들을 주님께 위탁하였습니다.

(2) 두 번째 성경 구절은 바로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 해야 할 일인 예수님을 믿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므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빌1:25).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9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 가면서 디모데를 속히 그들에게 보내기를 주님 안에서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앎으로 안위(위로)를 받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19절). 다시 말하면,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므로 그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위로를 얻기를 원했습니다(19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가 누구(어떠한 자)인지를 편지로나마 미리 소개하였습니다. 그 소개가운데 저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현대인의 성경) “모두 자기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들 자기 일은 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은 구하지 않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그의 가르침과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묵상한 빌립보서 2장 4절을 보십시오: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주님의 일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2장 21절에 와서는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디모데만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구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만)을 구하고” 있다 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디모데를 그들에게 속히 보내기를 소망한다고 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20-21절).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자”란 제목 아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구하였던 디모데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바라는 우리 모두가 디모데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자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한 2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자는 교회 형제, 자매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현대인의 성경)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싶었던 디모데란 인물은 교회를 향하여 자기와 “뜻을 같이”한 사람(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참고: 2절). 이 소개가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이 소개가 저에게 흥미로웠던 이유는 지금 바울의 편지를 받을 빌립보 교회 안에는 성도들은 뜻을 같이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2절). 특히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두 여인들인 “유오디아”와 “순두게”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4:2-3).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 가면서 그들의 사정을 앎으로 안위(위로)를 얻고자 자기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디모데를 속히 그들에게 보내기를 주님 안에서 바란다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기 자신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유오디아와 순두게에게 바울은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메시지란 뜻을 같이 하지 못하고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었던 유오디아나 순두게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2:2)고 말한 한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자기 자신과 디모데의 본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과 디모데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뜻을 같이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대답을 우리가 이미 묵상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찾았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품고 있었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마음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8절). 바울과 디모데는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그들은 자기들을 보내신 주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었고 또한 뜻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야 말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라고 믿었기에 그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한 것입니다(20절). 여기서 “진실히”(genuinely)란 말은 “아들에게 대한 아버지의 성실함을 의미”합니다(박윤선). 즉, 마치 아버지가 아들의 사정을 성실히 생각하듯이 바울은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성실히 생각할 자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디모데를 그들에게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 대답을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참 아들”(딤후 1:2), “사랑하는 아들”(딤후 1:2),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고전 4:17). 이 표현들을 보면 디모데는 바울의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며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었습니다. 즉,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영적 아버지와 영적 아들의 관계였으며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사랑하는 신실한 영적 아들 디모데가 자기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자임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빌 2:20). 그는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속히 보내기를 주님 안에서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형편 되는 대로(23절, 현대인의 성경)] 디모데를 “곧”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기를 바랐습니다(23절). 그 이유는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 그들의 사정을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19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정을 알고 싶은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특히 부모로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사정을 빨리 알고 싶은 게 우리 부모의 심정이 아닌가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듯이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고 있었기에 속히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사정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디모데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알게 되므로 위로(be encouraged)를 받길 원했습니다(19절). 비슷한 경우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도 나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보냈습니다(살전 3:6).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3절) 그리고 시험하는 자가 그들을 시험하려 그의 동역자의 수고가 헛되게 하지 않고자 참다못하여[“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현대인의 성경)](1, 5절) 그들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5절). 그리고 바울의 참 신실한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충성되어 사명을 잘 완수하고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6절).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항상 바울과 그의 동역자를 잘 생각하여 그들을 간절히 보고자 한다고 말해주고(6절) 그들의 믿음을 말해주므로 그는 바울을 위로하였습니다(7절). 디모데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은 바울의 반응을 들어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될 모든 기쁨에 대하여 그 보답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살전3:8-9). 이렇게 보냄을 받은 디모데는 자신을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바울의 마음을 위로하며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며 기쁘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알았을 때 마음의 위로를 받으며 기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일에 관심 있는)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사정을 알아가야 합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까지 하면서 그들의 사정을 진실로 알고 싶어 했지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보면 바울은 자기의 사정(엡6:21, 골4:7)뿐만 아니라 자기의 동역자들의 사정(엡6:22, 골4:8) 또한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교회와의 관계는 서로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려 서로에게 알리며 또한 서로의 사정을 알아가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바울이나 디모데처럼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되 우리 교회의 사정과 교회 식구들의 사정을 알아가므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자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22절을 보십시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이 디모데의 훌륭한 인품을 알고 있겠지만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기쁘

소식을 전하는 일에 나를 도와 수고하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를 주님 안에서 바란다고 말하면서(19절)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디모데는 자기와 함께 뜻을 같이하여(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자’(진심으로 염려해 주는 자)입니다(20절). 그러면서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두 번째 소개는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자’(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자)입니다(21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현대인의 성경)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 걱정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도 나처럼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고전16:10). 그런 후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22절에서 디모데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세 번째로 이렇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디모데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자입니다’(22절). 오늘 본문 22절에서 개역개정은 “디모데의 연단”이라고 번역하였고 현대인의 성경은 “디모데의 훌륭한 인품”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연단” 또는 “훌륭한 인품”이란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시험을 통하여 인정을 받다’[“approval gained through testing”(Pfeiffer)]라는 의미입니다. 디모데는 시험 또는 연단을 통하여 그의 인품이 훌륭하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인정받되 어쩌면 디모데는 “환난의 많은 시련”(고후8:2)을 겪고 믿음으로 인내하여(롬5:4) 그 시련을 통과하므로 그 인품이 단련되었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훌륭한 인품을 가진 자로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고 인정하는 디모데의 훌륭한 인품은 바로 ‘진실함’(genuine)이었습니다(20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품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실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인품의 소유자를 친구로 둘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생각할 때 저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함께 섬기는 일꾼들 우리 모두가 바울이나 디모데처럼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되 특히 진실한 사람들로 세움을 받는다면 이 얼마나 행복한 교회요 행복한 섬김과 사역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 자신부터 하나님과 성도님들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에게 성실하시듯이 저 또한 제 육신의 가족 식구들과 교회 식구들에게 성실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육신의 가족 식구들이나 교회 식구들에게 성실하지 못하고 불성실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양심에 찔림 속에서 제 자신으로 인하여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마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새번역)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적혀 있는 성경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2절에 성경은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 받는 자니.” 사랑하는 믿음의 참 아들이요 신실한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 칭찬을 받을 정도로 훌륭한 인품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한 자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나를 도와 수고하였습니다”]) (현대인의 성경)고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2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선 디모데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로서(행16:1) 어릴 때부터 경건한 분위기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으므로 헬라적인 영향을 받아 다신사상에 빠져들 수도 있었으나 디모데는 그 이름(“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겼습니다. 그가 그리할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입니다(딤후1:5).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디모데는 모범적인 젊은이가 되어 갔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봉사하는 청년 디모데가 그의 고향 루스드라에서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평온한 가운데 기독교 교육을 받던 디모데의 인생은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의 계기를 맞았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중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디모데는 바울을 영적 아버지로 여기고 그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제자 훈련을 받게 됩니다’(다국어 성경). 그리고 디모데는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수고하였다’는 말은 ‘종노릇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즉, 디모데는 바울에게 대하여 아버지처럼 사랑하며 순종하는 태도로 복음을 위하여 수종들었다는 말입니다(박윤선). 즉,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그의 영적 아버지인 바울에게 순종하여 수종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디모데를 가리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서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는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라고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는 바울과 실루아노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전파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1절에서 디모데를 가리켜 “나의 동역 자 디모데”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의 동역자란 말입니다.

한번 이 바울의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아 읽는 중 그가 소개하고 있는 디모데에 대해서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바울이 디모데를 “이는 뜻을 같이하여(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이다(빌2:20),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이다(21절)라고 소개하였을 때 그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그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신뢰할 만한 주님의 종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22절에 와서 “여러분이 디모데의 훌륭한 인품을 알고 있겠지만”(현대인의 성경)이라고 말하면서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디모데에게 동질감(sense of kinship)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때문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현대인의 성경) “그것은 여러분이 처음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협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의 복음을 위한 일에 첫날부터 참여(협력)하고 있었고 디모데 또한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고 하니 어떻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동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나 디모데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다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자들로서(21절)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직접적이던 간접적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이 되어 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견고히 붙잡고 그 최고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2:16).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을 주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요 또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번 달 초(2월 3일)에 저희 교회에서 조금이나마 선교 후원하는 몽골 참사랑 교회(와 영원한 사랑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특수 목사님이 저에게 사진들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특수 목사님을 처음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저의 멘토 목사님과 2007년도 처음으로 몽골에 가서 장로교 신학교 수련회 때 세미나를 인도하다가 만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때 제 기억으로는 한 60여명 현지인 몽골 신학생들이 수련회에 참석했던 것 같은데 특수 목사님은 좀 독특하게 여겨졌던 이유는 몽골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에는 그렇게 특수 목사님을 알고 있었는데 한 4년 후에 제가 두 번째로 몽골 가서 다시금 장로회 신학교 수련회 때 세미나를 인도했을 때 좀 독특하게 여겨졌던 것은 특수 목사님이 그 해 신학교를 졸업하면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차로 한 이틀(한 930마일)을 운전해서 가야 하는 오브스라는 지역에 있는 영원한 사랑 교회에서 3년을 헌신해서 봉사하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때 수련회를 마치고 신학교 졸업식에서 참석했었는데 특수 목사님이 졸업식을 마친 후 가족 식구들 등 하고 함께 사진 찍은 모습도 아직도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특수 목사님과 두 번째 만남을 가진 후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왠지 제 마음에 그렇게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머나먼 지역에서 3년 헌신해서 봉사하겠다는 특수 목사님이 마음에 자꾸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도울 수 없을까 하여 그저 제 개인적으로 조금씩 선교후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나마 영원한 사랑 교회를 섬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요. 그러다가 작년 중순부터인가 특수 목사님이 영원한 사랑 교회에서 3년 섬김을 마치고 자신의 제자 전도사님을 후임으로 두고 몽골 수도로 와서 참사랑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 후로 부터는 저희 교회에서 그 교회를 지금 조금씩 후원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 식사 시간에 벽에 붙어 있는 게시판에 제가 특수 목사님의 사진과 영원한 사랑 교회와 참사랑 교회 사진들을 몇 장 붙여 놓았으니 보시고 기억하며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게시판에 제가 붙여 놓은 필리핀 해리 전도사와 라이어 전도사의 사진들을 보시고 그 귀한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승리장로교회의 비전은 일꾼을 세우는 것(raise leaders)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주님께서 주님의 일꾼들을 세우시사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 하는 가운데 제가 참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신경 쓰고 있는 것은 그 주님의 일꾼들이 참으로 신뢰할 만한 진실한 사람들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달 멕시코 선교 팀과 합류해서 장로님과 함께 간 이유는 고메즈 목사님이 저에게 말한 Victor이라는 멕시코 목사님을 직접 만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분에 대해서는 고메즈 목사님에게 말을 여러 번 들었기에 어떠한 분인지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그 날 우리 교회 멕시코 선교 팀과 티화나 뿐만 아니라 멕시코 Victor 목사님과 사모님도 함께 다 엔세나다까지 가서 가브리엘 집과 노숙자 사역 등을 돌아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저희 교회에 귀한 주님의 일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며 기쁩니다. 바라는 우리 승리장로교회 모든 식구들이 진실히 그들의 사정들을 조금씩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더욱더 갖고 진실히 그들을 생각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자로 더욱더 세움 받기를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영혼을 진실히 생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술과 삶으로 전하기를 기원하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

[빌립보서 2장 25-30절]

토니 캠펠로(Tony Campolo)는 노인문제를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인터넷). 95세 이상이 된 노인 5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들에게 이제 다시 삶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아가고 싶습니까?>라는 설문이었습니다. 3가지씩 답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3가지 답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1) 날마다 반성하는 삶을 살겠다였습니다(They would reflect more). 그동안 정신없이 살아서 왜 사는 지도 생각 못하고 살았다. 좀 더 정신 차려 살겠다. (2) 너무 비겁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They would risk more). 불의와 타협하며 살고 남의 눈치나 보고 살았다. 이제부터는 좀 더 용감하게 살고 싶다. (3) 오늘날과 같은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고 싶다(They would do more things that would live on after they were dead). 죽음을 생각하고 살고 싶다. 죽은 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후회스럽다. 내가 생각 없이 산 것이 후회스럽다고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다(인터넷).

우리는 이미 빌립보서 2장 19-24절 말씀 중심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속히 보내기를 원했던 그의 영적 아들이요 믿음의 신실한 아들인 디모데에 대해서 묵상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에 앞서 그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 소개를 한 5가지로 다시금 요약해 보았습니다: (1)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뜻을 같이한 자입니다(20절). 다시 말하면, 영적 아들 디모데는 그의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자였습니다(20절). 다시 말하면, 디모데는 그들을 진심으로 염려해 주는 자였다는 말입니다. (3)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자였습니다(21절). 다시 말하면,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바울과 같이 주님의 일을 힘쓰는 자였습니다(고전16:10). (4) 디모데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자였습니다(빌2:22). 그는 시험 또는 연단을 통하여 그의 인품이

훌륭하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인정을 받은 훌륭한 인품은 바로 “진실함”이었습니다 (20절). (5)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였습니다(22절). 수고하되 디모데는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자신의 영적 아버지인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에 “속히” 보내기를 주님 안에서 바랬던 이유는 그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앎으로 자신이 안위(위로)를 받기 원했기 때문입니다(19절).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일이 어떻게 될지를 (자기 형편을) 보아서 “곧”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기를 바란다고 편지를 쓰면서(23절) 자기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말하였습니다(24절). 그렇게 말한 후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25-30절에서 또 다른 인물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에바브로디도”란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란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한 3가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 된 자요 빌립보 교회의 사자(messenger)로서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 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현대인의 성경) “나는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이며 나의 필수품을 공급해 주라고 여러분이 보낸 사자입니다”]. 에바브로디도란 인물은 바울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 된 자”이면서도 빌립보 교회의 사자(messenger)로서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였습니다. 여기서 “사자”란 단어는 원어 헬라어로 “ἀπόστολος”로 우리 한국어로 말한다면 “사도”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자”나 “사도”란 단어의 의미는 바로 ‘보냄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란 주님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들입니다. 곧, 예수님의 열두 사도들은 가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온 족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삼으라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들입니다(마 28:19-20). 그러면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 사자”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자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자였습니다. 한 마디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사자”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사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사자인 빌립보 교회의 교인인 에바브로디도 바울에게 보냈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목적은 바로 바울의 쓸 것을 돕기(공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낸 목적은 그로 하여금 바울의 쓸 것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25절하) “...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서 “돕는 자”(minister)란 원어 헬라어 단어(λειτουργὸν)의 의미는 ‘개인적으로 서비스 하는 사람’(one engaged in personal service), ‘보좌관’(aide), “조수/보조원”(assistant)란 뜻입니다(Arndt). 즉, 빌립보 교회의 메시저(사자)인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조수/보조원, 보좌관과 같은 사람으로서 바울을 섬기는 자였다는 말입니다. 저는 빌립보 교회 성도인 에바브로디도가 섬기는 자였다는 말을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는 다른 어느 교회보다 바울을 잘 섬겼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빌립보서 2장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믿음으로 자기를 섬긴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재물로 인하여 바울은 만일 자기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즉 순교할지라도, 그는 기뻐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주님 안에서 교제입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는 섬기며 섬김을 받는 아름다운 교제였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쓸 것을 어떻게 도왔습니까? 성경 빌립보서 4장 15-16절을 보십시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의 복음의 시초에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의 복음의 사역에 참여하여(1:5) 바울의 쓸 것을 도와줬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한 두 차례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 주었습니다. 보내주되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에게 쓸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는 자기들의 사자인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풍족하”다 고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자기에게 보내준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의 사자인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준비한 바울에게 필요한 쓸 것들을 가지고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와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 그에게 가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선물을 전달한 후에도 그와 함께 있으면서 동역하였습니다(2:25). 다시 말하면, 그는 그냥 바울에게 쓸 것만 전달하고 다시 빌립보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있으면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습니다(25절). 즉,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복음 전도에 협력했습니다(박윤선). 또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군사 된 자”였다(25절)고 바울이 말한 것을 보면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면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잘 싸우면서 담대히 복음을 바울과 함께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 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이 에바브로디도란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 승리장로교회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의 사이에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 교회와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함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 티화나 멕시코를 선교케 하고 계시는데 어느 면으로 보면 멕시코 선교 팀은 우리 교회에서 티화나 멕시코 선교지로 보내는 자들로서 멕시코에 선물들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선물들 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멕시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야 말로 참 중요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음식도 제공하고 이런 저런 선물도 주고 의료 선교도 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그 곳에서 섬기는 멕시코인 Victor 목사님 부부와 일꾼들과 한 형제, 자매로서 함께 동역하며 그들의 필요한 것을 우리 교회가 선물해 주므로 채워주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역은 티화나, 멕시코뿐만 아니라 멕시코 엔세나다도 마찬가지고 또한 중국, 필리핀, 몽골 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곳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사역하는 현지인 주님의 종들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 교회가 선물해 주면서 함께 동역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수고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동역자의 관계요 주님 안에서 협력하는 귀한 사역이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러한 귀하고 아름다운 협력사역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하였고 또한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26절을 보십시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현대인의 성경)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으며 자기가 병든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란 사람은 병든 상황에서 그가 간절히 사모하였던 사람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식구)들이었습니다(26절). 그가 빌립보 교회를 떠나 바울과 함께 얼마 동안 동역하며 수고하며 바울의 쓸 것을 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30절) 병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로 그의 병이 심각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 27절과 30절을 보면 그는 병들어 죽게 될 정도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그리워하고 있다)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저는 편지를 쓰고 있었던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심정을 공감하고 이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즉,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그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 그들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편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장 10-1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10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11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13절)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들을 보고 싶었으면 이렇게 편지를 쓰겠습니까. 또 다른 예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18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매우 힘썼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심정이 그리도 간절히 보고 싶은 교회 식구들을 못 보는 상황에 놓여 있어 보았기에 그는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교회 식구들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공감하며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리워하는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빌2:25), “그래서 내가 서둘러 그를 돌려보냅니다”(28절, 현대인의 성경)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든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을 줄 알고 “심히 근심”하였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였습니다(26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슬프실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에바브로디도 같은 경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알게 되므로 오히려 자기가 심히 근심(걱정)하였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자기 자신을 걱정하기보다 빌립보 교회 식구들을 더 걱정했다는 사실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나 자신을 걱정하기보다 내가 병들어 죽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가족 식구들이나 교회 식구들이 더 걱정이 되나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에바브로디도가 “심히 근심”했다(26절)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αδνημονωv)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37절(막14:33)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겿세마네 동산 기도하는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새 고민하고 슬퍼하사”[(현대인의 성경)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만 데리고 가셨다. 예수님은 몹시 괴로워하시며”]. 여기서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몹시 괴로워하셨다)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26절에서 에바브로디도가 “심히 근심”했다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겿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셔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던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는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며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개인적 사정 때문에 교우들이 근심할까하여 자기편에서 도리어 근심하였다. 그는 이처럼 희생적 정신으로 교우들을 아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3-4절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이미 이 성경적 원리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일을 돌보기보다 빌립보 교회 식구들의 일을 더 돌보았습니다. 그는 병들어 죽게 된 자기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 식구들이 걱정하고 염려할까봐 더 근심(걱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희생적인 사랑이 아닌가요? 그 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사모하고 생각한 것보다 오히려 에바브로디도가 그들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멀리에 계신 아버지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자녀들이 알면 충격 받고 슬퍼할까봐 말 안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소식을 자녀들이 알게 되었을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처럼 심히 근심(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 죽기까지 이른 상황에서 자기 교회 식구들을 간절히 사모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2002년 제가 승리장로교회를 떠나 한국 서현교회에 가서 섬기면서 교회갱신목회자협의회 수련회 때 마태복음 16장 18절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새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를 찬양할 때 우리 승리장로교회가 생각나면서 그리움 속에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1절),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3절)라고 찬양하면서 그 머나먼 한국에서 여기 미국 L.A.에 있는 우리 승리장로교회를 그리움 속에서 울었던 그 때 그 순간이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어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Out of sight out of mind)는 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겠지만 주님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들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가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멀리 있는 교회 식구들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며(빌1:8)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그들을 더욱더 걱정할 것입니다(2:26). 우리 모두가 에바브로디도처럼 우리 자신보다 우리 이웃을 더 걱정하며 또한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셋째로,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30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의 교회 식구들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그 때에 그렇게 병중에서 심히 근심하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근심 위에 근심’(sorrow upon sorrow)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27절을 보십시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현대인의 성경) “그가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슬픔이 더 겹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 바울은 근심 위에 근심이 더 있었을까요? 왜 그의 슬픔은 더 겹쳤었나요? 그 이유는 바울은 자신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 된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기에 근심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슬퍼)하고 있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며 사모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바울에게는 근심 위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병들어 죽어갈 때에 그 사랑하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겠습니까. 그 부모는 심히 근심(슬퍼)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부모님은 두 배로 근심(슬퍼)합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는 손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기에 근심하는 가운데 그 손자를 보고 심히 근심하는 자식을 생각할 때 근심(슬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심정(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이나 에바브로디도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근심을 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에바브로디도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도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고 말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을 보면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금 빌립보 교회로 서둘러 돌려보낸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28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적어도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아갈 정도로 건강은 회복된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서둘러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내가 서둘러 그를 돌려보냅니다.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게 되면 기뻐할 것이며 내 근심도 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서둘러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했던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기뻐하게 하며 또한 자신의 근심도 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로 권면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29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주님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30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나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영접하며 그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는 헬라어 단어(παρὰβουλευσάμενος)는 초대교회 형제애란 공동체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일을 섬겼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parabolani”라는 같은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Parabolani were the members of a Christian brotherhood who is the Early Church voluntarily undertook the care of the sick and the burial of the dead, knowing full well they could die(Wikipedia)]. 이 말은 초대 교회 때에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자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며 아픈 자들뿐만 아니라 바울과 같은 주님의 종들을 섬겼던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말한 것입니다(29절).

우리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에바브로디도처럼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으면서 주님의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면으로 보면 우리가 주님을 일을 함에 있어서 무리할 필요도 있고 모험할 필요도 있고 위험을 무릅쓸 필요도 있다는 말입니다. 한 마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아끼지 않으시고 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받쳐서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성경구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행20:24)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1:13) “...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사람,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빌2:29).

저는 “에바브로디도”란 인물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첫 번째 생각은, 그 사람의 이름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에바브로디도”란 이름의 뜻은 바로 “사랑스럽다, 아름답다”입니다. ‘주님, 주님께 서 주님의 몸 된 승리장로교회 안에서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세워주시되 주님의 종들과 함께 동역하며,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며 또한 그들의 쓸 것을 돕는 자들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길 함께 기도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길 주님께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면서까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종들을 섬기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길 함께 기도하십시다.

(2) 마지막 두 번째 생각은, 하나님께서는 병들어 죽게 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이 여기시사 그의 생명을 아끼시사 살려주셨는데 독생자 예수님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예수님께서서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가 우리의 헌신 기도와 찬양이 되길 기원합니다:

1.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2.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3.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4.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5.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 아멘.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기를 헌신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일 오후 사랑하는 고 임봉희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안전주의

[빌립보서 3장 1-3절]

당신의 생각에 우리 한국 국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14년 10월 20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안전의식 실태와 정책과제’에 따르면 8월초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95%가 안전의식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인 50.9%는 ‘매우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44.1%는 ‘다소 부족하다’고 답했다. ‘매우 부족하다’는 답변은 0점, ‘다소 부족하다’는 답변은 0.3점으로 책정한 결과 안전의식이 100점 만점 중 17점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낙제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승용차 뒷좌석에 탈 때 어떻게 하는지’ 묻는 질문에 안전벨트를 안 하고 간다는 응답이 67.5%에 달했다고 합니다. ‘노래방의 비상구가 없거나 불안해 보일 때는 어떻게 하냐’는 물음엔 81.9%가 그냥 이용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시민의식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의 32.0%가 ‘안전의식과 문화의 미숙’을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습니다. 김동렬 현대정책연구소장은 “아직도 국민들의 안전의식에 많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20대, 학생, 전업주부 등 안전의식과 교육 및 훈련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인터넷).

얼마 전 라디오를 통해서 한국 뉴스를 들으니까 인천 제철소에서 일하는 한 40대 직원인 용광로로 추락하여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 직원은 제철소 작업장에서 1천 500에서 2천도의 쇳물을 분배장치에 주입하는 작업을 하다가 한 2~2.5미터 아래의 용광로로 추락해서 결국 사망했는데 시신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때 뉴스에서는 일하는 장소에 ‘안전장치’에 대해서도 말하면서 안전주의 의식이 부족함도 지적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한국 국민의 안전주의 의식이 부족하며 그러기에 안전장치도 잘 되어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미국 캘리포니아도 장차 올 초대형 지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지질연구소(USGS)에 따르면 7.8 규모 이상의 대지진은 1994년 노스리지 지진보다 위력이 50배나 강해 2천 명 이상의 사망자와 수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고, 2천억 달러(212조4천억 원)의 재산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6일에는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초대형 지진 발생에 대비한 대규모의 훈련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날 모의훈련에는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관공서·학교·병원 등에서 1천30만여 명이 참가했는데 이 가운데 지진 발생률이 높은 LA 카운티는 330만 명, 오렌지카운티는 98만3천여 명이 각각 참여했었다고 합니다. 훈련은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를 가상해 '땅에 엎드리고(drop), 숨어서(cover), 60초간 기다리기(hold on)' 순서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진이 발생하면 주민들은 포복 자세로 몸을 낮춰 엎드려 책상이나 테이블 등 머리를 가릴 수 있는 공간에 몸을 숨긴 뒤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기둥 등을 붙잡고 기다려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어 지진이나 주요 재난에 대비해 각 가정에서는 사흘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약과 식품, 하루 1갤런(3.78ℓ)을 마실 수 있는 충분한 물을 확보해야 한다고 합니다(인터넷).

그러면 당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안전의식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는 영적안전주의 의식이 어느 정도입니까? 분명히 성경은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얼마나 근신하고 깨어 있습니까?(벧전5:8). 제 생각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근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점점 더 절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제력을 잃어서(방자하게 행하여) 원수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출32:25)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절제력을 잃어서 이런 저런 마음의 우상을 품고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사도 바울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말세에 고통 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한다고 말하였습니다(딤후3:3). 그 예언처럼 말세인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절제력을 잃어서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면서 분수에 넘치는 행동까지 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이 세상에서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는 즐기고 있습니다(마26:41).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은 서로 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다만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서로 합의하여 얼마 동안은 그렇게 하더라도 다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할 때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못하므로 절제력을 잃어버려 사탄의 시험에 들어 자꾸만 넘어져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통하여 말하였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현대인의 성경) “형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다시 쓰는 것이 내게는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안전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1장에서 말한 두 가지 내용에 관하여 다시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이란 무엇입니까?

(1) 첫 번째 내용은 바로 기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빌립보서 1장에서 ‘기쁨’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 예로 빌립보서 1장 4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므로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비록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은 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였던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고(5절) 또한 자기가 옥에 갇히므로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12절). 한 마디로, 바울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였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 두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그는 이미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그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라”(1:27)는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서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28절). 그리고 바울은 29절에 가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 당시 빌립보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계속 써 내려가면서 오늘 본문 3장 1절에 와서 빌립보 교회 형제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면서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그들에게 “같은 말”을 또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안전하기 때문이었습니다(1절하). 여기서 “안전”(safeguard)란 원어 헬라어 의미에는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safe, secure from peril)라는 뜻이 있습니다(헬라어 사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같은 말을 또 쓰고 있는 것입니까? 그 위험이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십시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Beware of the dogs, beware of the evil workers, beware of the false circumcision;”(NASB)].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위험하니깐 “삼가라”(beware), 즉 조심(주의)하라(watch out)고 말씀(경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은 누구 혹은 무엇을 조심하라고 말(경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 3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개들”을 조심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개들을 삼가고”(beware of the dogs). 당신도 종종 뉴스에서 사람이 개한테 물린 사건들을 들으신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해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치명적인 개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개 전문 변호사인 케네스 필립이란 사람에게 따르면 2010년에만 미국에서 모두 34건의 치명적인 개 공격 사건이 있었고, 해마다 35만 명이 개한테 물려서 병원 응급실을 찾는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해마다 35만 명이니 개한테 물려서 병원 응급실을 찾는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개한테 물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보는 여기 저기 건물 주차장 철조망에 붙여 있는 “Beware of Dog”(개 조심)이란 경고 싸인 판이 생각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2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개들”을 조심하라(주의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개들”은 누구입니까? 그 당시(1세기 AD) 개들은 사나우며 제멋대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 등을 찾아 쓰레기 더미를 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개들을 아주 더러운 동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들처럼 여겼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상종하지 못할 더러운 동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요4:9). 주후 1세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이방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해 주지 않고 아예 그들을 개들로 여겼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탈무드를 보면 옛날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하는 세 가지 감사기도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였다고 합니다. 꼭 누가복음 18장 11절에 기록된 바리새인의 기도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이 개들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을 주의(조심)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개들을 주의하라”(빌3:2)고 말했을 때에는 유대인들, 특히 유대주의 자들(Judaizers)를 염두해 둔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주의 자들’이란 누구입니까? 유대 주의자들은 초기에 복음을 맹공격을 퍼부은 단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이 구약의 어떤 의식(특히 할례의식)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이 유대주의 자들과 그들의 거짓된 복음을 이단으로 말하고 있으며 심지어 저주까지 하였습니다(갈라디아서). 그런데 문제는 유대주의 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진짜 신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교회에서 그랬습니다(갈2:12). 그러나 정작 그들은 그 교회에서 복음의 명료성을 훼손하고, 복음을 심각하게 더럽혔으며 또한 이방 신자들을 혼란에 빠트렸습니다. 그 혼란에 원인을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바울의 논리는 누군가가 (1)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2) 그런 다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고, (3) 다음에 즉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준비를 한다고 말한 반면에 유대주의 자들은 누군가가 (1) 그리스도를 믿고, (2)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키고, (3) 그리고는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말한 것입니다(그래삼 메이첸).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주 미묘한 차이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큰 차이입니다. 그 차이란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반면에 유대주의 자들은 인간이 노력하여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전파하였던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지만(은혜), 유대주의 자들이 주장한 거짓된 복음은 죄인인 사람들이 행하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공로). 한 마디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유대주의자들은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인간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거짓 가르치는 유대주의 자들을 가리켜 “개들”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들이 물질을 탐하여 스승으로 자처하고 돌아다니는 까닭이었습니다(3:19).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거짓된 복음(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스승들인 유대주의 자들이 위험하기에 그들을 주의(조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worship in the Spirit of God)고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3절 상반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봉사하라”는 단어의 원어 헬라어 의미는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들, 특히 유대주의 자들을 조심(주의)하라고 경고하면서 오히려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worship)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말씀 외에도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모세에게 애굽(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순종하여 바로 왕에게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worship)이니라”(4:23, 7:16, 8:1, 9:1, 10:7). 그래서 바로 왕은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 이후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가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예배하여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누구냐”(10:8, 새번역), “그렇게는 안 된다! 가려면 너희 장정들이나 가서, 너희의 주에게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처음부터 바란 것이 그것이 아니더냐?’ …” (11절, 새번역), “너희는 가서 주께 예배하여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의 아이들만 데리고 가야 한다”(24절, 새번역). 그러다가 바로 왕은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후에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즉시 내 백성을 떠나라. 너희가 요구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예배하여라) (12:31).

우리 승리장로교회에는 삼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 삼대 목표란 (1) 진정한 예배자를 세우는 것, (2) 신실한 제자를 세우는 것, (3)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자와 겸손한 봉사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삼대 목표의 근거하여 우리 교회는 삼대 목적 진술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목적 진술은 이렇습니다: “주님을 모시는 교회: 예배-증인들.” 이 첫 번째 목적 진술에 대한 구절은 고린도전서 14장 25절 말씀입니다: “그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앞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라.” 이 말씀은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다닐 때 밑에서 배운 John Frame 교수님이 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책에서 도전을 받고 우리 승리장로교회가 우리에게 제일 원하고 계시는데 예배요 그 예배는 증거의 역할 또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므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기에 우리 모두가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 하나님께 바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교회는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앞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고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고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개가 더 무섭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더 무섭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한다면, 당신은 공격적인 개(vicious dog)를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악한 마음을 품고 공격적인 행악 자(vicious wicked worker)를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제 생각엔 공격적인 개보다 공격적인 행악 자를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공격적인 행악 자는 짐승보다 더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개는 아무리 사납고 공격적이래도 자기 주인을 잘 물지 않는데 공격적인 행악 자는 자기를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보호해 주고 등등 하는 사람도 충분히 공격하여 해를 깨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뉴스에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운용자산이 2천 2백억 원에 달하는 헤지펀드를 설립, 운영하던 70살의 토머스 길버트 씨가 미국 명문 프린스턴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자기 아들이 쓴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인이, 아버지가 실업 상태였던 자기에게 매달 아파트 2백 6십만 원과 용돈 60만원을 지원해왔었는데 앞으로 월세도 끊고 용돈도 30만원으로 줄이겠다고 하자 격분한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방아쇠를 당겨서 죽였다고 합니다(인터넷). 이런 자식을 한국어로 “패륜아”(an immoral/a depraved person)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패륜아란 네이버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그러지는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런데 아마 대중적으로 더 잘 알려진 말은 “패륜아”란 말보다 “후레자식”(bastard)일 것입니다[“후레자식”이란 “배운 데 없이 제풀로 막되게 자라 교양이나 버릇이 없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네이버 사전)]. 이러한 후레자식(패륜아)은 “가시고기”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가시고기는 물고기 중 유일하게 동지를 만드는 고기라고 합니다. “가시고기는 주둥이로 강바닥의 모래를 퍼내고 그 곳에 동지를 짓습니다. 모래집에 수초까지 덮어 완벽한 산란의 보금자리를 꾸밈니다. 가시고기 수컷은 이때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몸집이 큰 물고기들과 처절한 싸움도 불사합니다. 알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부지런히 알을 넣고 꺼내는 작업도 잊지 않습니다. 가시고기 수컷은 보통 15일 동안 아무 것도 먹지 않은 채 알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알이 부화할 무렵, 동지 옆 에서 장렬하게 죽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치어들은 무심하게도 제 아버의 살을 뜯어먹으며 성장합니다. 가시고기는 치어를 위해 생명을 바치고, 최후에는 몸까지 내어놓습니다. 그 부성애로 인해 가시고기의 부화율은 90%를 웃돕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2절 중반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안전을 위하여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주의/조심하라)고 말(경고)하고 있습니다[(빌3:2b) “행악 자들을 삼가고”(beware of the evil workers)].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행악하는 자들”이란 누구일까요? 여기서 ‘행악하는 자들’이란 원어 헬라어의 의미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도덕적인 의미(a moral sense of meaning)가 있다고 합니다: ‘사악한, 사나운/공격적인, 마음과 행동과 인격이 나쁜/형편없는’[“wicked, vicious, bad in heart, conduct, and character”(Zodhiates)]. 그리고 이 헬라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오늘 본문 외에 한 3군데 더 나옵니다. 그 중에 두 군데를 살펴보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조심(주의)하라고 말하는 “행악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파악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구절은 마태복음 21장 41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지니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포도원 농부 비유”로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악한 자들”이란 “농부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농부들을 가리켜 “그 악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세를 내고 빌려 쓰는 포도원의 주인이(33절) 자기들로부터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을 때(34절) 그 농부들은 집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기 때문입니다(35절). 그래서 집 주인은 처음보다 많은 다른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36절). 그래서 집 주인은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면 그 농부들이 자기 아들을 존대할 줄 알고 보냈는데 그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여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고 하고 그 아들을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37-39절). 예수님은 이리 행한 그 농부들을 가리켜 “그 악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41절). 이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악한 자들(농부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유대인들입니다(눅23:21). 그 유대인들 중 특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마21:15)을 가리켜 “악한 자들”(41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경구절은 마태복음 24장 48-49절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3절)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 어느 때에 이런 일[성전 건물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2절)]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3절)라는 질문에 답변하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인자(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44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45절). 그러신 후 예수님께서 “만일”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그 악한 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악한 종”에 대하여 몇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1) 악한 종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2) 악한 종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9절을 보십시오: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3) 악한 종은 “외식하는 자”(the hypocrites)라는 것입니다. 51절을 보십시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께서 주로 누구를 가리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마7:5, 15:7, 22:18, etc.).

이 두 성경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자들” 또는 “악한 종”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비춰볼 때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주의)하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경고)하였을 때 바울이 염두해 두고 있었던 “행악하는 자”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였습니까? 성경 주석가 아더 핑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1) “서기관은 국가의 서기관, 교회의 서기관이 있는데 여기서는 교회의 서기관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율법 학자라고 할 수 있다. (2) 바리새인은 한 분파를 나타내는 것으로써 그들은 모세 율법이 명하는 것보다 더 엄격하며 조상들의 유전에 기초를 둔 도덕법과 의식 법을 만든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3) 하지만 그들의 결점은 단지 형식적이었으며 외면적으로 율법을 준수하였으나 더러운 생각과 탐욕과 미움과 하나님에 대한 냉담한 마음에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다. 또한 그들은 율법의 도덕적인 요구보다 의식적인 계율을 훨씬 더 강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유익이 그들을 지배하는 동기였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영혼의 순결함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들은 외면적 행위의 신앙이 복되고 영원한 세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핑크). 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당신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외면적 행위의 신앙으로 복되고 영원한 세계를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달리 말한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과 조상들의 유전에 기초를 둔 도덕법과 의식 법을 철저히 인간이 노력해서 준수하면(지키면) 충분히 구원(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말입니다. 이 생각이 왜 위험한 생각입니까? 저는 한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1) 그 이유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종교?) 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외면적 행위의 신앙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형식적이며 외면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보다 종교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수많은 제물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너희가 수양이나 짐승의 기름으로 드리는 제물에 이제 싫증이 났다. … 기뻐하지 않는다. 누가 너희에게 그런 것을 가져오라고 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는

무가치한 제물을 더 이상 가져오질 말아라. .. 나는 싫어졌다. 너희가 .. 종교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차마 볼 수 없구나 ... 내가 싫어하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되어 내가 감당하기에도 지쳤기 때문이다”(11-14절).

(2) 그 이유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종교?) 생활을 하면 공로의식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기의 영광을 들어내고자 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대답)인데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은혜의식을 상실하고 오히려 공로의식으로 가득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고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자 자신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좀 더 성경적으로 질문한다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육적인 것으로”(현대인의 성경)](고후11:18)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유대인들, 유대주의 자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육신을 따라 자랑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족, 율법, 할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 즉 그들이 자랑으로 삼았던 것은 바로 자기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선민족이라는 것과 하나님께 받은 율법과 할례였습니다. 이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었고 또한 영적 우월감을 가지게 만들므로 자기들을 이방인들과 차별화 시키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해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이러한 자부심 속에서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며 자랑하였습니다(롬2:17).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율법을 어기며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2:12ff.). 그들은 하나님을 뜻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2:18) 교만한 가운데 “어린이아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면서(20절) 율법을 가르치기는 좋아했지만 자기들 스스로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21절). 그들은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그 율법을 범하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23절).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았습니다(24절). 이러한 욕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3장 21절 상반 절은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현대인의 성경)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야고보서 4장 16절은 “도리어 허영에 들떠 자랑만 하고 있으니 그런 것은 다 악한 일입니다”(현대인의 성경). 유대인들, 특히 유대주의 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 민족이요 율법과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아 결국 욕신을 따라 자랑하였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허영에 들떠 자랑”하는 것(허탄한 자랑)이었으며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었습니다(16절). 특히 그들이 하나님의 선 민족으로서 율법을 지켜 행하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그리 행동한 것은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삿7:2). 이러한 자랑은 바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2절),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므로 나 자신을 구원하였다’고 자랑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허탄한 자랑이요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29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현대인의 성경).

성경은 분명히 “구원”이란 결코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엡2:8-9). 그 이유는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구원이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격이 없는 죄인이 은혜로 구원이란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선물을 주신 분을 자랑해야지 어떻게 그 선물을 받은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자랑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행한 일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할게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을 보십시오: “그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내 악한 것이나 자랑하겠습니다”(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참고: 고전1:31). 여기서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상반 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고전 9:16,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갈6:14).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빌3:3). 하루 종일 주님을 자랑하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기원합니다(시44:8, 현대인의 성경).

마지막 셋째로, 바울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조심하라 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목상한 것처럼 유대인들, 유대주의 자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육신을 따라 자랑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민족, 율법, 할례, 이 3가지였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 즉 그들이 자랑으로 삼았던 것은 바로 자기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선민족이라는 것과 하나님께 받은 율법과 할례였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란 영어로 “circumcision”인데 그 뜻은 “cut around”(빙 둘러 자르다)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브리트 말라”라고 하는데 그 뜻은 ‘브리트’는 “계약(언약)”이란 뜻이고 “말라”는 “할례”를 뜻합니다. 그래서 “할례”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원어 의미는 바로 “언약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고 할 때에 그 의식은 남자의 성기 귀두 위에 덮여 있는 표피를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할례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실시하도록 규정 되었습니다(창 17:12, 24-25; 레 12:3).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할례가 가지고 있었던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그 상징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17장 1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과 노예를 포함한 그 가정에 속한 모든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시로 이스라엘 백성의

몸에 새겨진 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 할례는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징표이며, 상징이었고, 또한 표시(mark)였습니다. 즉, 할례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명서였습니다. 할례는 옛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예식이며 증거였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실한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언약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은밀한 표식을 몸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의식은 엄격히 지키도록 명령된 외적 의식이었습니다(창 17:12; 출 4:24; 수 5:2).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안전을 위하여 그들에게 3가지를 주의(조심)하라고 경고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주의(조심)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몸을 상해하는 일”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개역한글 성경에는 “손할례당”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손할례당이란 ‘몸(양피)을 상하는 할례를 자랑하는 당파’를 가리킵니다(박윤선).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바울이 말한 “몸을 상해하는 일”이란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여태껏 말한 구약의 “할례”라는 헬라어 단어인 “페리토메”(peritome)와 다른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모든 남자들이 행하라고 했던 “할례”는 헬라어로 “페리토메”인데 그 의미는 “to cut around”(빙 둘러 자르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바울이 말한 “몸을 상해하는 일”이란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to cut down(off)”[(몸/양피의 밑 부분을 잘라) 쓰러뜨리다(잘라내다)]입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에 의하면 바울이 말한 “몸을 상해하는 일”(몸/양피의 밑 부분을 잘라내는 일)이란 마치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나오는 갈멜 산에서 엘리야와 대결하였던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자기들의 신이 바알의 이름을(26절)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의식에)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한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 구약에서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구약에서 말하는 할례가 아니라 오히려 구약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식대로 자기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믿는다고 하는 손할례당 사람들을 주의(조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빌3:2). 그러면 질문은 여기서 바울이 손할례당 또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말할 때 그는 누구를 염두해 두고 있었을까요? 바로 유대주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는 할례는 아무 영적인 상징이 없이 그저 자기 육체적인 몸만 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박윤선). 왜 유대주의자들은 아무 영적 의미도 없는 자기 몸만 상하게 하는 이러한 할례를 행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렘9:26).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목을 곧게

하여(신10:16) 항상 성령님을 거스렸습니다(거역하였습니다)(행7:51).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형식적으로나 외식적으로는 철저하게 율법과 조상들의 유전을 따라 규례(의식)들을 지켜 행하다보니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외식주의자들(the hypocrites)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유대인 성도들을 영두해 두고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롬2:29).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빌1:8) 이미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진정한 할례)를 받은 자들로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주의(조심)하고 더 나아가서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put no confidence in the flesh)고 말하고 있습니다(2:2-3). 그는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그저 모세의 율법의 표면적으로 의식과 책임에 따라 육신적으로 할례를 행하여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에 자부심을 갖고 할례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유대인들(과 유대주의 자들 및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주의하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성령님에 의한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로서 그 유대인들처럼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육체와 육신의 할례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신뢰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길 원했던 바울, 그 이유가 무엇이였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처럼 육체를 신뢰할 경우에는 공로의식을 가지고 교만함과 영적 우월감 속에서 헛된 영광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만일 그들이 유대인들처럼 육체를 신뢰하게 되면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것들을 취중 하다가 보면 위선자들이 될 위험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자들이란 소리를 듣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할례는 행하지 않고(진정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 그저 교회 나오다가 보니 형식적으로는 세례를 받았지만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신30:6)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하면서 형식적으로 외면적인 종교 의식을 철저하게 지키려고만 하기에 우리는 위선자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행하였고 지금도 행하고 있는 일들에 초점을 맞추어 공로의식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위선자란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위선자라는 소리를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은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안전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올법적인 종교생활을 경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비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기를 기원하면서)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4-6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이란 바로 “은혜의식”과 “공로의식”입니다. 먼저 우리는 은혜의식이 총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우리 심비에 깊이 기록해 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고전15:10) 라고 고백하면서 더욱더 그 은혜의 힘으로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공로의식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을 행했다는 행함을 우리 머릿속에 기록해 놓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 공로의식 외에 우리는 또 한 가지 의식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의식이란 바로 “특권의식”입니다. 새뮤얼슨(Samuelsen)에 의하면 우리는 ‘특권의식의 시대(Age of Entitlement)’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 정확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아울러 원하는 것을 받을 때 즉각 받아야만 옳다고 느끼는 경향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이것은 타인의 복지와 안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개인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나는 무조건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사회나 조직, 상대방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갖는 성향으로 발현됩니다(인터넷). 가끔 우리가 입술로나 또는 마음속으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란 바로 “내가 누군지 알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특권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특권의식 속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의 지위 등을 자랑하며 과시하는 경향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 와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안전을 위하여 ‘주의하라’(삼가라)로 세 번이나 말했습니다. 과연 바울은 누구를 주의하라고 말한 것입니까? 바로 “개들”이요 “행악 자들”이요 “몸을 상해하는” 자들인 유대주의 자들입니다.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주의

자들을 주의하라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경고)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인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추구한 인간의 노력이란 바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철저히 지켜 행한 율법 중 하나는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손할례당”(2절, 개역한글)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주의 자들이 진정한 할례파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신의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진정한 할례파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곧 할례파라”고 말하였는데 여기서 바울은 참 할례 파에 대해서 3가지로 요약하였습니다: (1) 하나님을 성령으로 예배하며, (2)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3)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바로 참 할례파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육체”(육적인 것)란 말은 “인간적 특권이나 영예”를 가리킵니다(박윤선). 바울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참 할례파라고 말하였을 때에 그는 분명히 육체를 신뢰하였던 유대인들, 유대주의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고 있었던 3가지, 즉 ‘하나님의 선 민족, 율법, 할례’를 염두해 두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참 할례파가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고 그저 표면적으로 또는 육체적인 몸만 상하게 한 유대주의 자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할례에 대하여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에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유대인들을 주의하고 그들처럼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런 후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4절에 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만일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자기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이유가 더욱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왜 자기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이유가 유대주의 자들 보다 더 있는지 그 이유를 한 6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6가지를 크게 2 그룹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고해야 할 것은 이 두 그룹 중 첫 번째 그룹의 세 가지(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사람,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 은 바울 자신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얻는 특권은 결코 아닙니다. 이 특권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그룹의 3가지(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는 바울에게 주어졌다기보다 그가 노력하여 얻는 것입니다.

첫째 그룹은,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입니다(5절).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왜 자기는 유대주의 자들보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이유가 더 있는지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1) 바울(사울)은 팔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사울(바울) 또한 유대주의 자들처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목상했듯이 할례란 유대인들이 받아 누렸던 특권 중의 하나로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자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할례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명서나 마찬가지로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할례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할례도 한 3 종류의 할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3가지란 (1) 이방인 개종자들은 성인이 연령에 미쳐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 (2) 이스마엘 자손들은 13세 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3) 아브라함의 정통 가문은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박윤선). 그런데 사울(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야 말로 아브라함의 정통 가문으로서 자신의 특권(영예)을 충분히 신뢰하고도 남았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로마서 11장 1절 하반 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도 자기 또한 육신을 따라 자랑할 것이 있다(고후11:18)고 말하면서 자기는 히브리인이요 이스라엘인이요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였습니다(22절). 바울은 어떤 유대주의 자들과 달리 그의 부모 둘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의 족보를 추적해 보면 결국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야 말로 진정한 언약 백성이었습니다(Walvoord). 그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개종한 것이 아니라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인 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선택 백성으로서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Martin).

(2)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의 아내인 라헬의 둘째 아들입니다(창35:18).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중 엘리트 지파 중 하나로서 유다 지파와 함께 다윗 왕국의 충성한 지파로서 남쪽 유다 왕국의 한 지파였습니다(왕상 12:21)(MacArthur). 또한 베냐민 지파는 귀족적인 지도자로 여김을 받았으며(삿5:14) 또한 그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째 왕인 사울이 나왔습니다(MacDonald). 특히 성경 신명기 33장 12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는 “여호와와 사랑을 입은 자”[(현대인의 성경) “여호와여, 그들은 주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라고 말한 것은 자기의 조상들 중에 한 사람도 이방인이 없고 모두 다 순전한 히브리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박윤선). 바울은 히브리인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서 히브리 전통과 언어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는 이방인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도 히브리 전통과 언어를 유지했음(참고: 행21:40; 26:4, 5)(MacArthur).

둘째 그룹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입니다(빌:3:5하-6절).

여기서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왜 자기는 유대주의 자들보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이유가 더 있는지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사도 바울은 헬라어 원어로 “kata”(according to), 즉 “...으로는”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구분하였습니다:

(1)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as to the Law, a Pharisee)(κατὰ νόμον)입니다 (빌3:5하).

바울은 유대인으로 갈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 성에서 자라나되(행 22:3) 바리새인의 아들이고(23:6) 그는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 가말리엘(행5:34)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22:3). 그리고 그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에 엄격하여 바리새인이었습니다(박윤선).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5절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현대인의 성경) “그들은 처음부터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에서 생활해 왔다는 것을 얼마든지 증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 사도행전 23장 6절을 보면 바울은 공회에 모여 있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문을 받노라.” 이렇게 바울에게 있어서 “바리새인”이란 영광스러운 칭호(a title of honor)였습니다. 그 칭호란 신적인 토라가 규정한 하나님께 향한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서 최고의 정직과 또한 신실함을 주장합니다(Martin). 그 당시 '바리새인'은 유대교도 중 엘리트층을 가리켰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 연구에 열심이었고(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였고), 그 행함에서 흠이 없었으며(성경 말씀대로 살았으며),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말과 행함이 일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순수성을 존중하였고, 다른 문화에 물든 유대 민족의 타락을 비난하였으며, 로마의 지배에 항거하는 애국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의 수는 약 6천 명이었다고 하는데 그 영향은 대단하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두 사람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 중 한 명은 바리새인일 것이다." 그러나 바리새인에게는 종교인으로서 큰 흠집이 있었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그들을 '회철한 무덤'이라고 하시며(마23:27), "뱀들이 독사의 새끼들이"(33절) 하고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바리새(pharisai)'라는 말은 원래 '분리한다'는 뜻인 히브리어 파라슈(parash)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순수주의자로서, 헬레니즘 문화와 그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자기들을 구별하여 분리하였습니다. 그 동기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독선과 배타의 정신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가장 비난한 것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눅 18:9) 바리새주의였습니다(김희보).

(2)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as to zeal, persecuting the church) (κατὰ ζήλον)입니다(빌3:6상).

바울은 그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심”(zeal)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순수성(the purity of God’s covenant community)을 향한 열심으로써 이러한 열심을 가진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졌습니다(참고: 민25:1-18; 시106:30, 31)(Martin). 그리고 바울이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였다고 말하였는데 여기서 “박해”(persecuted)란 헬라어 단어는 군대가 원수를 추격하여 싸우던지 또는 사냥꾼이 그의 사냥감을 찾아내서 추격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 하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사울(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행9:1) 길이신 예수님을 좇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교회인 신자들을 추격하여 “미친 듯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모두 가두어 버렸”습니다(행 8:3; 9:1; 22:4-5; 26:9-11)(Martin).

성경에는 두 종류의 열심이 있습니다. 그 두 종류의 열심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열심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질투한 비느하스의 열심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 민수기 25장 11절을 보면 바른 열심으로 하나님의 노를 돌이킨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열심(“질투심” à “zealous”)으로 열심을 내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인(6절) 시므온인의 종족 중 한 족장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14절)가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인(6절) 수르(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의 딸 고스비(15절)를 자기 형제들에게 데리고 온 것을 보고 비느하스는 손에 창을 들고(7절) 시므리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시므리와 고스비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8절). 그 때서야 하나님께서는 그의 노를 돌이키시므로 말미암아(1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했던 영병이 그쳤습니다(8절). 이 비느하스의 열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열심이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느하스의 바른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이 열심 참된 열심이요 올바른 열심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열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심입니다. 그 열심은 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롬10:2). 다시 말하면, 사울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십시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는 자라.”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 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으나.” 사울의 잘못된 열심은 잘못된 성경 지식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던 사울은 신약의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즉, 사울은 그의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잘못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 마디로, 사울이 주님의 교회를 박해한 이유는 바로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줄 믿지 않았기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유대주의를 사랑하였기에 유대주의를 위협하는 그 어떤 것도 미워하였기 때문입니다(참고: 행8:3, 9:1)(MacArthur). 이것이 바로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참 믿음에 근거한 열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기에 바른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였던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하였습니다(요16:2).

(3)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as to the righteousness, faultless)(κατὰ δικαιοσύνην)입니다(빌3:6하).

이것은 사울(바울)이 부지런히 이룬 세 번째 업적으로서 그가 충분히 육적으로 신뢰하며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의로는 그는 흠이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이 말하였던 “율법의 의”라는 것은 인간이 율법을 지켜 행하므로 얻을 수 있는 의로서 인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음을 가리킵니다. 사울은 마치 누가복음 18장 21절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였습니다. 그는 율법에 근거하여 의롭다하심을 얻기 위하여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기준들을 따라 살아왔습니다(Martin). 그래서 그는 자기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성경 로마서 3장 20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삶을 추구했지만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죄에 대한 인식이 더 많아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참고: 딤후1:15).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깨달은 것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롬 3:21) 그 의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22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24절).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 의식이 더 많아지고 공로의식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고전 15:10, 록 17:10).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겸손히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보심시오: (1)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고린도전서 15장 9절), (2)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에베소서 3장 8절), (3) “… 죄인 중에 괴수니라”(디모데전서 1장 15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는 한 3가지를 점검해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1) 나는 점점 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있다(혹은 있는 것 같다)(엡 4:19). 나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다 (롬5:13). (2) 나는 점점 더 공로의식에 매여 있다 (눅18:11-12). 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보다 내가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있다(마25:44). (3) 나는 점점 더 교만해 지고 있다(잠21:4, 겔 28:5). 나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길 좋아한다(요12:43).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죄에 대하여 더욱더 민감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를 더욱더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의식으로 총만해 져야 합니다. 우리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롬4:25).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 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고전10:31).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시 115:1).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려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은,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거부하는데 헌신하면서)

가장 고상한 지식

[빌립보서 3장 7-9절]

당신은 당신의 신앙생활에 무엇이 유익되고 무엇이 해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 지금 무엇이 유익되고 무엇이 해가 되는지를 알고 (구별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것은 버리고 유익이 되는 것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는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무엇이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고, 무엇이 우리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지 구별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에 비교할 때 만일 우리가 우리 몸의 건강을 관리함에 있어서 무엇이 우리 건강에 유익하고 무엇이 우리 건강에 해가 되는지를 구별을 못한다면 우리의 건강이 어찌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건강관리를 제대로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웬만한 어르신들은 여기저기 아파보시고 (또는 지금도 아프시고) 한 분들은 병원에 다니시면서 의사 선생님도 여러 번 만나보시므로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건강에 해가 되는 일을 계속해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더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자신의 건강에 유익되게 하는 행동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되는 행동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가 되는 줄을 알면서도 자신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행동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병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간략하게 예를 들어본다면, 당신의 생각에 무엇이 당신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부지런히 읽고, 설교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일 오후 성경공부에 참여해서 열심히 배우고, 개인적으로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새벽기도회나 수요기도회나 1박 2일 기도회나 주일 중보 기도회나 개인기도에 헌신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 생활도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7-8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란 제목아래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7-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받아 실천에 옮기는 우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7절을 다시 한 번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But whatever was to my profit)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인 과거에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과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이미 묵상한 성경 빌립보서 3장 5-6절 말씀에 나와 있는 사울에게 주어진 3가지 특권(5절상)과 사울이 노력해서 얻는 3가지입니다(5절하-6절). 그 3가지 특권이란 사울은 8일 만에 할례 받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또한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력해서 얻는 3가지는 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육체(육적인 것)를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4절). 그는 유대주의 자들보다 더 육체를 신뢰할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5-6절에 나와 있는 6가지 목록입니다. 그 6가지 목록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사울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그가 추구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물론 여기서 그리스도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아니었음),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 행하므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율법의 의”(6절하)]를 추구했던 사울에게 있어서 5-6절에 나와 있는 6가지 목록은 그에게 엄청난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한 예를 들어, 6절 하반절에 기록한 마지막 6번째 목록을 보십시오. 사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사울에게 큰 유익입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므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고 철저히 믿고 있었던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는 것은 그에게 엄청난 유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것은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기(믿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자기 자신이 유익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었던 과거에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으로 여겼던 6가지 목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7절에 와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5-6절에서 말하였던 6가지 목록을 “다 해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6가지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기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된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 ‘유익하다’와 ‘해로 여긴다’란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회계 용어(accounting terms)으로 ‘유익하다’는 말은 ‘이익을 내다’(profit)란 뜻이고 ‘해로 여긴다’는 말은 ‘손실한 것으로 여긴다’란 의미입니다(MacArthur).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유익되었었고 자기가 신뢰하고 또한 자랑삼았던 그 6가지를 “다 바렸”다(7절하, 현대인의 성경)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과거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길 수 있었을까요? 왜 그는 과거에 자신이 그리도 신뢰하고 자랑삼았던 그 6가지 유익했던 목록을 이제는 다 무익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해로 여기기까지 하였을까요?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목적은 오늘 본문 7절 중반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for the sake of Christ).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 “하나님의 의”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현대인의 성경)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인간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울은 율법의 의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하나님의 의)(9절)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으므로 과거에 자기가 신뢰하였던 육체(4절), 곧 유대주의 자들보다 더 신뢰할 만한 육적인 것인 6가지로 목록(5-6절)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7절).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그것을 다 해로 여겼습니다(7절). 그 6가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8절 상반절을 보면 바울은 그 6가지 외에 다른 “모든 것”, 즉 “그 밖에 모든 이 세상 것들을”도 해로 여겼습니다(박윤선). 그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8절). 여기서 우리는 한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첫째는, 바로 “배설물”이란 단어입니다.

이 “배설물”이란 단어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쓰레기”(garbage or waste)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식탁에서 버려지는 “찌꺼기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바울이 전에 귀히 여기던 바리새식 율법주의는 식탁에서 내버린 찌꺼기들과 같은 것이다. 이 찌꺼기들이 개들(유대주의 자들 = 바리새식 유대인 신자들)에게는 좋아 보이나, 바울에게는 방해물이었다”(박윤선). 또한 배설물이란 우리 사람들 인체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똥”(dung or manure)이라고도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박윤선).

(2) 둘째는,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세 번 반복해서 나오는 ‘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한국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반복되는 단어의 차이점을 알 수가 없지만 원어 헬라어를 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란 7절에 나오는 ‘여기다’라는 동사는 과거사이고 8절에 나오는 ‘여기다’라는 동사는 현재사입니다.

그 의미는 7절에서 바울이 과거에 자기가 신뢰하였던 육체(육적인 것)인 6가지 목록은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때부터 다 해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바울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이라고 말했을 때 “여김”이란 동사는 현재사로서 “영구히 취하는 계속적인 행동”을 말합니다(박윤선). 즉, 바울은 유대주의자들보다 더 육체를 신뢰할 만한 6가지를(7절) 이미 다 해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모든 세상의 것들(8절)도 다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또한 배설물로 여기되 영구히, 계속해서 그렇게 여기겠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는 그리했습니까? 왜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되 영구히 계속해서 그렇게 여겼습니까? 바울은 그 이유와 목적을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8-9절 상반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현대인의 성경)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과거에 신뢰하였던 육적인 것인 6가지와 그 밖에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또한 배설물로 계속해서 영구히 여겼던 이유는 바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었습니다(8절). 과거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이었던 바울은(5절)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았었지만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는 줄을 몰랐었습니다(갈3:24). 특히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많았겠지만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을 몰랐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몰랐었습니다(참고: 행9:20). 그래서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분의 도를 따르며 전하였던 그리스도인들을 열심으로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인 “사울아 사울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행9:4)란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자기가 열심으로 박해하던 그리스도인들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을 때(20절)그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빌3:8).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식”이란 머리로만 그리스도 예수님께

대해서 아는 것(intellectual knowledge about Him)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용한 헬라어 단어(γνώσεως)를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경험적으로”(experientially) 또는 “개인적으로”(personally)아는 것을 말합니다(참고: 요10:27, 17:3; 고후4:6; 요일5:20). 또한 이 지식이란 그리스도와 나누는 삶과 동등합니다(갈2:20).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는 것(암3:2)과 그들이 하나님을 알므로 사랑하며 순종하는 것과 일치합니다(렘31:34, 호6:3, 8:2)(MacArthur). 저는 바울이 과거에 자기가 신뢰하고 자랑삼았던 육적인 것들이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해(배설물, 쓰레기, 찌꺼기)로 여겼던 이유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했을 때 이런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가치가 하나도 없는 다른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빌립보서 3:7-8).”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가치 있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개인적으로나 경험적으로(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면 (혹은 점진적으로 깨달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비해 가치가 하나도 없는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리했습니다. 그는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가 과거에 신뢰하였던 육적인 것 6가지와 그 밖에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또한 배설물로 계속해서 영구히 여겼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그리스도를 얻고”(that I may gain Christ). 이 말씀을 좀 달리 번역한다면 “그리스도를 얻으려 하고”라는 말인데, 그 뜻은 바울이 전에 몰랐던 그리스도를 이제 얻으려고 모든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 버린다는 것입니다(박윤선). 저는 그 예로 요나서 1장 4-5절을 들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마치 이방인 사공들이 배가 거의 깨지게 된 상황에서 자기들의 생명을 위하여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던져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가치가 하나도 없는 다른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한다고 말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두 주인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마6:24).

둘째로, 바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말은 현대인의 성경에는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 곧, 참으로 의를 얻은 상태”입니다(박윤선). 이미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영적 연합으로 인하여 이미 의를 얻은 상태였습니다. 즉,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영적으로 연합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의를 얻은 상태였지만 온전(완전)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도”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참으로 의를 얻은 상태가 장차 다가올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므로 이미 구원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전가(imputed)가 되었기에 그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질적으로 그는 의를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완전한 의인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23절).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그가 홀연히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을 입을 때에는 그는 참으로 온전(완전)한 의를 얻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 때에는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법인 예수님의 이종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때까지 바울은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과거에 유익하게 여겼던 6가지와 그 밖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영구히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헌신한 것입니다.

당신에게 제일 귀중한(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당신에게는 주 예수님 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까? 당신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와 나누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고 계시듯이 당신도

그리스도를 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므로 그 주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러시다면, 우리가 신뢰하는 육신적인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배설물, 똥)으로 여기고 영구히 계속해서 버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하여, 그 분과 온전한 영적 연합 상태에 이르기 위하여, 온전한 의를 얻는 상태에 이르기 위하여입니다. 그 날 그 순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 모두가 자라나길 기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예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무익한 것들과 해가 되는 것들을 버리고 또 버리는데 헌신하면서)

오직 한 가지 일만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14절]

당신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한 가지 일만은 분명히 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 보았습니다. 그리했을 때 저는 제가 분명히 하고 싶은 한 가지 일을 3중으로 생각(threefold perspective)해 보았습니다. 그 3중 생각이란 바로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첫째로, “믿음”에 관하여서는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제가 제일 우선시 하고 싶은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사도 바울처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빌3:8). 또한 저는 사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마16:16). 저는 예수님을 알아가므로 바른 신앙고백을 하는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기를 원합니다(롬10:17).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저에게는 믿음의 진보가 있길 원합니다(빌1:25). 그러므로 저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고후 5:7).

둘째로, “사랑”에 관하여서는 마태복음 22장 37-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예수님의 이중계명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제 마음도 천국화 되어갈 뿐만 아니라 가정도, 교회도, 이웃과도 천국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 생활을 추구하는 저로서는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마22:37-40).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여 제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더욱더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제 삶 속에서 더욱더 풍성히 맺어주시사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소망”에 관하여서는 시편 27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제가 전에 참 좋아했던 미국 복음성가 중에 “One Thing I Ask”(내가 구하는 것 한 가지)란 곡이 있습니다. 그 곡 1절만 제가 한국어로 번역해서 여러분 나눕니다: ‘내가 구하는 것 한 가지, 내가 찾는 것 한 가지 나는 주님, 당신의 집에 항상, 영원히 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당신을 보길 원합니다. 나는 한 가지를 구합니다. 나는 한 가지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을 보길 원합니다(3x). 이 시편 기자처럼 저도 하나님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일이란 곧 제가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하나님을 목상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3-14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것을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현대인의 성경)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꺾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개역개정)].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오직 한 가지 일만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우리가 해야 할 오직 한 가지 일은 무엇인지 목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3-14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계속해서 써 내려가면서 “그러나 한 가지 일만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현대인의 성경)(13절).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무슨 한 가지 일을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13b-14절). 바울이 분명히 하고 있었던 한 가지 일이란 바로 풋대 또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달리기 선수가 경주할 때에 골라인(goal line)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바울은 풋대(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달려가고 있었던 그 풋대(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that for which Christ Jesus took hold of me)(1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the upward call of God in Christ Jesus)(14절)이었습니다. 이 두 문구는 동일한 바울의 목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인 바울의 사명입니다. 바울은 이 사명에 붙잡힌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하늘의 사명을 붙잡힌바 되어 그 사명을 완수하고자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12, 14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은 바울의 사명은 무엇이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의 사명이 2중(twofold)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즉, 바울의 사명은 한 가지이지만 그 한가지에는 마치 동전에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그의 사명에도 양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사명의 한 면은 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 예수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완성하고자 사명에 불타올랐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감에 불타올랐던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의 또 다른 면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즉, 바울의 사명은 외부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므로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빌1:27).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0절을 쓰기 시작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현대인의 성경)[“I want to know Christ”(NIV)]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묵상한 3장 8절에서 바울이 말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과거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이었던 바울은(5절)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았었지만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는 줄을 몰랐었습니다(갈3:24). 특히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많았겠지만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을 몰랐었습니다.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몰랐었습니다(참고: 행9:20). 그래서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의 도를 따르며 전하였던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인 “사울아 사울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행9:4)란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박해하던 그리스도인들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을 때(20절), 그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빌3:8).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식”이란 머리로만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intellectual knowledge about Him)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용한 헬라어 단어(γνώσεως)를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경험적으로”(experientially) 또는 “개인적으로”(personally)아는 것을 말합니다(참고: 요10:27, 17:3; 고후4:6; 요일5:20). 또한 이 지식이란 그리스도와 나누는 삶과 동등합니다(갈2:20).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는 것(암3:2)과 그들이 하나님을 알므로 사랑하며 순종하는 것과 일치합니다(렘31:34, 호6:3, 8:2).

바울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에게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목표도 한 목표의 양면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얻”는 것(8절)과 “그 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현대인의 성경)[“그 안에서 발견 되”는 것(개혁개정)](9절)이었습니다. 바울은 전에 몰랐던 그리스도를 얻길 원하였고 또한 그는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 곧, 참으로 의를 얻은 상태”에 이르길 원하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영적 연합으로 인하여 이미 의를 얻은 상태였습니다. 즉,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영적으로 연합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의를 얻은 상태였지만 온전(완전)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도”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참으로 의를 얻은 상태가 장차 다가올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간절히 원하였기에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가 신뢰하던 육체의 것들인 모든 것을 해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겨 버렸습니다(8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분명히 하고 싶어야 하는 오직 한 가지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 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관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관찮소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관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관찮소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 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

[복음성가 “사명”]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하심을 얻은 자로서의 책임, 즉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의인의 삶은 버리고 또 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빌3:7, 8). 동시에 의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10절). 그 이유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므로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1:27). 이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므로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살 고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였는데(3:10) 여기서 그가 알기를 원했던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3가지로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0 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현대인의 성경). 여기서 바울이 체험하고 싶어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the power of his resurrection)은 무엇입니까?

한 2주 전 수요기도회 때 원로 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 10-11절 말씀 중심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는 제목 아래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때는 그 말씀을 받고 목양실에서 원로 목사의 설교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언제가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전도서 7:2). 우리는 몸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로마서 8:10). 즉, 우리의 몸은 "죽을 몸"입니다 (11절).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사람 아담의 죄(원죄) 때문입니다(5:12).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영은 살았습니다(8:11). 우리가 죽게 되면 몸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잠자는(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고전15:20).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23절)인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육체적으로 죽은 자들)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롬8:11). 부활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기에(11절).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고전 15:52),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23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빌 3:21, 참고: 요일3:2).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 합니까(고전15:58).”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과 사명을 받은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한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가 체험하길 원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것처럼 동일하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에게도 거하시기에 그는 동일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을 체험하길 원했습니다(롬8:11). 그가 그리 원했던 이유는 바울은 “이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의를 얻은 상태였지만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장차 다가올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참으로 의를 얻은 상태에 이르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우리는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할 것입니다(고전 15:51).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한 몸, 썩을 몸, 죄는 짓는 몸을 입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홀연히 변화하여 강한 몸,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42-44절, 52-54절). 주님께서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빌3:21). 마지막 날에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을 입고 우리 모두다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 올라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살전4:17). 이 부활의 영원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도 바울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길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길 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현대인의 성경).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 원했던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길 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로 사도 바울이 알기를 원했던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요? 2014년 10월 11일 토요일, 우리 교회 영어사역에 참석했었던 가연(Kelly) 자매의 사랑하는 둘째 딸 Eloise가 수영장에 빠져 죽을 뻔하다 살아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가연 자매는 자기의 딸이 온 몸은 시퍼렇게 되어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보고 충격 속에 있었을 때 한 외국인이 그 딸을 건져주고 CPR을 해줬었습니다. 그 때 가연 자매는 옆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사랑하는 아이는 죽을 뻔하다 살아났다고 가연 자매는 울면서 저에게 전화로 알려 주었습니다. 그 때 Eloise가 중환자실에 있었을 때 병원 침대에 앉아 있는 아이의 사진을 저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면서 또한 자매의 간증도 보내왔었습니다. 그 간증의 결론은 "결국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 ..."였습니다. 그 때 제가 좀 놀랐던 것 중 하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약 이틀 전 목요일(9일) 새벽 기도회 때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 중심으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즉시 건져 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했었습니다. 그 묵상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허락하시는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알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나 여러분이 지금 고난 중에 계시다면 한 3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시편 119편 71절을 보십시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고난의 유익이란 (a) 나의 그릇 행함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우리는 고난이 있기 전까지는 내가 그릇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마치 잘못된 길로 가는 양을 양치기 소년이 막대기로 쳐서 바른 길로 걷게 하듯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은 고난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시사 비뚤어가는 우리를 바른 길로 걷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b) 고난의 유익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보십시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2)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유혹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말씀을 지키므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소유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시 119:49-56).

(3)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는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대장장이가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려고(잠25:4) 은을 용광로에 넣고 높은 열을 가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려고(17:3) 우리를 "고난의 풀무 불"에 넣으시사(사 48:10) 우리를 단련하십니다(욘23:10).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 만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잠25:4).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곧 거룩한 "귀히 쓰는 그릇"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딤후2:21).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길 원했습니다(빌3:10). 흥미롭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

난 후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므로 그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었던 핍박 자가 이젠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자기가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길 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바울의 심경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기에 이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길 원하였을까요? 저는 그 대답을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즉,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길 원하였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로서 그 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받으신 고난에 남은 부분을 내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예수님처럼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우리 몸으로 겪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신다는 사실(롬8:17)과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35, 39절)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1:3-5). 그러면서 그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그 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라고 권면하였습니다(29절).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후 바울은 오늘 본문 3장 10절에 와서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기 위하여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첫째 이유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므로 순종함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2) 둘째 이유는, 바울은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롬8:18, 현대인의 성경).

우리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호1장). 또한 우리도 현재의 고난보다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셋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길 원하였습니다.

성서 이후의 종교 입문서들 제일선의 자리를 차지하는 책 3권이 있습니다. 그 3권은 바로 어거스틴의 “참회록”과 존 번연의 “천로역정” 그리고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란 책입니다.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란 책의 제 23장 “죽음을 명상하는 것에 대해”를 보면 저자는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하루하루를 오늘 죽음을 피하는 것보다 죄를 피하는 것이 더 쉽다. 또한 불행하게도 오래 살수록 우리의 죄는 더 늘어나기 쉽다. 죽는 것이 두렵다면, 오래 사는 것이 더 두려운 일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항상 죽음을 준비하라(눅21:36). 죽음의 날에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은 지혜롭고 축복받은 자이다. 자신의 영혼을 구제하는 일을 나중에 미루지 말고,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의존하지 말라.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데도 최선을 다해 살지 않는 것은 너무도 유감스러운 일이다. 죽음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려면 회개함으로 육신을 복종시켜라. 죽을 때 누가 그대를 기억할 것이며, 누가 기도해 주겠는가? 그러므로 나의 친구여,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라. 시간이 있을 때 자신을 위해 영원한 부를 축적하라(눅12:33). 오로지 구원에 관해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쏟으라. 죽은 후에 그대의 혼이 기쁘게 하나님께로 합일될 수 있도록 나아가라”(인터넷).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현대인의 성경).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길 원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한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Walvoord): (1) 그리스도가 죄를 위하여(for sin) 죽으신 것처럼 바울은 죄에 대하여(to sin) 죽은 자로서(롬6:2, 6-7, 골3:3)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 사람의 최악 된 삶으로부터 잘라내되 매일 삶 속에서 죄의 삶에 분리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롬6:1-4, 11-14). (2)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시다가 죽으신 것처럼 바울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유익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21절을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유익한 죽음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2:8) 바울 또한 주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싶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 마디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고 말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살면서 순교까지 하길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 생명의 피를 제사 술처럼 따라 붓는다고 해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여기서 “전제”(a drink offering)란 “제물 위에 붓는 술”로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의 피를 제물로 부은바 될지라도 자기 기뻐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박윤선). 그 말은 한 마디로, 바울은 자기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기뻐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본받은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라 생각합니다(1:25).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30절). 달리 말한다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했다는 말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었다는 말입니다(3:10). 이미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의롭다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온전한 의로운 상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미-아직도 사이에 살아가고 있었던 바울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MacArthur). 즉, 그는 성령 하나님의 성화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즉, 그는 예수님을 믿어 이미 의롭다하심을 얻는 “칭의”(justification)에 대해서 9절에서 말한 후 오늘 본문 10절에 와서는 “성화”(sanctification)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35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인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죄에 대하여는 점점 죽고 의에 대하여서는 점점 살게 되는 것이다”(인터넷). 우리의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으로 새롭게 됩니다(골3:10, 엡4:24). 우리의 성화는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놓여 자유롭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도달할 때 즉 우리의 영화의 단계에서 완성합니다. 이 성화의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1) 죽임: 우리가 점차로 죄를 죽여 나간다(롬6:11), 그리고 (2) 살림: 우리는 의를 향해 살아나간다(13절)(인터넷). 그러면 왜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칭함을 얻은 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사모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길 원했기 때문입니다(빌3:11).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미 의롭

다 함을 얻은 바울이 성화를 사모한 이유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길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이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한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실제로 육신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2)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런데 바울은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음으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났기에 그가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였다는 말은 육신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육신의 죽음에서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 순간에 자기의 죽은 몸이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을 입되 완전한 의로운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한 가지 일만을 분명히 하는 우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인 우리의 사명에 붙잡힌바 되어 그 사명을 완수하고자 달려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므로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하심을 얻은 자로서의 우리의 책임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은 버리고 또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므로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오직 한 가지 일만 분명히 하고 싶은,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드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그 날을 기다리면서)

뜻대를 향하여 쫓아가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빌립보서 3장 13-14절).

2004년 한해를 영원한 과거로 보내고 2005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에 앞서 위에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뜻대를 향하여 쫓아갈 것인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뒤에 있는 것을 잊어 버려야 하며 둘째로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뒤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육체의 신뢰"를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당시에 그는 어느 누구보다 육체의 신뢰할 만한 것이 온전했던 사람 이었습니다(5-6절). 그러나 바울 은 과거에 "유익하던 것"을 이젠 "다해로 여"겼습니다(7-8절). 둘째로, "뒤에 있는 것"이란 빌립보서를 쓰고 있기 전까지 주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이루신 일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한 사도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항상 "무익한 종"으로 여기는 가운데(눅17:10) 자기가 주님을 위하여 이룬 일을 잊어버리길 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주님께서 앞으로 더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제 자신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뒤에 있는 것', 즉 전에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들이나 또한 2004년 승리장로교회에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루신 일들을 다 잊어버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주님이 저를 먼저

세우고 계심에 있어서 아직도 자신의 육체의 신뢰할 만한 것들이 있다 면 다 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아가므로 육체의 신뢰할 만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새해 2005년도에 승리장로교회 가운데
또한 우리를 통하여 더 큰일을 행하실 것이기에 2004년도를 믿음으로 잊어버리길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쫓아갔습니다. 그럼 그가 말하는 "앞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한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앞에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의 사명(commission) 입니다. 즉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복음전파).
바울은 사명감이 뚜렷한 주님의 종이였고 또한 그 사명을 이름에 있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사도였습니다. 둘째로, 바울이 말하는 "앞에 있는 것"이란 한 마디로 죽음
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활의 권능을 알 수 있습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가운데 결국은 죽어야 부활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온전히 알 수 있습니까? 죽어 부활하여 천국에 올라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 맞대고 보아야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알고
싶어 죽음의 꾀대를 향하여 나아갔다 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주님이 그를 온전히 아시듯 그도 주님을 온전히 알고 있으리라 믿는
것입니다.

2004년 한 해, 주님께서 우리 승리공동체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을 붙잡고 이렇게 왔습니다(마16:18).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손길을 우리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에
나아가고 계심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04년을 영원한 과거로 보내려고
합니다.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새해 2005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한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기에 저는 2004년도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새해 2005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직 약속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이 궤대를 향하여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더욱더 알고자 죽음을 향해서 나아갔던 바울처럼 새해 사역을 감당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이 주시는 기대감 속에서)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빌립보서 3장 15-16절]

당신은 혹시 “성장 고통” 혹은 “성장통”(Growing pains)이란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성장통이란 “어린이나 청소년이 갑자기 성장하면서 생기는 통증. 또는 그와 비슷한 현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주로 양쪽 무릎이나 발목, 허벅지나 정강이, 팔 따위에 통증이 생긴다고 합니다(인터넷). 주로 4-12세 어린이들의 10-20%가 성장 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성장 통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겪어야 할 과정입니다(인터넷). 즉, 아이가 자라나가 위해선 겪어야 할 고통이란 말입니다.

“아직도 가야할 길”이란 책을 쓴 저자 대니얼 고틀립은 이러한 말을 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위대성의 척도는 고통을 감수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위대한 사람은 고통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래서 고통은 곧 기쁨이라는 역설이 성립하는 것이다”(인터넷).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한 사람의 위대성의 척도는 고통을 감수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선 우리 각자가 겪어야 할 고통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자라나기 위해서 성장(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선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무엇이든지 간에 만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성장을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는 그 고통들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고통들을 우리의 신앙 성장에 유익되게 해야 합니다. 고통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 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고통의 길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5-16절 말씀 중심으로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들

이 되십시다”란 제목 아래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교훈을 겸손히 받아 순종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서 더욱더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대답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4장 20절을 보십시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삼십 배나 육십 배나 백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좋은 땅”과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과 같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뿌려 졌다는 것은 한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1)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20절) 그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16절). (2)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를 받을 때에 오래 견디며 넘어지지 않습니다(17절). (3)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하여금 말씀을 막지 못하도록 싸워 승리하면서 열매를 맺습니다(19절).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관심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for their progress and joy in the faith)이었습니다(1:25). 어느 정도로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에 관심을 가졌냐면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자기가 이 세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까지 말하였습니다(24절, 현대인의 성경).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고 또한 그는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23절)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이 세상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할 필요하다고 까지 말하였습니다(24-25절). 그 정도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1:8)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큰 관심을 가지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5절에 와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합니다”(현대인의 성경).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2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 (1)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란 말씀에서 ‘성숙하다’[mature(NIV), perfect(NASB)]란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성숙하다’란 단어의 의미는 달리기에 있어서 충분히 적합하다(one fully fit for running)는 의미가 있습니다(Jamieson). 성경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보십시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현대인의 성경) "운동선수가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이 성숙한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자란 신앙의 경주를 달림에 있어서 충분히 적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알고 또한 그 법을 따라 신앙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믿음이 성숙한 자가 이미 다 경주를 완주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말한 것처럼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지금도 신앙의 경주를 하나님의 법을 따라 달리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 (2) 바울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는데 여기서 “이와 같은 생각”은 어떠한 생각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알기 위해선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5절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한 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러므로”란 접속사는 그 이전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에 대한 결론적인 적용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4절에서 한 말에 대한 결론적인 적용으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생각”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생각을 3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현대인의 성경). 여기서 우리는 3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믿음이 성숙한 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즉,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2) 믿음이 성숙한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자기가 구원 받은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 받음에 있어서 자신의 공로가 하나도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할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악한 것"입니다(고후11:30). 믿음이 성숙한 자는 사도 바울처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사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갈6:14).

(3) 믿음이 성숙한 자는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을 신뢰합니다.

둘째로,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현대인의 성경]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바울처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진리를 압니다. 그러므로 그는 바울처럼 2가지를 추구합니다. 그 2가지란 이렇습니다:

(1)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신뢰하던 육적인 것들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다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쓰레기)로 여깁니다(8절).

(2)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는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10절).

셋째로,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꺾대(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십시오: "꺾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현대인의 성경)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3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소명의식이 분명합니다.

그는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에 있어서 자기의 생명도 주님께 받칩니다.

(2)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사명감이 투철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신 일을 심부름함에 있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완수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명에 이끌림을 받지 결코 환경에 이끌림을 받으면서 우왕좌왕 하지 않습니다.

(3)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갑니다.

그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13절)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14절, 현대인의 성경). 그는 목적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삽니다.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분명한 소명의식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이유는 그가 결코 그가 사람들에게 칭찬이나 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간절히 원하는 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14절). 과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부름의 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 디모데후서 4장 7-8절을 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현대인의 성경)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뿐입니다. 이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상은 바로 “의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여기서 “의의 면류관”이란 것은 “신자가 믿음으로 받을 의의 내세적 완성에 의하여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함을 상징”합니다(박윤선).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분명한 소명의식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을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저 천국에 올라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빌립보 교회 안에는 바울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좀 짐작할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5절 하반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현대인의 성경) "... 만일 여러분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과 믿음이 성숙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생각과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 안에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한 2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안에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과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성숙한 사람들입니다(Ash).

이 미성숙한 성도들은 바울과 믿음이 성숙한 교회 성도들처럼 같은 3가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3가지 생각이란 우리가 이미 목상한 것처럼 (1)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것과 (2)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 그리고 (3) 뜻대(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미성숙한 성도들은 바울처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하지 않았습니(13절). 오히려 그들은 뜻대(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뒤에 있는 것을 기억하며 그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MacArthur).

둘째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안에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과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12절)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내가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Jamieson).

이들은 자기 자신들을 너무 과대평가한 것입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 것도 얻지 못하였다'(He who thinks that he has attained everything, hath nothing). 아마도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 사람의 삶대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영두해 두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3:2)(Jamieson). 바울은 이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5절 하반절에서 “...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God will reveal that also to you)”고 말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기와 믿음이 성숙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생각과 달리 생각하는 미성숙한 성도들에게, 아직도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계시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믿음이 성숙한 자들처럼 진리에 근거한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

다는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자기와 믿음의 성숙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생각하지 못하고 달리 생각하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계시해 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가 그리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면서(1:4) 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6절).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 미성숙한 형제, 자매들에게 말을 한 후 오늘날 본문 빌립보서 3장 16절에 와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현대인의 성경)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든지 지금까지 따른 법칙에 따라 계속 그대로 살도록 합시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믿음이 성숙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든 지간에 지금까지 따른 법칙에 따라 계속해서 그대로 살아가자가 권면한 것입니다. 즉,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에게 ‘우리 함께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계속해서 진리의 원리에 따라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어 나아가자’고 권면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그리 권면한 이유는 교회 안에 성숙한 성도들로 하여금 미성숙한 성도들과 함께 교회의 연합성(통일성)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Ash).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비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뜻대(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성숙한 믿음을 추구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빌립보서 3장 17-21절]

오늘 우리는 2015년 마지막 달인 12월 첫째 주일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것은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이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위하여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란 표어를 내걸고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2015년 마지막 달을 맞이하여 금년 한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금년도 표어대로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과연 우리가 금년도 목표대로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해를 하나님 앞에서 잘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저는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것도 힘든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한다는 것은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년 한 해를 뒤돌아 볼 때에 오직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히려 저는 보이는 것, 상황과 환경에 치우쳐서 의심하며 심지어 불신까지 한 적이 많았던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한 면으로 생각하며 부끄럽지만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저의 연약한 믿음과 믿음 없음을 들춰내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목사가 금년 한 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으니 여러분에게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가 먼저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특히 지난 몇 주 동안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되십시오”라는 제목 아래 빌립보서 3장 15-16절 말씀을 여러 차례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 그것이 저의 작은 심정입니다. 즉, 제 자신부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고 또한 여러분도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되시길 기원하여 함께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설교 제목을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 되십시오”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히12:2)(Let us fix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2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도 예수님을 본 받아 우리 모두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현재의 부끄러움과 우리 각자가 지고 있는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십시오. 믿음으로 견디며 인내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추구할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본받는 우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7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란 제목 아래 과연 우리가 바울에게 본받아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 한 3가지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7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현대인의 성경)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본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왜 당신은 그 사람을 본받고 싶은 것입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본받고 싶은 이유는 아마도 그 사람을 존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하는 이유는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어느 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보니까 존경하는 인물과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나눕니다(인터넷):

- <베토벤> 열정을 쏟아 부어 얻어낸 악성 타이틀
- <앤드류 카네기> 함께 나눌 줄 아는 비즈니스맨
- <록펠러> 관용은 과거에 대한 용서인 동시에 미래에 대한 투자
- <윈스턴 처칠> 적을 한 순간에 내편으로 만드는 여유와 위트
- <벤저민 프랭클린> 인생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바울을 본받고 싶습니다. 제가 그를 본받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은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공부를 하다가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편지들에 대해서 배우다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바울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그분이 쓴 편지들을 통하여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주님이 주신 사명에 불타올랐는지 조금이나마 엿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 저도 그분처럼 사명에 불타오르는 사역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7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빌립보서 2장 5-11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강력히 권고하였는데 이렇게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7절에 와서는 자기를 본받으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Melick).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했다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강력히 권면하였는데 그 뜻은 무엇이며 그가 그리 강력하게 권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대답을 우리가 이미 묵상한 빌립보서 3장 15-16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한 말의 뜻은 자기처럼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15절, 현대인의 성경). 그가 그리 말한 이유는 빌립보 교회 안에는 믿음이 성숙한 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그들을 염두해 두고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권면한 것입니다(이미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은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를 본받고 있었기에). 그런 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권면한 후 이렇게 17절 하반절에 와서는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란 바로 바울과 더불어 경건의 모범을 보여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미 언급한 디모데(2:19-22)나

에바브로디도(25-30절)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뿐만 아니라 특별히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도 본받으라고 권면한 것일까요? 디모데의 경우에는 그 이유는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2:21). 이 의미는 2가지입니다:

(1)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본받으라는 디모데란 인물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과 “뜻을 같이”한 사람(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품고 있었던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5절). 그 마음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8절).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로서 그들은 자기들을 보내신 주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었고 또한 뜻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야말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라고 믿었기에 그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자 하였습니다(20절). 여기서 “진실히”(genuinely)란 말은 “아들에게 대한 아버지의 성실함의 의미”합니다(박윤선). 마치 아버지가 아들의 사정을 성실히 생각하듯이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성실히 생각할 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도 본받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2) 디모데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였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22절을 보십시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서 성경 개역개정판은 “디모데의 연단”이라고 번역하였고 현대인의 성경은 “디모데의 훌륭한 인품”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연단” 또는 “훌륭한 인품”이란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시험을 통하여 인정을 받다’(Pfeiffer)]라는 의미입니다. 디모데는 시험 또는 연단을 통하여 그의 인품이 훌륭하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인정받되 어쩌면 디모데는 “환난의 많은 시련”(고후8:2)을 겪고 믿음으로 인내하여(롬5:4) 그 시련을 통과하므로 그 인품이 단련되었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훌륭한 인품을 가진 자로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고 인정하는 디모데의 훌륭한 인품은 바로 빌립보서 2장 20절에 바울이 말한 ‘진실함’이었습니다(빌2:20). 이러한 진실하고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었던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습니다(22절).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도 본받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면 에바브로디도의 경우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도 본받으라고 권면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3가지입니다: (a)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빌립보 교회의 사자로서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였습니다(25절). (b)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하였고 또한 심히 근심하였습니다(26절). (c)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자였습니다(30절).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동역자들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본받아 생활하는 사람들을 눈여겨(지켜)보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다’(mark)라는 단어의 의미는 ‘갈망(바람)이나 흥미를 가지고 무엇인가 또는 누구엔 가에 집중(주목)하라(to fix the attention upon with a desire for or interest in)는 뜻입니다(Wuest). 이 단어는 빌립보서 2장 4절에도 나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돌보다’(look to)란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을 돌보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집중(주목)하라는 말입니다(SeVincent).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신들의 삶의 모범(pattern)에 그 성도들이 집중(주목)하여 본받길 원하였습니다(MacArthur). 한 마디로, 간략하게 말한다면 바울은 모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와 자기의 동역자들의 그리스도 중심된 삶의 패턴에 집중하여 거울로 삼고 그렇게 살라고 권면한 것입니다(참고: 살전1:7, 고전10:6).

우리가 거울로 삼고 있는 신앙의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과연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그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새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4절 가사가 우리의 소원기도가 되어 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사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고 있는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을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로 삼고 본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바울처럼 그리스도 중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선배의 삶의 패턴에 집중하여 거울로 삼고 그 분처럼 살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고전11:1, 현대인의 성경)라고 사랑하는 신앙의 후배들에게 말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바울에게서 본받아야 할 점은 그는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바울의 눈물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것처럼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 번 말했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조선일보 애플랜타에 실린 사설 칼럼 중 “여자가 눈물 흘릴 때”란 제목의 기사가 있어 읽어보았습니다(인터넷). 그 기사 내용에는 보통 여자들은 남자보다 눈물이 많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여자가 남자보다 슬픈 상황에서 우울함을 전달하는 신경세포의 활동이 8배로 눈물 분비를 돕는 프로락틴 호르몬도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의 눈물, 아내의 눈물을 보는 것입니다. 여자는 이유 없이 우는 경우도 있고 작은 일로 울기도 하고 또한 보호를 위한 본능으로 울고 짜증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생리적인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고 말하면서 과연 눈물이 유익한 것인지 무익한 것인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실제 눈물은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울고 나면 기분이 전환되며 상당한 스트레스가 털린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익한 눈물과 무익한 눈물을 구분할 때 먼저 무익한 눈물이란 하품하면서 흘리는 눈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는 없지만 제가 흘리고 싶은 유익한 눈물이 있습니다. 그 유익한 눈물이란 바로 3가지입니다. 그 3가지 눈물이란 바로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헌신의 눈물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유익한 눈물도 내 자신이 흘리고 싶어서 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감동, 감화, 역사하셔야 그 유익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눈물 외에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 한 예로 ‘기도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사야 38장을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1절)는 말씀을 듣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며 간구하였습니다(2-3절). 그 결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눈물을 흘렸던 히스기야의 수한을 15년을 더해주셨습니다(5절). 또 다른 예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녀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였습니다(10절).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눈물의 간구를 기억하시고(19절) 허락하시사(17절) 그녀에게 사무엘이란 아들(20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사무엘뿐만 아니라 다른 6명의 자녀들도 선물로 주셨습니다(2:5). 이러한 ‘기도의 눈물’ 외에도 성경에는 ‘사랑의 눈물’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예가 바로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인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Jesus wept).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 이유는 나사르가 죽은 후 그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33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로마서 12장 15절 하반 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수님께서서는 울고 있었던 마리아와 온 유대인들과 함께 우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눈물입니까. 우리도 이러한 눈물을 흘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8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 번 말했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는데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 한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서 여러 번 말한 것을 보면 그에게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이야기라 생각됩니다. 특히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권면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차리고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17절). 그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한 이유는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를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 즉 그릇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들어와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그들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29-30절). 그릇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된 선생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빌3:18).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가르쳤던 그릇된 가르침은 바울이 선포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와 반대되는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쳤던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짓이었습니다. 이러한 거짓에 속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18절).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 복음의 원수들이 있음을 생각하고 큰 근심을 품고” 울었던 것입니다(박운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므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제 와서 그들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하고 인간의 노력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짓말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바울처럼 큰 근심을 품고 울지 않겠습니까. 특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3년 동안이나 헌신하여 밤낮 쉬지 않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눈물로 훈계하였는데 자기가 그 교회를 떠난 후에 그릇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여 복음을 떠나 거짓을 따르게 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이 상황을 좀 더 피부로 느끼기 좋은 예는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선을 다하여 가르치고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이가 되어 부모를 떠나 독립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났을 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겠습니까. 큰 근심 속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눈물로 자녀를 권면하고 훈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번” 말한 후에 또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후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해서 한 4가지로 말하였습니다:

(1)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현대인의 성경)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여 인간의 노력과 행함인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릇된 것을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의 마지막(결국)은 영원한 멸망(eternal damnation)이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익히 들어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간의 노력과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이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니면 멸망하겠습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요 성경은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빌 3:19).

(2)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보십시오: “... 그들의 신은 배요 ...”[(현대인의 성경) “...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자기 자신들의 육체적인 욕망과 절제할 수 없는 폭식(과식)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Walvoord).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인 로마서에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롬16:18). 이렇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은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벧후 2:10). 그들은 마치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12절) “악한 짓”을 하되(13절) 그들은 대낮에도 “흥청대는 것을 낙으로 여기며” 사람들을 속이고 “쾌락을 즐기는 더러운 사람들”입니다(13절). 또한 이들의 “눈은 음란으로 가득차서 끊임없이 죄를 짓”으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꺾어 욕심을 채우는데 단련된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14절).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잘못된 길에 빠져” “악한 방법으로 얻는 재물을 사랑”합니다(15절).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길에서 겨우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정욕으로 꺾어 죄를 짓게 합니다”(18절). 또한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멸망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19절).

(3)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수치를 영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보십시오: "...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현대인의 성경) "...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이 자기들의 수치요 또한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또한 자기들의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영광으로, 자랑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죄를 좋게 여기고 교만하니 그것은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죄를 영광으로 여김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죄를 좋게 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를 부끄러워하기보다 죄를 영광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죄의 수치를 죄의 영광으로 여깁니다. 성경 다니엘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들도 있겠지만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바울이 말한 "수치를 영광으로" 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에게 적용한다면 그들은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4)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세상적인 일만을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보십시오: "...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현대인의 성경)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였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땅의 것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므로 결코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적인 일만 생각하며(빌3:19) 세상 것들에 애착합니다(박윤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6-17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심과 삶에 대한 자랑은 모두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것에 대한 욕망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현대인의 성경).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 자기 뜻(맘)대로 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되 그들은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심과 삶에

대한 자량을 추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세상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결국에 가서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바울에게서 본받아야 할 점은 그는 하늘 시민권 자로서 하늘에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현대인이 성경)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자기를 함께 본받으라 또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본받으라, 그리고 자기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본받은 빌립보 교회 안에 성숙한 성도들을 눈여겨보라고 권면한 후 18절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런 후 이렇게 20절에 와서 사도 바울은 다시금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기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모두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19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18-19절)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자기와 자기의 동역 자들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대조를 하는 목적은 그들 중에 믿음이 미성숙하여 유혹에 넘어갈 위험이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여러 사람들"(18절)을 본받지 말고 이미 영생을 얻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늘로부터 오실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들 또한 동참케 하고자 하려고 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는 지금 하늘에서부터 장차 오실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 후 오늘 본문 21절에서 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만물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주님께서서 큰 권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2-53절에서 말한 것이 아닙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는 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는 모두 변화

될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몸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현대인의 성경).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몸의 속량”(the redemption of our bodies)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1-13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녹아 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천체도 그 열로 녹아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의만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은 하늘에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홀연히 변화되어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제와 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은 주님 안에 굳게 서십시오”

[빌립보서 4장 1-5절]

당신은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니까? 성경 이사야 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If you do not stand firm in your faith, you will not stand at all.).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고전16:13).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길 기원합니다(시119:133). 성경은 야고보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내하며 참고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 굳게 서십시오”(Therefore, my brothers, you whom I love and long for, my joy and crown, that is how you should stand firm in the Lord, dear friends!).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계속해서 써 내려가면서 그들을 가리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비슷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20절에도 나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현대인의 성경)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가 우리의 희망과 기쁨과 자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며 기쁨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의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었습니다. 바울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면 바울의 기쁨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1장 25절을 보면 바울의 기쁨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기쁨이 성장하면서 그들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바울의 기쁨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면서 성령님으로 교제하는 것(1절), 그들이 한 마음 한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2절)(현대인의 성경). 또한 2장 17절을 보면 바울의 기쁨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자기가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즉, 바울의 기쁨은 그가 전도하여 구원받은 영적인 자녀들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4:1).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면류관”이었습니다(1절). 무슨 뜻입니까? “면류관”이란 사도 바울 당시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 중 오직 일등 한 사람만 받는 상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25절을 보십시오: “경기장에서 여러 선수들이 다 함께 달리지만 우승자는 하나뿐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우승자가 되도록 힘껏 달리십시오. 우승자가 되려고 경쟁하는 선수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현대인의 성경). 또한 “면류관”이란 존 맥아더 목사님에 의하면 연회에서 한 사람이 그의 성공이나 생상적인(열매 맺는) 삶의 상징적인 의미로 그의 동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맥아더).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노력이 열매를 맺었다는 증거이기에 그는 그들에게 ‘나의 면류관’(빌4:1)이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의로의신 뜻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형제, 자매들이 바로 우리의 면류관이 아닌가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과 면류관은 바로 구원받은 영적 자녀들인 형제, 자매들입니다.

바울은 사랑하고 사모(그리워)하며 그의 기쁨과 면류관이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 굳게 서십시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였습니다(1절). 그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제 생각엔 그 이유가 두 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유는 빌립보 교회 내부적인 이유였고 동시에 둘째 이유는 외부적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먼저 빌립보 교회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지 못했던 외부적인 이유란 우리가 이미 목상한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바울이 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개들”,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육체를 신뢰하는 유대주의 자들입니다. 또한 같은 장18-19절에서 바울이 말한 “세상적인 일만 생각”하며,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지 못했던 내부적인 이유란 무엇이였습니까? 성경 빌립보서 1장 15절, 17절과 2장 3절에서 알 수 있듯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투기와 분쟁”(1:15)과 “순수하지 못하게 다름으로 그리스도를 전파”(17절)하며 허영으로 하는(2:3)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게”란 두 여인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까지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주님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현대인의 성경)]라고 권면한 것을 보면 빌립보 교회 내부적으로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절에 와서 그들에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빌립보 교회 형제들이었기에 또한 그들은 바울의 기쁨과 면류관이었기에 그들에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 굳게 서십시오”란 제목 아래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4가지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현대인의 성경) “유오디아와 순두게 두 사람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교회란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무로 비교한다면 나무가 굳게 서기 위해선 나무의 뿌리가 시냇가에 깊이 심겨진 것처럼 교회도 반석이 되시는 주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계속 그분 안에서 사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박고 그분을 기초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선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박고 그분을 기초로 우리의 인생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생각납니다(24절). 그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었으므로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물어 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25절, 현대인의 성경). 어떻게 우리는 우리 집을 그 지혜로운 사람처럼 반석 위에 지을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므로 가능합니다(24절). 만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은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집을 모래 위에 짓고 있는 것입니다(26절). 만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교회를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치면 크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27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교회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선 반석이 되시는 주님 안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선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2절 하반절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현대인의 성경) “유오디아와 순두게 두 사람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개혁 개정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번역했고 현대인의 성경은 “주님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두 여자인 유오디아란 사람과 순두게란 사람이 주님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은 서로 다른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그 두 여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까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좀 상상이 되십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는 두 여자들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각각 다른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요? 이것을 가정에 적용한다면, 만일 집 안에 두 딸이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서로 각각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현대인의 성경)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이미 서로 갈라져 싸우는 것이니 그렇게 하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또한 마가복음 3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각자의 마음대로 서로 분쟁하면 그 교회는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영전 안정감은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화합하며,

화평(화목)하느냐에 달렸습니다’(Spiritual stability depends on the mutual love, harmony, and peace between believers)(MacArthur).

그러면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게란 여자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기에 바울이 그들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을까 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대답이 빌립보서 2장 3-4절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현대인의 성경)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유오디아와 순두게란 여자들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에게는 “겸손한 마음”이 없었고 오히려 “허영”심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녀들은 교만한 마음과 허영심 속에서 자기를 남보다 더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 돌보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잘 돌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즉, 그녀들은 각각 자기 이익만 생각하였지 남의 이익을 잘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그들 사이에는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두 여인의 다툼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녀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까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해야 할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미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한 마음, 같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품어야 할 같은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로 성경 빌립보서 2장 6-8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6절). (2)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자신을 비워 종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7절). (3)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자신을 낮춰서 죽기까지 주님께 복종 하는 것입니다(8절).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교만한 사람의 높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결코 만족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는 허영심은 결코 만족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영광을 탐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사 자기를 낮추시고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무릎으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꿇게하셨습니다(9-11절). 명심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보다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높임을 받기 위해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선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언젠가 영어사역 금요일 성경공부 시간에 Jin 형제가 각자 자신의 영적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자 무슨 종이를 준비하여 그 그룹을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날 밤에 성경공부를 마친 것을 보고 저희 집 딸 예리와 예은이만을 데리고 차타고 집으로 가면서 그 날 밤 성경공부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영적 은사 발견에 관하여 공부했다고 하길래 그러면 너희의 은사는 무엇이라고 결과가 나왔는지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예리만 대답을 하면서 자기의 은사가 한 3가지로 나왔다고 하면서 저에게 말해 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고전12:4). 또한 성경은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과(5절) 다양한 사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6절). 그래서 제 개인 생각에는 각자가 주님께 받은 은사대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좋고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를 최대한 발휘하여 극대화(maximize)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계기는 역기를 드는 운동을 하는데 제가 어느 정도의 무게를 드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어도 좀 더 무거운 역기를 들려고 시도하면서 제가 들 수 있는 역기 무게를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극대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나 저의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하도록 극대화 해야겠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 안에는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과 16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말라”[(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받은 선물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수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낮고 천한 사람들의 벗이 되십시오. 스스로 잘난 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서 은사로 말미암아 분쟁이 있을 수 있는 이유 4가지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 4가지란 (1) 우리가 받은 은사는 주님께서 “은혜대로” 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 (2) 우리가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3) 우리가 은사를 분수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것, (4) 은혜로 받은 은사를 교만한 마음으로 사용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잘난 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들 중에 ‘돕는 은사’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those able to help others)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교회란 공동체 안에 서로 돕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있어서 각각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직분과 의무를 겸손히, 묵묵하게, 신실히 감당할 때 교회에 큰 유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로마서 16장 2절에 나오는 뵈뵈라는 여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추천한 이 뵈뵈란 여인을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소개를 하였는데 여기서 “보호자”란 ‘여성 후원자’로서 뵈뵈란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로 바울과 여러 사람을 도와주는데 헌신한 일꾼이라고 묘사 하였습니다(Friberg). 존 맥아더 목사님에 의하면 초대 교회 당시 여자 일꾼들은 병든 신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 및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MacArthur). 교회 안에 돕는 은사를 가진 일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뵈뵈처럼 여러 사람들을 도우므로 말미암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세움을 받아 사랑이 식어져 가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칭찬하며 로마 교회에 추천하는 뵈뵈라는 여인을 생각할 때 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이 생각났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생각난 이유는

“뵤뵤”란 이름의 뜻이 바로 ‘밝고 빛나다’(“bright and radiant”)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뵤뵤라는 이름의 뜻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밝고 빛을 내야 하는 하나님의 빛 된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뵤뵤란 여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도우면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일꾼들이 다 되어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3절을 보십시오: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나의 신실한 동역자인 여러분도 이 여자들을 도와 주십시오. 그들은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참으로 자기와 함께 명예를 같이한 사람에게 “저 여인들”을 ‘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과 함께 명예를 같이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에게 “저 여인들”을 도우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느 주석에 의하면 그 사람은 디모데나 실라(행15:40, 16:19)였는지 혹은 빌립보의 제일 높은 감독(the chief bishop)였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또는 그 사람이 “명예”란 헬라어 단어인 “synygyus”란 말 그대로 이름이 “Synzygus”였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Jamieson). 그러나 이것은 확실치 않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언급한 “나와 명예를 같이한 네”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에게 특별히 “저 여인들”을 도우라고 권면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저 여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이 2절에서 이미 언급한 유오디아와 순두게 입니다. 바울은 이 두 여인들이 클레멘드와 자기의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자기와 함께 “수고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3절, 현대인의 성경) 그 두 여인들을 도우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가 아니라 참으로 자기와 함께 명예를 같이한 누구인지 우리는 모르는 그 한 사람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게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우라고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울이 그 두 여인을 도우라고 권면한 그 한 사람이 참으로 자기와 함께 명예를 같이하였다고 말하였는데 여기서 “명예”란 원어 헬라어 단어(synzygus)가 합성어란 사실입니다. 이 단어는 ‘함께’란 단어와 ‘일하다’란 단어가 합친 것으로서 그 의미는 “동역자”(fellow laborer or worker) 또는 “돕는자”(helper)입니다(Zodihiates). 여기서 “돕는자”란 의미의 단어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용하였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더욱

급히”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28절) 나서 그로 하여금 유오디아와 순두게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우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그 두 여인을 무엇을 어떻게 도우라는 말인가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게란 두 여인들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주님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면서 또한 복음 전하는 일에 수고하고 있는 여 성도님들 중 두 분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있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 두 자매님들을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저는 그 두 자매들이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우리는 그 두 자매님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peacemakers)이 되어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향한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을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원수로 만들었던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폐지하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화목하게 하고 또 십자가로 그들의 적개심을 죽이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이방인이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에게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현대인의 성경). 또한 우리는 그 두 자매들에게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3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들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줘야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영생을 얻고 천국 시민권자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다른 마음을 품어서야 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 즉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며 화목, 화합하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성령님께서 그 두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사 그들 마음에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는 허영심이든 다름이든 모든 요소를 회개케 하시고 버리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시사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어 화목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두 사람의 화목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덕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지역 사회에도 한 마음을 품은 공동체로서 덕이 되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후 바울과 멩예를 같이 한 그 사람이 유오디아와 순두게를 도울 수 있는 것은

그녀들과 함께 복음 사역에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나의 진실한 동역자인 여러분도 이 여자들을 도와 주십시오. 그들은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게가 자기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지금 그들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는 것은(2절) 복음 사역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2절에서 그 두 여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강력하게 권면한 후 이렇게 3절에 와서는 그 두 여인을 도우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함께 동역할 때에 참으로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한 뜻)을 품고 화목, 화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다투고 분열하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한다면 그것은 복음 전달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선 우리가 서로 도와야 합니다. 서로 돕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은(한)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복음화에도 덕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 사역에 힘쓰는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는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당신은 항상 기뻐하십니까?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는 가능합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희락”을 구해야 합니다(갈5:22).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접하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바로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입니다: “...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현대인의 성경)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Do not grieve, for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제가 개인적으로 기쁨에 관하여 생각할 때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이 제 삶에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과연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자문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저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과연 나의 힘인지도 자문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문맥에 근거해서 한 3가지로 목상했었습니다:

(1)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슬퍼하지 말며 울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 느헤미야 8장 9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모세의 율법을 듣고 또한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 율법을 깨닫게 될 때에 자기들의 죄가 들춰지므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통하여 죄의 자각(conviction of sins)이 있으므로 울었습니다. 에스라도 이러한 눈물을 흘린 기록이 에스라 10장1절에 나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매 ...”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자각으로 인하여 울고 있을 때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일 이니 슬퍼하며 울지 말라 고 권면했습니다. 지금 현대 말로 한다면, 목사님을 통하여 또한 성경공부 교사 선생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목사님과 장로님과 교사 선생님들이 ‘오늘은 주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한 것 같은 것입니다.

(2)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느헤미야 8장 10-11절을 보십시오: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왜 수문광장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심을 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하였던 이유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무엇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지 잘 모르면서 오랫동안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Packer). 조만제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근심을 이기는 슬기”가 있습니다: “세익스피어가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라고 역설한 것처럼 근심이 지속되는 한 사람은 행복할 수 없고 즐거움을 가질 수 없다. 근심은 건강에 지장을 주어 생명을 단축시키고, 인간으로 하여금 새로운 창조적인 일에 전념할 수 없도록 만든다. ... 널리 알려진 이솝도 “안심하면서 먹는 빵 한 조각이 근심하면서 먹는 잔치보다 낫다”고 말하였다”(인터넷). 맞습니다. 근심은 우리에게 힘이 되기보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연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쳤던 레위 사람들은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본문에서 두 번이나 말하였습니다(9, 10절). 우리가 잘 아는 복음사가 “이 날은”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 날은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주일 주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들춰지므로 근심할 수 있고 또한 근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근심은 우리의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므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므로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느헤미야 8장 12절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았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 율법을 깨닫게 했던 레위 사람들을 권면을 듣고 슬픔과 눈물과 근심을 그치고 “크게 즐거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입니다(12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과 눈물, 근심을 사라지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모세 율법을 밝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모세 율법은 우리에게 죄의 자각, 즉 죄를

깨닫게 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갈3:24). 즉, 모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며 그 모세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밝히 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과 눈물과 근심을 중단하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의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마음이 찢려 죄를 회개 하는 가운데 눈물과 슬픔,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는 회개의 단계는 시작 단계이지 결코 최종의 단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최종의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 사함 및 구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마음에 모든 슬픔과 근심을 주님께서 없애주시는 평강의 축복을 누립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Rejoice in the Lord always. I will say it again: Rejoice!).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는 2장 17절에서 “...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리고 3장 1절 상반절에서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였는데 이렇게 오늘 본문 4장 4절에 와서 또 다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 기뻐하라고 말하였을 때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처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면서(1:5)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오는 고난을 받는 상황에서도(28-30절)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 대답이 빌립보서 1장 29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현대인의 성경)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대적자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에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기쁨이 무엇이었는지 한 다섯 가지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바울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기원합니다.

(1) 바울의 기쁨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는 간구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기쁜 마음으로 간구하였습니다(1:4).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첫날부터 이제까지” 함께 기쁜 소식(복음)을 변호하고(7절) 전하는데 참여(협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5절). 이렇게 바울은 자기와 함께 협력하여 복음 전하는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처럼 대적자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주님 안에서 기뻐한 것입니다(28-30절).

(2) 바울의 기쁨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그는 “...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말하였습니다(18절). 바울은 자기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형제들 중 다수가 주님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고(14절) 또 다른 이들은 바울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름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지만(17절) “그릇된 동기에서든 참된 동기에서든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므로 (18절, 현대인의 성경) 그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였고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므로 기뻐하였습니다.

(3) 바울의 기쁨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기쁨의 진보입니다.

바울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고 그리 원했지만(23절)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25절) 자기가 이 세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더욱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24절,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2장 17-18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 생명의 피를 제사 솔처럼 따라 붓는다고 해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4) 바울의 기쁨은 빌립보 교회가 사랑으로 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면서 성령님으로 교제하는 것(2:1), 그들이 한 마음 한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2절)(현대인의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성령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닌가요? 가정에 적용할 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자녀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갈 때 얼마나 기뻐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몸 된 교회 식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 갈 때 얼마나 기뻐시겠습니까. 이러한 기쁨이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지 않을까요?

(5) 바울의 기쁨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자기가 희생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2:17).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며 사모하는(1:8) 형제, 자매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25절)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2:17).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서있기 위해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은 주님의 몸 된 교회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우리 모두가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에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온 교회 식구들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며 겸손히 섬기며 주님 안에서 화목할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선 우리는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현대인의 성경)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관용”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이버 사전을 보면 관용이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네이버 사전). 저는 “관용”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적어도 두 가지 위험한 관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첫째로 위험한 관용이란 바로 ‘성적 관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성적 관용은 바로 동성애에 대한 관용을 말합니다. 적어도 우리 1세대 어른들은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을 알고 동성애가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2세대 젊은이들은 동성애자들은 우리와 다른 그들만의 생활방식(lifestyle)이니까 존중하고 관용(tolerance)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 동성애를 완전한 생활의 형태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편견에 가득 찬 소인배 취급을 당하거나 “동성애혐오자”(Homophobic)라고 불립니다. 또한 누군가 남녀 간의 결혼만이 정상이고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면 구시대적이고, 억압적이고, 현대 문화에서 완전 벗어난 사람이라고 맹렬히 공격을 당합니다(인터넷).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유명한 필리핀 권투선수가 동성애에 대한 발언을 했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소셜 미디어에 올렸던 사과문을 내리고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근거가 되는 성경구절들을 올렸다가 또 다시 비난과 언론의 난타를 당하였습니다(인터넷).

(2) 둘째로 위험한 관용이란 바로 ‘종교적 관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대에 기독교가 처한 큰 위험과 위기는 무엇보다 종교적 관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인터넷). 화해, 일치, 화평, 하나됨, 나눔 등이란 명분 아래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 일치 운동 같은 것을 보면 이 종교적 관용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의 노력 등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다면 어떻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위험한 관용을 생각할 때 관용도 진리 안에서 해야지 진리 밖에서 하는 관용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용이란 진리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그들에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용”이란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법이나 관습의 모든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BDAG) 또는 ‘양도하다, 배려하다’(gentle, considerate)는 뜻입니다(Swanson). 이 단어가 오늘 본문 외에 신약에 몇 군데 더 나옵니다.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3장 3절을 보면 바울이 감독의 자격에 대하여 말하면서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관용을 베푸는 교회 지도자는 다투지도 아니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관용을 베푸는 것과 다투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디도서 3장 2절에 나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 말씀에서도 바울은 다투지 말라는 말씀과 관용하라는 말씀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관용하는 자는 다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는 자[모든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는 자(현대인의 성경)]라는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 “관용”이란 단어를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현대인의 성경) “종들은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 말씀을 현대에 적용한다면 직장에서 종업원이 선하고 관용하는(너그러운) 고용주에게만 두려움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고용주에게도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관용하는 고용주와 까다로운 고용주를 대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관용하는 자란 까다롭지 않은 자란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관용하는 자”를 “너그러운 주인”으로 번역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5절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선 서로를 너그럽게 대해야 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3절과 디도서 3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교회 지도자들은 서로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서로를 부드럽게(온유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두 여인인 유오디아와 순두게(빌4:2)가 그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그 두 여인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주님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고 강력하게 권면한 것입니다(2절).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관용(너그러움)”입니다 (고후10:1).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관용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십시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런 후 이렇게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5절에 와서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현대인의 성경)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고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왔기 때문입니다(5절하).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선 우리는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너그럽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하되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재림이 관점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를 너그럽게 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 굳게 서십시오. 이렇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건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굳게 서 있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도우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

[빌립보서 4장 6-7절]

지금 당신의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에는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마음의 평강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하루하루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평강보다 염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음성가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이 생각납니다. 그 찬양 1절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 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듯.” 여러분, 실제로 전쟁의 소문이 들어가는 이 세상 아닌가요? 우리가 뉴스나 신문 등을 통하여 어디서 폭탄테러가 일어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는지, 이런 뉴스를 너무나 자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 성가 가사처럼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 뿐 그 지겨움 끝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회 때 종종 새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1절)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 (2절)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 (3절) “이 세상에 죄악 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 곤고한 일, 죄악 된 일이 많고 죽을 일도 쌓여서 참 평안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수 없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보살피고) 계시기에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지만(벘전5:7)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마6:31) 등등 염려하면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생활의 염려”가 있습니다(눅21:34). 결혼한 우리 부부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배우자를 기쁘게 할까 염려합니다(고전7:33, 34). 그리고 자녀를 둔 부모는 그 자녀들로 인하여 염려합니다. 혹여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지 않을까 염려됩니다(신29:18).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합니다(고후11:28). 그리고 우리는 많은 때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마6:3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을 염려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래(미래)를 염려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을까봐 염려합니다(창38:11). 우리에게 “세상의 염려”가 참 많습니다(마13:22). 우리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눅10:41).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마6:27) 우리는 염려하고 또 염려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이렇게 염려할 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결과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 집니다. 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덮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현대인의 성경) “너희는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인생살이 걱정하다가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에 그 날이 너희에게 덮과 같이 덮칠 것이다”]. (2) 우리는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13장 22절을 보십시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현대인의 성경) “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듣지만 이 세상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결국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중심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란 제목 아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지 두 가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아 순종하여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는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 바울이 이 빌립보서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옥에 갇힌 사람은 바울이 아닌가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마시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염려할 만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염려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크게 한두 가지 염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염려란 첫째로, 내부적인 염려와 둘째로 외부적인 염려였습니다.

(1)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었던 내부적으로 염려할 만한 요소들은 한 5가지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a)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종인 바울을 생각할 때 염려하였을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당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를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주님의 종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면 염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 우리 교회 식구들이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b)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순수하지 못하게 다름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무리들로 인하여 염려하였을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1장 15, 17절을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13절, 현대인의 성경) 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믿는 대부분 신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두려움이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14절,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신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으로”(15절, 현대인의 성경),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습니다(17절, 현대인의 성경). 그 순수하지 않은 동기란 바로 바울을 더욱 괴롭힐 생각으로 이기적인 야심(“다툼으로”)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습니다(17절,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염려가 되지 않았을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먼 나라 이국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감옥에 갇힌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 계시다면, 안 그래도 그 분을 안 좋아하는 교인들 중에 그 분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고자 이기적인 야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고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순수한 동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한 영혼을 전도하기가 그리도 힘들 텐데 만일 교회 중 어떤 이들이 불순한 동기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 얼마나 염려할 일입니까.

(c)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는 교인들로 말미암아 염려하였을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은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온전히) 협력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27절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계속해서 써내려 가면서 빌립보서 2장 3-4절에 와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현대인의 성경) “무슨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절에 와서는 구체적인 빌립보 교회 안에 한 마음을 품지 못한 두 여인의 이름인 유오디아와 순두게를 언급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까지 권면하였습니다.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교회가 한 마음을 품은 사랑의 공동체요 연합된 공동체가 되어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만일 우리가 아무리 전도와 선교를 한다고 해도 교회가 주님 안에서 연합하지 못하고 성도들 간에 다툼과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것이요 막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다투며 분쟁하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전도를 받고 그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먼저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d)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같은 교회 성도인 에바드로디도가 병든 것을 들어 알고 심히 염려하였을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26-28절을 보십시오: “그(에바브로디도)가 너희 우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란 인물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쓸 것을 돕기 위해 바울에게 보낸 자였습니다(25절).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준비한 바울에게 필요한 쓸 것들을 가지고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와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 그에게 가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4:15-16). 그 뿐만 아니라 그는 바울에게 선물을 전달한 후에도 그와 함께 있으면서 동역하였습니다(2:25). 그는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습니다. 그는 바울과 복음 전도에 협력했습니다. 또한 그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면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잘 싸우면서 담대히 복음을 바울과 함께 전했습니다. 그러던 에바브로디도가 죽을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습니다(30절). 그 사실을 알게 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충분히 염려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교회가 성도님 중에 한 분을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필요한 것을 돕고자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을 도와 함께 열심히 복음 선교를 하다가 죽을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심히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같이 공산국가나 모슬렘 국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위험에 노출돼 있는 선교사님을 돕고자 이곳에서 떠나 선교지에 가서 고생하시다가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린다면 그 소식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큰 염려 속에서 온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께 그 성도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할 것입니다.

(e)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인 유대주의 자들로 인하여 염려하였을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십시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위험하니까 “삼가라”(beware), 즉 조심(주의)하라(watch out)고 말씀(경고)하고 있는데 누구를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의 원수들인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여기서 유대주의자들은 초기에 복음을 맹공격을 퍼부은 단체들 가운데 하나로서 그들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이 구약의 어떤 의식(특히 할례의식)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이 유대주의자들과 그들의 거짓된 복음을 이단으로 말하고 있으며 심지어 저주까지 하였습니다(갈1:8). 그런데 문제는 유대주의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진짜 신자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예: 갈2:12). 예를 들어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정작 그들은 그 교회에서 복음의 명료성을 훼손하고, 복음을 심각하게 더럽혔으며 또한 이방 신자들을 혼란에 빠트렸습니다.

이 다섯 가지 염려할 만한 빌립보 교회 내부적인 요소들 외에 외부적으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염려할 만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 요소는 한 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므로 오는 핍박과 고난으로 말미암은 염려였을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1장 28-30절을 보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히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요 그 대적자들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28절). 그들 또한 바울처럼 같은 싸움을 하고 있었기에(30절) 충분히 자기들을 핍박하는 대적자들로 인하여 두려워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적자들로 인하여 고난도 당하고 있었습니다(29절).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부적, 외부적 요소들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충분히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에 바울은 그들에게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4:6). 그런데 그 권면의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 있었다면 바울의 그 권면을 어떻게 받아들여겠습니까? 저 같으면 속으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말인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들을 제 자신에게 던져보았을 때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권면한 바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 생각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의 상황은 충분히 염려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아무 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울은 충분히 두려워하고 염려할 만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아무 것도 염려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는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아무 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 대답을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울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충분히 염려할 만한 상황에서도 아무 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확신과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염려할 만한 상황에서도 아무 것도 염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과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염려할 만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할지라도 우리도 바울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보살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벧전5:7).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저런 “많은 일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눅10:41).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마6:31). 우리가 생활의 염려를 하면 마음이 둔하여 지고(눅21:34)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합니다(마13:22). 우리 모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6:34).

마지막 둘째로,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당신이 생각할 때 (매우) 염려되는 상황이라면 당신은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염려되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도 알고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저의 경우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끔 제가 좀 마음이 힘들고 괴롭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므로 다시금 힘을 얻고 영혼이 소성케 되는 경험을 합니다. 그 때 드는 생각은 ‘아,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연속으로 우리의 삶 속에 불어 닥치는 것인지 ...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괴롭고 견딜 수 없어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눠서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합심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함께 합심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약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14절). 그들이 붙잡고 기도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결과는 오순절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펴박 가운데서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행2장). 이와 같이 우리 승리장로교회도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마16:18)란 말씀을 붙잡고 합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합니다(행1:14). 하나님의 은혜는 합심한 곳에 더욱 많아지는 법입니다. 마음에 불평이 있어서 서로 다투는 곳에서는 진정한 기도의 분위기를 이루지 못합니다(박윤선). 성경 야고보서 4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데도 너희가 얻지 못하는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는 합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합심 기도를 드리데 마태복음18장 19절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최고의 동역입니다. 또한 기도하되 우리는 “전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행1:14). 이것은 끝까지 참으며 힘쓰는 의미합니다(박윤선). 기도에 헌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분주함입니다(나우웬). 그 분주함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우선순위가 생활화 되지 못할 위험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함께 모여 전심으로 합심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다시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하였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 3가지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좀 짧게라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1)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로 우리는 큰 일이 터지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큰 일이 우리가 걸머지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작은 일들은 별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에 기도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 같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는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크게 염려되는 일만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작게 염려되는 일들도 다 하나님께 아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기도로 맡겨야 합니다(벧전5:7).

(2) 우리는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한 5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 **우리에게 제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현대인의 성경)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NASB)](마6:11).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염려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b)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마9:12). 물론 이 말씀의 의미는 좀 다른데 있지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건강이라 생각합니다. 건강하지 않고 병이 들면 우리에게는 의사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될 수 있는 데로 의사가 필요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건강관리를 꾸준히 잘 해야 합니다.

(c)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45절을 보면 초대 교회에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재산과 물건을 팔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재산 또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물질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d) 우리에게 “신실한 친구”가 필요합니다(욘6:14).

우리에게는 신실한 신앙의 동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고 있을 때에 사랑으로 우리를 책망해 줄 수 있는 충실한 친구가 필요합니다(잠27:5).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며 위로해주는 신실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함께 주님 안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의 친구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e)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계17:9).

이 세상을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약1:5).

이 외에 우리 각자가 필요로 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그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한번쯤은 좀 신중하게 해보야 합니다. 그 생각이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던지게 된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과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자녀가 우리 부모에게 와서 ‘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우리에게 좀 주세요 할 때 어떤 때는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에 지금 내 자녀가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라고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믿음의 성장하면 할수록 내 입장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시길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습관, 즉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권면하는 바울이 보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였을까요? 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교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였을까요? 물론 서로의 입장이 같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빌립보 교회 성도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바울이 보기에 그들이 필요한 것이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필요로 하는 것을 빌립보서 전체를 묵상하면서 한 7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a)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물질이 필요로 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에 협력함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물질로 바울을 후원한 것을 보면 바울에게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나 물질(선교후원금)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빌1:5, 7, 4:15-17).

(b)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복음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했었기에 그들은 기도가 필요했었다고 생각합니다(1:4, 9).

(c)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대적자들이 있었고 또한 그 대적자들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했었을 것입니다(1:28-29, 빌3장).

(d) 바울에게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했었다고 생각합니다(빌2:5, 4:2).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므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했었습니다.

(5) 에바브로도란 인물을 생각할 때 바울에게 있어서나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나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로서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치유가 절실히 필요했었을 것입니다(2:25ff.).

(6)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필요했던 것은 가장 고상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 생각합니다(3:8).

(7)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하였던 것은 예수님 한분으로 만족하는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4:11-12).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 건강, 물질, 신실한 신앙의 친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치유,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족의 비결 등을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3)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무 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죠?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작년에 요나서를 묵상하다가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 아래 짧은 말씀 묵상의 글을 쓴 것이

여러분과 나눕니다: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라는 말입니까?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처해 있었던 상황은 결코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밤낮 3일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요나1:17). 그는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2:2). 그는 바다 깊은 곳에 던져졌습니다(3절). 그는 주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4절). 그의 생명은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7절). 그는 죽음의 땅에 갇혀 있었습니다(6절). 이런 상황에서도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1, 9절).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기억한 과거의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1:14)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사 요나를 삼키게 하시므로 그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입니다(17절). 이것이 바로 요나가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결코 이것은 요나가 기도하며 기대했던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기대했던 구원은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2:10). 그러나 주권자이신 하나님 구원은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1: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2:1, 9). 우리 기도의 응답이 우리 기대대로 현실화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응답의 현실화는 우리가 기도한 내용대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 돼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므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9절)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과거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현재에도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히13:8)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사 요나를 육지에 토해 내게 하셨습니다(욘2:10).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나의 상황은 드디어 변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이 아닌

육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도 상황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9절).”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었던 바울은 어떻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므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 빌립보서 1장 3-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현대인의 성경)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처음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협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는 그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복음 전도 사역)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떻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에 동참하였습니까? 빌립보서 4장 15-16절을 보십시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에 바울이 필요한 것(쓸 것)을 물질적으로 후원하므로 그의 복음 전도를 협력하였습니다. 그 후원을 받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였던 이유를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였던 이유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시작한 착한 일, 즉 구원의 일을 반드시 완성하신 줄 확신한 것입니다. 이 바울의 확신은 결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근거한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확신은 하나님에게 근거한 확신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선택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이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기에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항상 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모든 일에 감사하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안에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에서 여기 저기 나가셔서 복음 선교 사역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복음 사역에 협력하므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기도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감사 기도의 조건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충만해 지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대로 아무 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때에 어떠한 결과를 맛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현대인의 성경)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아무 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때에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충분히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저와 여러분이 누린다는 것,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이러한 놀라운 평안은 결코 이 세상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평안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자녀)들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지(신뢰)하여(사26:3) 하나님께 모든 염려되는 일들을 감사하므로 기도하는(빌4:6)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평안”입니다(사26:3, 현대인의 성경). 이 하나님의 완전한 평안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기도로 아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빌4:7). 마치 군인들이 시민을 밤새도록 지켜 보호해주듯이 하나님의 평안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드는 모든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의심 등등으로 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MacArthur). 우리 모두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일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평안을 사모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자 애쓰면서)

생각하고 행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9절]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지난 2016년 한해를 뒤돌아보실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저는 어제 새벽에 이러한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그 힘든 상황을 바라볼 때에는 감사할 수 없겠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한 힘든 상황에서도 당신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난 주 금요일, 진경 자매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부랴부랴 안 전도사님이 입원해 계신 병원 중환자실에 갔었습니다. 안 권사님과 진경 자매와 함께 전도사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다가 좀 나중에 합류한 두 형제, 자매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후 전도사님이 투석을 하시기에 병실에서 나와 기다리는 방에서 앉아 대화를 하였습니다. 그 대화 중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것은 비록 전도사님의 몸이 너무 약해지셔서 고통 가운데 계시는 텐데도 불구하고 의식이 있으셔서 눈을 뜨시고 우리를 쳐다보시며 우리가 말할 때 고개를 끄덕여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산소 호흡기를 끼고 계셔서 전도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을 뜨시고 우리를 보실 수 있으시고 우리의 말을 알아들으심에 감사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범사에 또한 평생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8-9절을 보면 옥중에 있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모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두 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각 절에 나와 있는 부분적인 말씀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9절 상반절을 보면 바울은 “너희는 내게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말씀 중심으로 과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인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생각하라고 권면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십시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가정에 대한 생각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직장이나 회사에 대한 생각이 많으십니까? 건강에 대한 생각도 많을 수 있고 또한 미래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이런 저런 일들로 걱정하며 염려하는 생각을 하고 있든지,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생각들을 하고 있든지 하면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참고: 시77:7-10). 또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계속해서 품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생각이란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서(마15:19)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롬8:5). 그리고 그 육신의 일들이란 갈라디아서 5장 19-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 만일 지금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악한 생각을 언제까지 품고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렘4:14, 현대인의 성경).

오늘 본문 빌립보서에 나오는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1장 3-4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그들을 예수님의 심장(마음)으로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8절). 그리고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3절). 그 이유는 그들은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5절). 그들은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므로 협력하였을 뿐만 아니라(2:25-30) 또한 바울을 물질적인 후원을 하므로 협력하였습니다(4:15-16). 또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착한 일”(구원의 일)을 시작하셨고 그 구원의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1:6).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욱더 자주 그리워하고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질문은 과연 우리가 바울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더욱더 자주, 많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감사보다 불평 원망스러운 생각이 더 많습니까?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면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끝으로 형제들아”라고 말하면서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저는 한 3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 (1)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든지 참되며 옳은 것(whatever is true and right)을 생각을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빌4:8).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든지 참되며 옳은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였을까요? 여기서 바울이 말한 참되며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박윤선

박사님에 의하면 “참됨”은 선한 양심의 진실성과 그 열매들을 가리키고 “옳음”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함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박윤선). 이 의미를 생각할 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진실한 삶을 살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말한 ‘복음의 합당한 삶’이라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복음을 생각하며 또한 그 참된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을 생각하라고 권면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빌립보서 1장부터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지만(1:5) 교인들 중에 옳지 않은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순수하지 못한 동기(17절)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들 또한 다른 성도들처럼 올바른 동기인 “착한 뜻”(15절)과 “사랑으로”(16절) 복음을 전하길 원했기에 그리 권면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만일 이것이 맞는다면 우리 또한 바울의 권면을 새겨들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생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바울 시대 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은 참된 복음뿐만 아니라 거짓된 복음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참된 복음이라 할지라도 올바르게 전하는 사람들 또한 많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2)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정결한 것(whatever is noble and pure)을 생각을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빌4:8).

여기서 저는 “경건하며”란 단어와 “정결한 것”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성경 구절 두 개가 생각납니다:

(a)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은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베뢰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박윤선). 여기서 ‘고상한 심령’이란 열심을 다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박윤선). 그러므로 베뢰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는 말씀은 그들은 열심을 다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신사적인 사람들은 첫째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11절). 여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말씀은 “모든 열심으로”(박윤선) 혹은 “모든 자원함으로”(유상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을 때 베뢰아 사람들은 전적으로 자원하는 의지를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수용했습니다(유상섭). 다시 말하면, 베뢰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였습니다(참고: 8:14, 11:1)(유상섭).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뿌리가 시냇가에 흐르는 물을 빨아들이듯이 신사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수용력이 있습니다. 마치 스펀지를 꼭 누른 후 물통에 넣으면 물을 빨아들이듯이 신사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수용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스펀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쑥쑥 귀에 그리고 마음에 잘 들어오길 원합니다. 또한 가지, 신사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과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일치)하는지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직접 자신들이 확인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뢰아 사람들은 무턱대고 성경을 덮어놓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성경을 통해서 바울의 설교를 날마다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수용력과 더불어 균형 있게 그 말씀을 잘 확인해서 듣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의 수용력만 있다면 목사님들의 설교에 틀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틀린 부분들까지도 다 무조건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수용력과 더불어 그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금상천화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더불어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8절을 생각할 때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성경을 상고하되 주님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이 과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 (b) “정결한 것”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저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두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며, 둘째로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함. 이 일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너무나 교회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속화되지 말고 더욱더 성경인격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에서 이미 정결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더욱더 견고히 믿어야 합니다. 새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샘이”라는 찬송가 가사 1절과 후렴이 생각납니다: (1절) “정결하게 하는 샘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후렴)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모든 죄에서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현재 정결한 삶을 살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정결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므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케 해야 합니다(벧전1:22).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확실한 소망은 주님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거룩한 영적인 몸을 입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1-52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성경 빌립보서 3장 20-2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3)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찬사)(whatever is admirable, excellent, praiseworthy)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빌4:8).

여기서 ‘무엇이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란 말의 헬라어 의미는 “pleasing”(즐거움, 만족스러운) 혹은 “amiable”(쾌활한, 정감있는)입니다(MacArthur). 이 단어에 함축된 의미는 우리 신자들은 친절하던지 은혜스러워야 한다(kind or gracious)는 것입니다(MacArthur). 또한 “무엇이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와 “무슨 기림이 있든지”란 말씀은 비슷한 말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 받을 만한 행위를 하여 칭찬 받는 성도들이 되어 한다고 권면하였습니다. 저는 이 권면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볼 때 우리 교회는 칭찬 받는 교회가 되어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도덕적인 선한 일을 친절하게 행해야 합니다(박윤선, MacArthur).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웃에게 칭찬 받을 만한 행위를 덕스럽게 잘 감당할 때 우리 교회는 칭찬 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다”(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은 초대교회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칭찬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합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사도행전 16장 2절에 나오는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 받는 자니.” 예수님의 제자였던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기독교 신자들)에게 칭찬(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딤후1:5). 더 나아가서 그는 참된 제자도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예수님의 제자였기에 주위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디모데처럼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도를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칭찬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칭찬 받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의 교회’입니다(행11:26). 바나바는 사울(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는 큰 무리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철저히 시켰을 때 (26절, 유상섭) 그 결과 안디옥 교회 제자들은 질적으로 놀라운 성숙에 도달하므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비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제자 훈련을 잘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좇았으면 주위 비기독교인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승리장로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자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아마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병폐는 교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는 되지 못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것은 교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지역 교회 회중들의 낮은 영적 수준의 이유가 된다.” 우리는 결코 낮은 영적 수준을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11장1절에서 바울이 말씀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돼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는 칭찬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둘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권면 하였습니까? 바로 자기에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무엇일까요? 박윤석 박사님에 의하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여러 덕행들을 생각하고 그 덕행들을 귀하게 여기고 평가하라고 권면한 후 이렇게 오늘 본문 9절에 와서는 그 모든 덕행들을 자기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그들에게 권면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던질 때에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제 2차 전도 여행 때 갔었던 빌립보에서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 중심으로 우리가 목상하고 있는 빌립보서 4장 9절까지와 함께 과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무엇이였을까를 한 9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1)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는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빌립보에 도착해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아갔습니다. 그 때 그들은 거기 모여 있는 여자들 중에 루디아를 만나 결국에는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케 하셨습니다(14절).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그녀의 온 집안 식구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15절). 루디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을 계속해서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나오는데 그 간수 또한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던지 소리는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25절). 그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의 모든 가정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됩니다(33절). 물론 이 이야기는 빌립보 교회가 생기기 전의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을 것이기에 그들은 바울을 통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옥중에 있는 바울로부터 빌립보서 편지를 받았을 때에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1:4, 9).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4:6). 이 권면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었던 사실을 우리는 부인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2)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하여 목상한 것처럼 빌립보에 살던 루디아와 간수와 그들의 온 가족 식구들은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에 성도들은 빌립보서 1장 5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처음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복음을 전하는 데 협력하였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었을 때에도 복음을 변호하고 증거하였습니다(7절).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 증거를 계속해서 행하되 겁 없이 더욱 담대히 행할 뿐 아니라(14절) 또한 착한 뜻(15절)과 순수한 동기(17절)로 행하라고 권면했습니다.

(3)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는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기뻐하는 모습을 한 5개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a) 첫 번째는,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겉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알고 그는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러한 기쁨 속에 있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3:1,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자기처럼 복음 전파에 진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b) 두 번째는, 빌립보서 2장 17-18절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 생명의 피를 제사 술처럼 따라 붓는다고 해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현대인의 성경).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자기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기뻐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자기와 함께 기뻐하자고 권면하였습니다.

- (c) 세 번째는, 빌립보서 2장 29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주님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30절).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자를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29절, 현대인의 성경).

- (d) 네 번째는,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은 “나의 기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바울에게서 배우고 듣고 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자기들의 기쁨으로 삼고 살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라 생각합니다.

- (e) 다섯 번째는,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여러분이 나에 대하여 다시 관심을 갖게 되어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물질로 나를 돕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현대인의 성경).

바울이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던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관심을 가지고 물질로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돕겠다는 생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바울의 기뻐하는 모습을 듣고 그들 또한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 (4)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는 바울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고난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1장 28-30절을 보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이 편지 내용 부분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 안에서 보고 들었던 것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 행하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5)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는 바울의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20장 19절을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한 고별 설교 내용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 교회 성도들을 겸손히 섬겼다고 말한 것을 보면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자기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섬기길 위하여 그들에게 자기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6)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는 쫓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13-14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꺾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자기는 “한 가지 일만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13절, 현대인의 성경). 한 가지 일만이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꺾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13-14절). 바울이 분명히 하고 있었던 한 가지 일이란 바로 꺾대 또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달리기 선수가 경주할 때에 골라인(goal line)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바울은 꺾대(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달려가고 있었던 그 꺾대(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1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14절)이었습니다. 그 목표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인 바울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란 외부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행20:24)이었고 내부적으로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므로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빌1:27). 바울은 이 사명에 붙잡힌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하늘의 사명을 붙잡힌바 되어 그 사명을 완수하고자 달려가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12, 14절). 바울은 이러한 자기의 모습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보고 듣고 배워서 그들 또한 주님이 주신 사명에 붙잡힌바 되어 그 사명을 완수하고자 달려가는 삶을 살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7)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는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자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자기를 함께 본받으라 또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본받으라, 그리고 자기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본받은 빌립보

교회 안에 성숙한 성도들을 눈여겨보라고 권면한 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하여 말했습니다(18절). 그런 후 바울은 자기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모두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였습니다(20절). 그 이유는 바울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19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18-19절)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자기와 자기의 동역 자들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대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대조를 하는 목적은 그들 중에 믿음이 미성숙하여 유혹에 넘어갈 위험이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여러 사람들”(18절)을 본받지 말고 이미 영생을 얻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늘로부터 오실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들 또한 동참케 하고자 하려고 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는 지금 하늘에서부터 장차 오실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 후 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21절). 만물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주님께서서 큰 권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8)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는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 굳게 서십시오”(현대인의 성경).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한 이유는 한 2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a) 첫째 이유는 빌립보 교회 외부적인 이유로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절부터 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개들”,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육체를 신뢰하는 유대주의 자들입니다.

또한 바울이 말한 “세상적인 일만 생각”하며,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18-19절).

- (b) 둘째 이유는 빌립보 교회 내부적인 이유로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투기와 분쟁”(1:15)과 “순수하지 못하게 다름으로 그리스도를 전파”(17절)하며 허영으로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견고히 서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2:2-3).

그래서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게란 두 여인들의 이름까지 언급 하면서까지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주님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현대인의 성경)]라고 권면한 것입니다(4:2).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그들에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굳게 서십시오”라고 권면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권면대로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기 위해선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 (a) 주님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했습니다(4:2).

성경 마가복음 3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각자의 마음대로 서로 분쟁하면 그 교회는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영전 안정감은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며, 화합하며, 화평(화목)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두 여자인 유오디아란 사람과 순두게란 사람이 주님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은 서로 다른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 가면서 그 두 여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까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4:2). 그러기 위해선 그들에게 겸손한 마음이 필요했습니다(2:5).

(b) 주님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서로 도와야 했습니다(4:3).**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참으로 자기와 함께 멍에를 같이한 사람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게를 도우라고 말하였습니다(4:3). 돕되 바울은 그 사람에게 두 여인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라고 권면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기 위해선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도와 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님의 일을 협력하여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9)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너그럽게 대하는) 모습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현대인의 성경)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관용”이란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법이나 관습의 모든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 또는 ‘양도하다, 배려하다’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선 서로를 너그럽게 대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서로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서로를 부드럽게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두 여인인 유오디아와 순두게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두 여인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강력하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관용(너그러움)” 입니다(고후10:1). 이 그리스도의 관용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약3:17).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한 이유는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왔기 때문입니다(빌4:5).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선 우리는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너그럽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하되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재림이 관점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를 너그럽게 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너그럽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첫째로, 무엇이든지 참되며 옳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정결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찬사가 있든지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셋째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넷째로, 고난당하는 모습입니다. 다섯째로, 겸손한 모습입니다. 여섯째로, 사명에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일곱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덟 번째,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아홉 번째,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모습입니다.

생각하고 행하고 싶은,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

[빌립보서 4장 10-23절]

금년 우리 교회 표어는 “주는 교회”입니다. 주되 우리는 “사랑”과 “위로”와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는 게 금년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이 세 가지 중 오늘 “기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묵상해오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뻐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느헤미야 8장 중심으로 이미 한 3가지로 묵상을 했었습니다: (1) 우리는 슬퍼하지 말며 울지 않아야 합니다(9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하여 죄의 자각이 있으므로 울었습니다. 그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2)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10-1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하였던 이유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무엇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지 잘 모르면서 오랫동안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12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 율법을 깨닫게 했던 레위 사람을 권면을 듣고 슬픔과 눈물과 근심을 그치고 크게 즐거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입니다(12절). 모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며 그 모세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이 진리를 밝히 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픔과 눈물과 근심을 중단하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마음에 모든 슬픔과 근심을 주님께서 없애주시는 평강의 축복을 누립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여러분이 나에 대하여 다시 관심을 갖게 되어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물질로 나를 돕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중심으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란 제목 아래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마지막절인 23절일까지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3가지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기 위해선 우리는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0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나에 대하여 다시 관심을 갖게 되어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물질로 나를 돕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현대인의 성경). 당신은 요즘 무엇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아마 우리 모두 각자의 관심사가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공통된 관심사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 공통된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가족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을 것이고,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겠지만 더불어 그들은 그들이 또한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손자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자녀나 손자는 아마도 영육 간에 건강한 자녀나 손자보다 연약한 자녀나 손자에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은 관심과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가족인 교회란 공동체도 관심과 사랑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에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관심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질병이나 사고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형제, 자매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선교사님들을 크게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바울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형제, 자매들이 자기에 대하여 다시 관심을 갖게 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갖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물질로 돕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10절, 현대인의 성경). 이 얼마나 바울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특히 바울에게 큰 힘과 위로는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4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를 도와 준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당신이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에게 다가와서 지극히 작은 선행을 한 사람을 여러분은 잊을 수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은 저희 첫째 아기가 중환자실에 누워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저희 부부도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때 하루는 신학교 선배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조그마한 인형을 아기 침대 옆에 놓고 가신 것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비록 짧은 방문이었지만 그 분이 별 말씀 없이 그 작은 인형 선물을 미리 준비하셔서 저희 아기 옆에 놓으신 그 작은 선물이 제 마음에는 큰 추억으로 이렇게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아마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나서 돌 예배 때 그 인형 선물을 받았다면 이렇게 제 마음에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인형이나 아기 선물을 받았다한들 아기가 건강한 상태에서 받은 사랑의 선물들을 잘 기억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와 더불어 저희 부부가 제일 힘들고 어려웠을 때 받은 그 작은 인형은 우리 마음에 큰 사랑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을 생각할 때 저는 그가 어려움을 당하여 괴로움 가운데 있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일을 잊지 못하고 이렇게 빌립보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금 그들에게 언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바울은 오늘 본문 15-16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로 말하였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현대인의 성경) “빌립보 사람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한두 차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 주었습니다.”]. 이 편지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하루 이틀 사이가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된 관계임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초기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 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관계인가 생각됩니다. 그 때뿐만 아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두 번이나 그의 쓸 것을 보내주었던 것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지속적으로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왔던 것을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습니다(16절).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받아 넉넉합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낸 선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라고 말하였음(18절,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항상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첫날부터”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 편지를 옥중에서 쓰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1:3-5).

저는 이러한 진실한 사랑과 관심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러한 관계를 우리 교회가 물심양면으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지속적으로 맺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다 그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한두 번, 그 분들이 선교 사역에 힘들고 어려울 때 또한 절실히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선교비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서 세우시사 선교지로 보내신 선교사님들은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진실하게 돕기를 원합니다. 돕되 우리가 중요시해야 할 것은 관심입니다.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지 알아가므로 점진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실어서 그 분들과 그분들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하던 선교 나눔의 시간을 금년에는 1월 둘째 주일 뿐만 아니라 6월에도 한 번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알아가므로 조금 더 관심과 사랑의 마음을 실어서 기도할 수 있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카카오톡 방에 사진도 올려주시고 짧은 글도 남겨주시고 하면 우리는 그 글과 사진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선교사역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테말라 서진국 선교사님 부부 같은 경우는 선교 보고 및 기도 제목들을 이 메일로 정기적으로 보내주셔서 제가 게시판에 붙여 놓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속으로라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그 게시판에 영어사역에서 오랫동안 후원하고 있는 애리조나 주립

대학에서 캠퍼스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 Jon and Jan Wagnor 부부의 매달 선교보고 편지를 관심을 가져주셔서 읽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할 때 선교사님들은 우리의 사랑의 관심과 지속적인 도움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기 위해선 우리는 관심을 갖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사역에 힘써 수고하시는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가정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주님의 일에 신실하게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또한 우리를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게 하는 일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기 위해선 우리는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1-12절을 보십시오: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특히 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하는 것은 가르치려는 자세보다 배우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좀 더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저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성도님들을 가르치기를 좋아하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 2장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 하느냐 도독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독질하느냐”[(현대인의 성경) “그런 여러분이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여러분 자신은 가르치지 못합니까? 도독질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이 도독질하고”].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성도님들에게 도독질하지 마세요 하면서 우리는 도독질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먼저 우리가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배워야 할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1-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자족의 비결’(the secret of being content)입니다(“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미국의 작가 게일 셰취(Gail Sheehy)는 그의 베스트셀러인 “통로를 찾는 사람들”(Path Finders) 이란 책에서 참 만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고 말했습니다(인터넷): (1) 자기가 사는 의미와 가야할 방향을 알고 있는 사람; (2) 자기의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왔다고 실망하지 않는 사람; (3) 자기 나름대로의 확실한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조금씩 성취해 가고 있는 사람; (4) 진심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사람; (5) 깊은 속까지 털어 놓을 만한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 (6) 명랑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궁극적으로 해석하며 처리하는 사람; (7) 남의 비평이나 욕까지도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너그럽게 들을 수 있는 사람; (8) 두려움이나 근심을 뚫고 갈 정신적 힘을 가진 사람. 당신은 참 만족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만족 결핍증을 앓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져도 만족도 그 순간뿐인 듯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의 만족의 한계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인터넷).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당신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자족의 비결을 꼭 배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당신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즉 풍부할 때에든지 궁핍할 때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풍부할 때에도 욕심을 내지 않고 자족하면서 은혜로 주신 풍부함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궁핍할 때에도 원망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13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입니다(13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우리는 풍부할 때에든지 궁핍할 때에든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자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능력주시는 주님이 누구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요? 저는 시편 23편 시편 기자 다윗이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1절)라는 고백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주님 한 분 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주시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한 6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우리에게 능력주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시편 23편 2절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다.” 진정한 목자는 양들이 필요한 먹과 풀과 마실 물을 공급해 줍니다.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는 이유는 푸른 초장에 양들이 먹기 좋아하는 연한 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는 양에게 꼴을 먹여 줍니다. 또한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설만한 물가로 인도해 줍니다. 여기서 “설만한 물”란 칼빈에 의하며 “천천히 흐르는 물이니 양들이 마시기에 편하고, 또 그 건강에도 유익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양들인 우리들에게 육신의 양식만 아니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십니다. 먹여 주시되 주님께서는 우리를 풍성하게 먹여 주십니다. 그는 “여호와 이레”(The Lord Will Provide), 즉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창22:14).

(2) 우리에게 능력주시는 주님은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시편 23편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 여기서 “영혼을 소생시키심”은, 범죄하였던 영혼을 회개케 하여 진정한 생명을 받게 하심을 의미합니다(박윤선). 우리는 죄를 범한 후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에 우리 영혼이 짓눌림을 받습니다. 다윗이 그랬었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시32:3-4).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영혼은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짓눌림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죄에 매여 있어 영혼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회개치 않은 마음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혼은 죄 때문에만 죽는 법이니, 다시 살기는 죄를 회개함으로만 되어진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므로 우리의 짓눌렸던 영혼이 다시 소생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들춰내어 주셔야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길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 죄를 인정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오직 목자 되신 주님만이 그의 양들인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3) 우리에게 능력주시는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시편 23편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말씀은 곧은 길, 즉 평탄한 길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박윤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의 사람들은 의의 길을 택하기보다 악의 길을 택하여 그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 합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에 나오는 의로운 롯처럼 우리는 악의 길을 걷는 사람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상한 의로운 심령을 목자 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소성케 해주셔야 만이 우리는 일어나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심에 있어서 “인간 편의 어떤 좋은 조건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입니다(박윤선).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이시요 또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4) 우리에게 능력주시는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위험의 극단을 가리킵니다(박윤선). 다윗은 주님을 목자로 삼았기에 어떠한 위험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러므로 형통의 복을 누렸던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종노릇할 때에든지 아니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시되 다윗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셨습니다. 마치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맹수에게서 보호하며 양들을 푸른 초장과 설만할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목자 되신 주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인 우리를 맹수 같은 사탄과 그의 종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5) 우리에게 능력주시는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시편 23편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멸망시키려는 원수들 앞에서 연회를 베풀듯이 기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박윤선). 또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말씀은 “연회에서 귀빈에게 기름 붓는 풍속을 염두해 두고 한 말”입니다(박윤선). 하나님께서는 원수 앞에 핍박 받는 다윗을 연회에 청함 받은 귀빈처럼 대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받은 대접과 분깃은 풍성하고 넘쳤던 것입니다(박윤선).

(6) 우리에게 능력주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소망을 가득 채워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시편 23편 6절을 보십시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이 구절에서 과거의 은혜 받은 체험으로써 그 앞날을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받았습니다(1-5절). 그리고 다윗은 그의 앞날이 영원토록 평탄할 줄을 믿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자기와 함께 할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여호와의 집, 곧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확실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기 위해선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풍부할 때에든지 궁핍할 때에든지 우리에게 능력주시는 주님 한분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해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시고 또한 우리를 높여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사랑과 소망을 가득 채워 주시는 주님 한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는 그 목적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Purpose)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1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한 3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경 시편 50편 23절을 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2)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선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현대인의 성경)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자리를 본받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그 분을 닮아갈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온전해 질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3)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를 들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부인인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롬4:19). 또한 그는 “네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현대인의 성경) “네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는 하나님의 약속(18절)을 의심하지 않고(20절)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습니다(18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여(21절)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20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같아 보일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 믿으십시오. 믿음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기 위해선 우리는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족의 비결을 배워 어떠한 상황에서도, 궁핍할 때나 풍부할 때나, 주님 한 분 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함을 더욱더 충만히 누리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이웃 사랑의 기쁨을 맛보며, 가족의 비결을 배우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길 기원하면서)

결론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기뻐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복음 전파자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야 합니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각각 우리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겨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다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족의 비결을 배워 예수님 한분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무엇이든지 참되며 옹오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찬사가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고 행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는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진보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성숙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 그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